

# 濟州道內 特殊資源의 開發과 活用方案

姜 景 璿\*  
徐 庚 林\*\*  
梁 淳 秘\*\*\*

## 目 次

### 序 — 地域의 資源化 意義

#### 濟州道 傳承演戲 및 婚姻址의 觀光資源化 方案

- I. 머리말
- II. 民俗資源의 開發과 保存의 限界
- III. 觀光資源化가 가능한 民俗놀이와 民俗舞蹈 개관
- IV. 濟州道 傳承演戲의 觀光資源化 方案
- V. 婚姻址의 觀光資源化
- VI. 마무리

#### 濟州돌의 活用方案

- I. 濟州의 돌과 그 文化
- II. 濟州돌의 特性和 利用實態
- III. 濟州돌의 活用方案
- IV. 結 語

#### 濟州 特殊樹種 (自生樹種)의 資源化 方案

- I. 序
- II. 綠化樹木 生産의 展開와 現狀
- III. 綠化樹木의 流通
- IV. 綠化樹木 產地造成의 技法
- V. 몇 가지 補完體系
- VI. 結語 (要約 및 提案)

---

\* 農科大學 農業經濟學科 副教授  
\*\*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副教授  
\*\*\*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副教授

## 序 — 地域의 資源化 意義

우리는 일반적으로 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 — 제주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확실히 地下資源 등은 빈약하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빈약한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또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자원은 다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創出되어 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일반적으로 經濟活動에 불가결의 최소한 自然力 혹은 自然物 및 再生産不能의 鑛物, 人間資源을 가리킨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天然資源中 특히 鑛物資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水·海洋·日照·植生 등 天然資源은 결코 적지않다. 어쩌면 풍부하다. 그러므로 장래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들 天然資源으로부터 부족된 지하자원을 보충할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例를 들면 풍부한 植生을 이용하여 高度의 食料資源을 개발하는 것도 꿈만은 아니다)

本道는 사실 많은 資源을 보유하고 있다. 조물주는 우리에게 바람을 주었는가 하면(이것은 風多의 풍토를 형성케 하여 지금까지 고통의 대상이었지만 風力發電의 要素로서 시험중이다)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돌(石)을 이땅에 賦存시켜 주었다.(石多의 風土는 바로 風多의 풍토를 극복케 하는 요소가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가치는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또 한라산을 核으로 하는 너무나 풍부한 植生과 景觀은 뛰어난 자연생태계로서의 地域資源인 것이며(林多의 風土), 歴史的으로 배양된 언어, 풍속, 습관, 유적 등의 生活文化가 그렇다.

이제 이들을 地域資源化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선 이들 地域資源의 有效利用問題의 의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존자원을 有效利用함으로써 그를 통한 地域의 所得形成力을 높여 농가나 地域經濟에 活力을 줄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 지금까지는 市場化할 수 없었던 資源(要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加工, 造成을 통하여 제주에서의 附加價值를 높임과 동시에 취업의 기회, 所得確保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低利用, 未利用狀態에 있는 石類, 民俗, 무속, 민요, 自生樹種 등의 이용개발을 통

하여 保存과 진흥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네째, 諸資源의 管理度를 향상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라산 原始境의 樹木들에 대한 保護 (=保存, protect, preservation)가 그것만으로 사실 保存이 되지않고 있다. 희귀수종은 해를 거듭할수록 人災로 인하여 고갈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Conservation (保全)이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人工栽培를 통하여 갱신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희귀수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 — 욕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간접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의 방법론이 바로 人工재배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살아져가고 있는 제주고유의 민속, 무속, 민요들도 그 자체의 고립적 보존은 더욱 상실을 촉구할 뿐이다. 여기에도 Conservation이라는 대응을 통하여, 즉 적극적으로 再生, 活用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의 文化에 맥박하도록 하는 것이 보존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자원에 대한 인식하에 제주도내 특수자원의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제 1편 濟州道 傳承演戲 및 婚姻址의 觀光資源化 方案: 梁淳秘教授

제 2편 제주 돌의 活用方案: 徐庚林教授

제 3편 濟州道 特殊樹種(自生樹種)의 資源化 方案: 姜景璠教授(研究責任)

## 濟州道 傳承演戲 및 婚姻址의 觀光資源化 方案

## 目 次

- I. 머리말
- II. 民俗資源의 開發과 保存의 限界
- III. 觀光資源化가 가능한 民俗놀이와 民俗舞踊 개관
  - 1. 民俗놀이
  - 2. 民俗舞踊
- IV. 濟州道 傳承演戲의 觀光資源化 方案
  - 1. 濟州 傳承演戲의 商品化 方案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모색
  - 2. 각종 관광홍보 방안 모색
- V. 婚姻址의 觀光資源化
- VI. 마무리

## 1. 머리말

濟州道는 우리나라 最南端에 위치하여 해발 1,950 m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360여 개의 기생화산으로 특이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기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난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열대 및 아열대성 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도 하여 약 15종 정도는 천연기념물로도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다.

이와같이 그 지리환경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만장굴과 협재굴 등의 동굴 관광자원은 물론 이요, 화산의 분화구로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일출봉과 산굼부리 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천혜연폭포 등 폭포수자원과 산방산, 안덕계곡, 고산의 수월봉, 외돌피 등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만큼 천혜수려한 경관으로 곧 자연경관형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24군데 중 그 하나로 선정된 지역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地理的으로 韓國本土와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자연 한국본토와의 문물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문화의 보수성과 정체성이 짙었을 것임에는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풍토적 조건에 맞게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 고유성이 일

적부터 주목을 받아 온 터다. 도민들의 生活文化가 自然的 風土條件에 적응하면서 형성, 발전되어 왔고, 7종의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들은 제주적인 생활문화의 상징으로도 현시될 수 있다.

우리들은 ‘觀光’ 하면 우선 ‘자연경관을 구경하는 것’이라고만 단정해 버릴 우려가 있다. 자연경관 감상이 관광의 第一要件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것이 관광의 전부 는 아닐 것이다. 물론 異國의인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것도 흥겨운 일이지만, 그 자연풍토 속에서 영위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관광객들로 하여금 살피게 하는 것 또한 의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제주의 생활문화는 제주라고 하는 자연적 풍토적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며 삶을 이룩해왔는가 하는 제주인의 생활의 지혜와 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관광에 있어서 人文資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sup>1)</sup> 다시 말해서 濟州島의 觀光資源은 주로 자연 경관 부분만이 적극 활용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분야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文化觀光資源으로서의 濟州만이 갖고 있는 濟州人의 生活習俗, 곧 民俗이다.

현재까지 제주도 관광개발에는 濟州民俗의 觀光資源化에 대한 論議가 적극적으로 거론되어 온 터이나 아직까지도 그 성과가 미약한 현실이다.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內面的 特有性을 향유하지 못한 채 다만 피상적이고 외부적인 관광(구체적으로 말하면 城邑民俗 마을 정도)에만 머물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 관광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中文觀光團地와 같은 인위적인 관광시설을 배경으로 하여 제주도 독특한 民俗資源을 觀光資源化한다면 본도 전체가 살아 있는 완전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눈요기만을 하는 단순관광에서 보다 머리로 생각해 하는 입체적인 복합관광으로 그 형태를 개발하여 나갈 때, 제주도는 매우 차원 높은 관광지의 대상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 하에 본고에서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濟州人의 生活習俗, 곧 民俗資源과 歷史遺蹟을 어떻게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이 있는 무형문화재, 곧 傳承演戲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나마 선행되어야겠고, 제주도의 歷史遺蹟들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우선 자원화가 가능한 민속놀이와 무용, 그리고 地方文化財記念物로 지정된 婚姻址遺蹟의 경우를 들어 그 觀光資源化 方案에 대한 모색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玄容駿, 「獨特한 歲時風俗 再現作業時急·濟州風物의 觀光資源化 方案」, 『제주도』, 제 78 호, 1985, p.162.

## Ⅱ. 民俗資源의 開發과 保存의 限界

제주도 민속현상 중 그 대표적인 것들이는 일차적으로 그 가치를 따질 때 하나의 宗教現象임은 말할 나위 없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주인의 신비경험인 것이다. 이른바 接神現象이 한 인간에 의해 체험되는 것—신지핍·신살림·신오름이라면, 그 접신상태에서 경험하는 영적, 감정적 상태가 곧 神明인 것이다. 그 신명은 달리 신바람, 신남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무당굿의 흐름은 접신현상에 의한 신비로운 경험인 것이다. 이것을 관광자원화한다는 것은 개발과 보존의 차원에서 볼 때 갈등과 대립이 병존하기 마련이다. 무당굿을 신지핍 그대로 신바람나게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멋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이것을 관광객을 의식하고 관중의 관람료를 의식하는 상품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관광객들에게 무당굿의 신앙적인 면보다 연회적인 면을 관람하게 한다는 것은 관광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주민속문화의 보존과 개발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해답은 자명한 것이 되어 버린다. 곧 어느 한 시점의 생활문화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보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보존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濟州文化의 構造的 特質이 사라지지 않게 변용토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요, 그러한 방향에서 濟州民俗의 觀光資源化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sup>2)</sup>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사라져 버린 傳承演戲들을 중심으로 재발굴하여 충분한 연구 결과의 토대 위에 대본화작업을 거친 후, 무대화하여 관광자원화시키는 방안이거나, 원형의 再演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소재로 재창조되어 이미 무대화된 적이 있는 민속무용이나 놀이를 상대로 한 관광자원화 방안은 전통문화의 보존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2) 玄容駿, 「濟州島 民俗文化의 保存과 開發方向」, 『제주도의 보존과 개발』, 1985, p.7.

### Ⅲ. 觀光資源화가 가능한 民俗놀이와 民俗舞踊 개관

제주도는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환해성과 한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격절성과 토지가 협소하다는 협소성 등의 도서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날 본토와 두절, 고립 내지는 격절성 때문에 자급자족이 강제되어 사회는 정체하고 제주도 특유의 민속문화가 강하게 잔존한 지역이다.<sup>3)</sup> 민속무용을 크게 나누면, 주로 농업, 어업 등 생업에 관련되어 그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로 발달한 것, 무속 기타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것 그리고 각 고장의 전설과 어느 특정 사실에서 비롯된 것, 또는 단순히 오락적인 것 등(첨부 1: 제주민속놀이 목록표 참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주의 민속놀이들과 무용을 토대로 제 5회부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줄곧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도 있다. 8회 대회에서는 '영감놀이'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제 9회 때는 '영등굿놀이'가 국무총리상을 차지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입상으로 이미 제주도의 民俗藝術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선양해 온 터다. 이는 곧 제주도 民俗藝術이 그만큼 독트함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첨부 2: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참가했던 역대작품 및 수상내용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본고 말미로 첨부한다.)

그러면 제주도의 傳承演戲들 중 觀光資源화가 가능한 民俗놀이와 民俗舞踊들을 이미 先學들의 調查報告 내지는 研究된 바 있는 것들을 토대로하여 개관해 보기로 한다.

#### 1. 民俗놀이

##### (1) 立春굿놀이

〈입춘굿〉이란 立春날에 베풀어지는 굿놀이의 한가지로서 지금은 볼 수 없다. 5~60년 전만해도 볼 수 있었다는 이 〈立春굿놀이〉는 官에서 주관하여 이루어 졌던 巫俗의 하나였는데, 해마다 立春 전날에는 전도의 首巫들이 이 관덕정이나 東軒에 모여서 前夜祭를 치르게 된다. 이 전야제 때에는 미리 만들었던 나무로 된 소 모양을 끌어내어 祭를 지내게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 졌다고 한다. 그 이튿날 아침에는 戶長이 머리에 관을 쓰고, 禮服을 입고 나와 木牛에 쟁기를 매우고 심방들은 軍服(巫服)을 입어 木牛를 끌며, 그 앞에는 여러가지 樂器를 갖춘 사람들과 탈을 쓴 〈기장대〉, 〈엇광대〉, 〈빗광대〉, 〈초란광대〉, 〈갈채광대〉, 〈함미광대〉 등이 나아가고, 그 뒤에는 어린 기생들이 따라가면서 북·

3) 姜景璣, 「古典의 島嶼性에 대한 考察」, (濟州大學 「論文集」 13집), 1981, p.203 참조.

장고와 징 따위의 巫樂器 소리를 울리며 戶長을 호위하여 관덕정 앞마당에 이른다. 그리하여 戶長은 심방들을 民家에 보내어 여러가지 곡물들을 얻어 오게 하고, 그 얻어 온 곡식에서 여물고 안 여문 것을 보고 새해의 농사에 豐凶의 조짐을 점치곤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앞과 같은 모습으로 客舍에 이르러서 심방은 巫樂과 함께 주문을 외우며, 일동은 다시 東軒에 이르러 戶長이 쟁기와 따비를 잡고 와서 밭을 가는 시늬를 하면, 한 사람은 빨간 가면(탈)에 긴 수염을 단 농부로 꾸미고, 五穀의 씨앗을 뿌리며, 또 한사람은 물감으로 새털과 같이 그린 옷을 입거나 또는 새털로 꾸민 옷을 입어 새로 가장하고 무엇을 주어 먹는 시늬를 하면, 또 한 사람은 사냥꾼이 되어 그 새를 쏘는 체 한다.

이때에는 반드시 여자 가면을 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자 가면을 쓴 두 사람은 서로 씨앗싸움을 하며 다투게 되면 또 한 남자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재부인들의 씨앗싸움을 말리는체 하는데, 이 무렵의 광경이 실로 웃음기 이를 데 없다.

여기서 자리에 앉아 구경하던 牧使는 자리를 뜨고 그들 앞으로 닥아가 술과 담배를 많이 권하며 관과 민이 한데 어울려 노는 흐뭇한 광경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관중들은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해하고, 다시 목사가 사는 관사에 이르러서도 탈을 쓰고 뛰논다. 어찌 보면 그들 스스로도 평상시의 그들이 아닌 영웅이나 호걸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일반 관중들도 또한 그렇게 생각되어 부러워 한다.

그리하여 戶長은 물러가고 심방들은 관덕정 마당에 이르러 북과 장고를 치고 춤을 추며 뱅뱅 돌다가 마지막에는 초감제 본풀이 중에 천지개벽 신화를 비롯한 巫歌를 구송하고 太平과 豐年을 빈 다음에 헤어진다.

이로써 풍년을 비는 官과 民의 合同祭戲인 <입춘굿놀이>는 끝을 맺는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배역은 戶長 1명 소미 2명 씨할아버지 1명, 잡귀 3명, 수심방 1명, 심방 2명, 농악대 9명, 꿩바치, 아낙네, 부녀자, 사대부 각 1명씩 이외의 다수 인원이 출연하게 된다.

이 작품이 출연 당시 구성 宋錫範, 안무 宋根宇, 해설 安仕仁 등이 맡았고, 출연진은 濟州女子中高等學校 民俗藝術團이었다.<sup>4)</sup>

## (2) 세경놀이

<세경>이란 農神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세경놀이는 農神에 대한 의례인 것이다. 이 놀이는 단독의례로 행한 적은 거의 없고, 종합제라 할 수 있는 큰굿 때의 한 祭次로서 행해진다. 지금은 큰 굿을 하더라도 이 놀이를 하는 데가 아주 적어졌으며, 특히 濟州市를 중심한 한라산북지방에는 큰 굿을 하더라도 이 굿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消滅되어 가고 있는 놀이인 것이다.

4) 濟州道,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pp.192~194.  
 玄春植, 「濟州道の 民俗藝術」,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出演作品), 1980, pp.3~5.



이 놀이는 별도로 제상의 차림이 없이 연극적으로 實演된다. 준비할 도구는 農耕收穫行爲를 재현하는데 필요한 낫, 호미 등 간단한 농기구와 巫具 그리고 병이 하나 소요된다.

배역은 수심방(立巫) 1人, 소미(樂巫) 3人, 여인분장의 小巫 1人이 필요하며, 이 인원은 큰 굿을 하는 심방으로 총당된다. 놀이는 마당이나 상방에서 열리는데, 세경놀이 차례가 되면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수심방이 등장하여 선채로 玉皇上帝 이하 諸神이 登天하고 세경놀이 차례가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사설을 唱한다. 그러면 곧 여인으로 분장한 小巫가 등장하여 “아야 배여 아야 배여” 하며 배가 아파하는 모습을 해낸다. 여인은 배에 병을 하나 감아 묶어 배가 볼록하다. 여인과 小巫와 수심방, 그리고 구경꾼들이 서로 익살섞인 대화로 극은 전개된다. 우선 배가 아픈 이유를 向占해 보니 임신한 때문임이 밝혀진다. 이 여인은 시집살이가 싫어 도망치는데 들판에서 소변을 보다 어떤 건달 총각이 달려들어 임신시켜 버린 것이다. 여인은 만삭이 되어 해산을 한다. 小巫들이 조산역을 하여, 배에 묶은 병을 풀어 사타구니 쪽으로 빼어 놓는 것이다.

이 아기를 <괘돌이>라 이름짓고 애지중지 길러 書堂에 보내어 글공부를 시킨다. 아이는 글을 못 읽고 항상 ‘밥밥’ 하는 소리만 내므로 밭을 하나 빌어 농사를 시키기로 한다.

심방들은 우선 밭을 하나 빌고 농사를 시키기로 한다. 그 밭을 갈아 흙덩이를 부수고 좁씨를 뿌려 마소를 몰며 밭을 밟는 모습을 연출시킨다.

조가 發芽하고 성장한다. 심방들은 김을 매고, 익은 조를 거두고, 마소에 실어 운반하여다가 타작하고, 키질하고, 체질하여 모두 장만하는 모습을 試演한다. 조농사가 대풍이라고 한다.

다음은 그 곡식을 이제까지 빻진데 갇을 것을 되로 되어 마련하고, 앞으로 소용될 제반경비를 마련한 후, 그래도 엄청나게 남은 곡식을 운반하여다가 <고광>에 저장하는 과정을 연출한다. 그래서 <산판점>으로 豐凶을 점치고, 下位神들을 대접하는 사설을 창하여 놀이는 끝을 맺는다.

이와같이 이 놀이는 농사의 풍요를 비는 農耕儀禮이다. 제주도의 큰굿의 제차가 바뀔 적마다 별도의 제상을 마련하고 請神과 축원의 절차를 따르는데, 이 놀이는 이런 것이 없이 시종 흥미본위의 연극으로 연출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죽을 싸는데 달려든 총각으로 하여 임신한다든지 해산하는 장면이라든지 농경과정의 모든 연출이 구경꾼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실지 농사의 결과가 <놀이>의 경우처럼 大豐年이 되어 쓰다가 남은 곡식을 광에 저장할 수 있도록 類感呪術的 효과를 노리고 있는 儀禮인 것이다.<sup>5)</sup>

5) 濟州道, 前掲書, pp.194-195.  
 玄春植, 前掲書, pp.5-6.

## (3) 영감놀이

〈영감놀이〉는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무당굿놀이의 하나로 神과 人間이 교섭하고 대화하는 接點을 보여주는 연회적 의례로서 전형적인 것이다. 〈영감〉은 일명 〈참봉〉, 〈야채〉 등이 라 하는데, 모두가 도깨비를 존칭하는 말이다. 도깨비는 제주 방언으로 〈도채비〉라 하는데, 일반은 이를 도깨비불(鬼火)로 생각하기도 하고, 인격화된 神靈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제주도 무속에는 이 영감신에 대한 神話 〈본풀이〉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이 神은 본래 七兄弟로서 서울의 먹자고을의 許政丞(또는 柳政丞)의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은 성장하여 각각 국내의 山岳을 차지하여 가는데, 큰 아들은 삼각산을, 둘째는 백두산을, 셋째는 금강산을, 넷째는 계룡산을, 다섯째는 태백산을, 여섯째는 지리산을, 일곱째는 제주의 한라산을 차지하였다.

이 神은 갓양태만 불은 破笠을 쓰고 옷깃만 겨우 불은 배도포를 입고, 총만 불은 떨어진 미투리를 신고, 한뼘도 못한 곱방대를 물고 다니는 우수짱스런 神인데, 한손에는 煙火, 한손에는 神火를 들어 千里萬里를 순식간에 날아다닌다.

이 神은 돼지고기류나 수수범벅을 즐기고 해변, 水中, 山中 할 것없이 어디나 돌아다니는데 특히 비가 오려는 밤이나 안개 낀 음산한 날을 좋아해 나타난다. 이 神은 집안에 잘 모셔 후히 대접하면 일시에 巨富가 되게 해주니 특히 어부들이 잘 위하면 멀치배, 기타 어류를 몰아다 잡게 해 주어 부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 神을 집안에 〈조상〉이라 하여, 守護神으로 모시기도 하고, 船王이라 하여 船神으로 모시기도 하고, 대장장이의 守護神이나 부락의 堂神으로 모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잘 모시다가도 한번 실수로 대접을 게을리하면, 집내귀에 불을 붙이는 식의 요망스런 짓으로 일시에 망하게 해 버리기도 한다.

이 神은 해녀와 과부 등 미녀들을 좋아하여, 같이 살자고 달라 붙어 병을 주거나, 방에 살짝 閨房을 드나 드는 망치한 성격도 있다.

이처럼 〈영감놀이〉는 도깨비 神에 대한 굿인 동시에 연회인 것이다.

이 놀이의 영감神이 미모를 탐하여 빙의했기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경우, 어선을 新造하고, 船神인 〈신왕〉을 모셔 얹히려는 경우, 기타 부락의 당굿때에 實演된다.

治病을 위한 영감놀이는 마당에 영감제상을 차리고 밤에 행한다. 북·징·팽과리·장고 등 巫具一切가 소요되는 것은 다른 굿과 같은데 특히 준비해야 할 것은 영감가면 2개와 짚으로 만든 소형의 배가 필요하다. 가면을 특별히 준비하지 못하면 창호지로 얼굴을 가리게 하여 눈과 코, 입만 뚫어 놓으면 된다. 굿은 일반 굿과 같이 시작되어 수십방이 祭場(굿청)에서 모든 神을 청해 들여 축원하는 〈초감제〉를 한다. 그래서 영감놀이 차례가 되어가면, 小巫 두 사람이 각각 영감가면을 쓰고, 햇불을 들어 멀리 東·西로 갈라져 대기해 있다. 얼

마없어 놀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場엔 불을 꺼 캄캄하게 해 놓고, 수심방이 바깥을 향해 <영감! 영감!>하고 큰 소리로 몇 번이고 부른다.

그러면 멀리 대기해 있던 영감 둘이 횃불을 흔들며 서로 신호를 하며, 祭場으로 들어 온다.

영감이 「허허허허」하며 등장하면 수심방과 영감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영감은 한라산을 구경하러 온 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영감을 부르는 소리가 나길래 왔다고 말하고, 수심방은 이집 아무개가 당신 동생을 빙의하여 앓고 있어 칭찬 것이니 동생을 데려가 달라고 한다. 그래서 환자를 불러 앓힌다. 영감은 환자를 보고 「찾던 동생이 여기 있었구나. 어서 가자」고 권한다. 그리고는 거기에 앞서 싹껏 놀고 떠나자 하여 술을 마시고 한참 즐겁게 논다.

마지막에 만든 배에 여러가지 음식을 싣고 떠나는 장면을 연출하여 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고 끝을 맺는다.

이 놀이에서 보듯이 이 놀이는 가면놀이임이 특색이다. 본래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의례로서 도깨비 자신이 환자에게 빙의해 있는 동생을 데려가 버리는 내용을 극적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가면은 일정한 형이 없이 그때 그때 만들어 써서 별 특징은 없으나 현재 제주에서 보기 힘든 가면연회인 것이다.<sup>6)</sup>

#### (4) 영등굿놀이

<영등굿놀이>는 「東國輿地勝覽」이나 「東國歲時記」 등에는 ‘영등굿’ (燃燈祭) 또는 躍馬戲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의 2월달 풍속으로 유명하게 취급되어 온 행사이다. 그 기록에 의하면,

2월 초하루에 귀덕·김녕 등지에서는 나뭇대 열둘을 세우고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냈다. 애월 (涯月) 에 사는 사람들은 배 모양을 말머리와 같이 하여 비단으로 꾸미고 말뛰기 놀이 (躍馬戲) 를 하여 神을 즐겁게 했다. 보름에 이르러 이를 끝맺는데, 이를 ‘영등’이라 했다.

「濟州俗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迎神祭之 涯月居人得槎形如馬頭者飾以彩以帛作躍馬戲以娛神 至望月乃止謂燃燈」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영등굿놀이>는 제주도 일원의 해안부락에서 해녀들의 채취물을 증식시켜 주는 의례로서 무당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영등굿>, <잠수굿>, <해신제>, <해녀굿> 등이라 불리는 굿들은 모두 이 계열의 행사들인데 옛날과 달리 지금은 모두 하루에 행사를 끝맺는다.

이 놀이의 특색은 영등신이 해녀의 채취물의 씨를 가져다가 뿌려준다는 신앙에 기반을 둔 행

6) 濟州道, 前掲書, pp.195-196.  
 玄春植, 前掲書, pp.6~8.

사로서 전복, 미역, 소라 등의 씨를 바다에 뿌리고 이것들의 豐凶을 점치는 것등 해녀가 있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무속의례이다. 현재 도일원의 해안부락에서 행해지고 있기는 하나 古文獻에서 볼 수 있는 말뚝이 놀이〈驪馬戲〉는 그 면모를 알 수 없게 변모하여 버렸다.

영등의 신앙은 원래가 원천군이라는 데서 파생되었으며, 유대감의 머슴으로 지낸 영등의 혼령을 위로하자는 데서 비롯되었다.

영등이라는 머슴이 생시에 받들던 유대감댁을 풍성케 해줌으로써 온 마을이 그 소식을 들어 알게 되었고, 마침내는 곳곳에서 이 영등의 혼령을 위로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에는 252군데나 되는 수많은 神堂이 있어 옛적에는 도민이 성미를 내어 제를 차리는 일대 행사였으나 현재에는 한림읍 한수리 등지의 일부 神堂에서만 주민들이 초출하게 지내는 堂祭가 되고 말았다.

영등제의 제의를 보면, 정월 그믐날에 모든 제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당맨 심방이 집에서 깨끗이 제물을 준비 하며 그 내용을 보면 메밥·떡·과일·바닷고기·채소·술·골감주·보신퓌·보담(무명) 한 필·향불·초·실(한꾸러미)·배(6자질이의 깊이나 나무로 만든 배)·바지와 저고리(한벌) 등이다.

제의 시작은 2월 초하루날 아침 4~5시경 영등당에 나가서 제물을 진설함으로써 비롯되는데, 이때는 병풍에 지방을 써 붙이며, 그렇게 해서 굿이 시작되면 다음 맞이하는 축일이나 술일 때는 배를 띄워 보냄으로써 영등제는 끝맺게 된다.

지방을 써 붙인 것과 올렸던 바지와 저고리는 제 끝에 태워 버리는 것이지만 이 때의 지방에는 창호지 반장 크기로 다섯 위에 오리고 거기에 신주의 내력을 써서 병풍에 붙이게 된다. 그 다섯 신위의 내력은 곧 ① 옥황상전, ② 토지지신, ③ 요왕대신, ④ 영등대왕, ⑤ 마을 분향 등이다. 제의 준비가 되면 추물올림을 하게 되는데 준비된 제물은 다섯 쟁반씩 진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등제가 처음 시작하게 되면 심방은 예식대로 북, 대영, 설쇠 따위의 악기를 한꺼번에 다 같이 치어 울리며, 제관은 국궁사배를 공손하게 드리며 이때부터 심방은 밤낮으로 축원을 울리기 시작한다.

이처럼 이 영등제에 맨 처음 제신에게 시작을 알리는 악기소리를 내고,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의례가 베풀어지게 된다.

① 초감제 : 굿의 목적 및 일시, 그리고 그 제단의 소재지를 비롯한 기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구송하는 祭次다. 요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제의(굿)가 베풀어지고 있으니 관계되는 여러 신위께서는 오십사라고 講神하는 대목이다.

② 상제 : 초감제에서 청한 神 가운데서 누락된 신진들을 재차 오십사고 청하는 과정이다.

③ 공연; 여러 신을 청해 앉혔으니 이제는 차려 놓은 음식을 잡수십시오 하고 비는 祭次다.

④ 개인 축원; 단골신앙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祝願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이에 한하여 개인적인 축원을 해 주는 과정의 祭次다.

⑤ 철번; 神前에 올렸던 祭物들을 조금씩 떼어내어 送神할 배에다 싣는다.

⑥ 배 놓음; 굿을 시작해서 일정한 날짜에 神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바닷가로 나가서 미리 마련된 배에다 태워 보낸다.

이렇듯 영등제는 丑日과 戌日이 당하면 굿을 마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날짜를 찾아 보면 영등굿은 대개 7일간 또는 8일간의 굿이 되는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영등대왕의 전송을 부락사람 일동이 다함께 바닷가로 나가서 배를 놓으며 전송을 잘하면 모두 편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영등제 끝에 띄우게 되는 배는, 단골중의 성의있는 사람이 우선 권으로 만들어 제단에 바치게 되며 배를 띄울 때는 날씨가 시원치 않으면 낚싯배를 놓아 먼 바다까지 끌고 가 띄우기도 하는데, 이때 띄운 배가 역풍으로 돌아오게 되면 성의가 부족한가 싶어 미심쩍게 생각하기도 한다.<sup>7)</sup>

#### (5) 칠머리당굿

〈칠머리당굿〉은 濟州市 健入洞 소재 칠머리당에서 음력 2월에 영등신께 올리는 巫俗祭다. 영등神은 흔히 〈영등할망〉이라 부르는 神으로서 음력 2월 1일에 본도를 찾아와 같은 달 15일에 떠나간다고 하며 漁民들의 海上安全과 해녀 採取物의 풍요를 빌기 위해 2월 1일에 영등환영제를 하고 2월 13일에서 15일 사이 어느 날에 영등송별제를 한다.

그 祭次는, ① 초감제 ② 요왕맞이 ③ 씨드림 ④ 산받음 ⑤ 액막이 ⑥ 배방선 등의 願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초감제에는 모든 神들을 청해 앉혀서 소원을 祝願하는 序祭的 祭儀인데, 북·징·설채 등 巫樂器의 장단에 맞춰 수십방(首巫)의 歌舞로써 집행된다.

요왕맞이는 海神인 龍王과 영등神의 來臨하는 길을 치위뒹아서 神을 맞아들이고 축원하는 祭願이다. 백지와 지전을 묶어 맨 푸른 대 8개를 二列로 꽂아 세워서 이를 신이 來臨하는 길인 〈요왕문〉이라고 하여 이 길을 깨끗이 뒹아서 신을 맞아들이고 소지를 올리는 것이다.

씨드림이란 영등神이 미역·전복·소라 등 해녀採掘物의 씨를 뿌려주는 행위를 모의적으로 實演하는 것이며, 씨점이란 해녀 채취물의 豐凶을 점치는 순서이고, 산받음이란 각 家戶의 1년간의 행운을 점치는 과정인 동시에 액막이는 1년간의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순서이다.

7) 玄春植, 前掲書, pp.8~10.

濟州道, 「濟州의 文化財」(濟州道), 1982, pp.113-114.

배방선은 위와 같은 순서로 굿을 끝내고 영등신을 보내는 뜻에서 짚 따위로 만든 자그마한 배에 갖가지 祭物을 싣고 바다 멀리 띄워 보내는 것이다.

이처럼 칠머리당굿은 해녀채취물의 풍요를 비는 내용이 주가 되는 곳으로 濟州 특유의 해녀들의 信仰과 生活民俗이 담겨 있는 곳이다. 한국 본토에서도 영등신앙은 있지만 부락제 형식인 곳으로 행해지고 있는 곳은 濟州뿐이어서 민속신앙 내지는 民俗藝能面에서 重要的 學術的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sup>8)</sup>

이 외에도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제주의 민속놀이 (특히 현상적으로 잊혀진 것들)는 많다. 여기에서는 단지 그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소개했을 뿐이다.

## 2. 民俗舞踊

### (1) 해녀놀이

제주 고유의 〈해녀놀이〉는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바도 없고, 민간의 생활기층에서 전승되지도 않는다. 다만 제5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릴 무렵 도내의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해녀들을 소재로 한 민속무용인 〈해녀놀이〉를 구상하고 출연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해녀놀이〉는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생활전사인 해녀들의 나잡업법과 잡담적 오락을 民俗舞踊化하여 여기에 거칠은 풍파에 도전해온 의지가 번득이는 해녀노래를 조망하고 〈허벅〉과 〈태약〉 장단을 곁들인 놀이가 창안된 것이다. 그러니까 〈해녀놀이〉는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바다와 더불어 살아 온 제주도민들의 일상상태를 그려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노래가 전해지는 곳은 전세계에서 제주도 뿐이다. 이 지구상에 해녀가 있는 곳은 한국과 日本뿐인데 한국 해녀 거의가 제주도 해녀인데다 일본 해녀들은 노래를 거의 부르지 않으므로 해녀노래는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는 셈이다.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작업차 배를 타고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제주도 연안에서 먼 바다로 배를 타서 작업하러 떠나거나 풍선을 타고 멀리 內陸地方으로 出嫁時 해녀들은 그가 탄 배의 노를 저으면서 노젓는 울동에 맞춰 해녀노래를 부르거나, 가끔 연안에서 작업하러 헤엄쳐 나가면서 부르기도 한다.

제주도에는 세계적인 존재인 해녀가 많은데, 이들은 제주도를 뱅들리라며 취락이 이루어진 海岸部落마다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섬연안에서 조업할 뿐더러 내륙지방으로도 나가는데, 예전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해녀작업차 진출했다. 풍선을 타고 내륙으로 나갈 때 바람이 맞지 않을 경우면 승선한 해녀들은 노를 저어야만 했고 노를 저으면서 해녀노래를 구성지게

8) 濟州道, 「濟州의 文化財」(濟州道), 1982, p.76.

불렀다. 또한 바다에서 하루의 수확물을 <망사리>에 담고 돌아온 해녀들은 <불턱>에서 지퍼 놓은 불에 언 몸을 녹이고 옷을 말려 입으면서 자기 <태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19세기말, 慶尙南道 등지로 출가하기 시작한 그들은 내륙지방의 각 연안은 물론이요 그 행동반경이 동아시아 4개국에 뻗었는데 해방 후에는 경남 구룡포, 감포, 양포 등지로 쏠려 왔다. 해녀노래의 가사내용을 보면 작업내용 및 출가하는 뱃길과 출가생활을 노래하는 한편 해녀들의 회원과 생활감정을 거는 पै기가 어련히 넘치고 있다. 제주도 해녀들이라 해서 특수한 철통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일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면서 해녀작업을 하는 이들은 바다를 밭의 연상으로 보고 해녀작업에 결사적이다.

주요배역은 <허벅>진 아낙네 3명, 동네여인 2명, 해녀 12명의 다수이다.<sup>9)</sup>

## (2) 비바리춤

<비바리> 역시 文獻에나 민간생활의 생활기층에서 전승되는 民俗舞踊은 아니고 제주도의 일상생활 속에서 몇가지 무용적인 용도들을 골라 내어 民俗舞踊化한 작품이다.

다시 말하여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인 <비바리>들이 해녀작업을 끝내거나 물질러 우물가에 갔을 때 <태악>이나 <물허벅>을 두드리며 흥을 돋구는 장면을 구상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三多의 고장 제주도에는 예로부터 세 가지 生活樂器가 있었다. <물허벅>·<태악>·<전복접질>이 그것인데, 이것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生活用具이기도 하다.

집을 지을 때 흙질을 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물은 대부분 동네 비바리들이 줄을 지어 물허벅을 등짐으로 나르며 마련이다. 사람이 많이 모여 흥이 나면 절로 노래와 춤이 있게 마련이고, 흥을 돋구어 주는 장단은 비바리들의 등에 진 빈 허벅을 두드리는 일이다.

이 허벅장단은 장구나 북이 특별히 마련되지 않은 농촌에서는 손쉽고 흥겨운 악기로 곧잘 慶事日의 흥을 돋구게 했다. 또 해녀들의 작업을 끝내고 하루의 수확을 기리며 노을이 깔린 해변에 둘러서서 <태악>을 두드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광경은 제주도만이 간직한 특유한 정경이다.

흥이 고조되면 자신도 모르게 전복접질이 등장하게 된다. 비바리들이란 대개 머리를 따아 올리지 아니한 즉, 채 시집 안간 처녀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바다에서 바다로 시집가서 살다가 바다에서 죽어야 하는 숙명을 감수하는 이들 비바리들의 사연은 때로는 파도와 같이 못견딘 몸짓으로, 때로는 한숨 섞인 휘파람으로, 다시 애절한 민요로, 구성진 춤으로 흥겹게 엮어져 나간다.

9) 玄春植, 「濟州道の 民俗藝術」, 1980, pp.40-41.  
濟州道, 「耽羅의 民俗놀이」(濟州道), 1973.

이 무용에는 〈이야홍 타령〉·〈오돌또기〉·〈난봉가〉·〈서우갯소리〉 등이 연속적으로 불리워지며, 배역은 허벅진 아낙네 8명, 애기구덕 진 아낙네 7명, 해녀 12명 정도면 족할 것으로 본다.<sup>10)</sup>

### (3) 차사영맞이

우리의 전통적인 死生觀은 사람의 죽음을 저승의 차사가 와서 그 魂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영혼이 가는 저승의 길은 멀고도 험하며, 거기엔 열두 문이 있어 이 門을 통과해야 저승에 이른다. 그 문은 매우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문마다 지키는 파수들을 잘 달래어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의 멀고도 험한 길을 치워댄다 영혼을 맞아들이고 그 심정을 들은 후 열두 門을 열어 저승의 좋은 곳으로 보내는 행사를 해 온 것이다.

이 행사는 예측적으로 살아 있을 때 미리 치워질 수도 있다.

〈차사영맞이〉는 이처럼 저승의 길을 치워댄다 영혼을 맞아들이고 영혼을 데리고 갈 차사(差使)와 영혼을 위로한 후 저승의 좋은 곳으로 보내는 행사이다. 그 내용이 저승길을 치워댄다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일명 〈질치기〉라고도 한다. 이 행사는 시종 노래와 춤으로 진행된다.

〈큰대〉를 세우고 쟈상을 배설하면 玉皇上帝와 十王 등 모든 神들을 청해다 쟈상에 앉히는 〈초감계〉를 하며, 〈베포도업〉을 치고, 군문(神界의 門)을 열고 난 후 諸神을 청해다 앉히는 과정을 춤으로 해 나간다. 그러면 神들은 〈큰대〉를 통하여 下降한다고 한다.

다음은 〈질치기〉로 넘어간다. 저승의 멀고 험한 길을 치워댄다는 과정이다. 대(竹)에 紙錢과 〈기메〉를 달아매고 二列로 나란히 세워 저승의 길과 열두 문을 상징적으로 세워 놓고, 그 길을 청소해나가는 것이다.

차사와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길을 돌아보니 길에는 雜草가 무성하고 험한 길이다. 심방은 이 길의 잡초목을 베어 넘기고 다시 그것을 치워 정리하고 그 나무의 뿌리들을 따비로 파고, 구르는 돌덩이를 치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히 고르고 그래서 광목으로 〈다리〉(橋)라 하여 깔아 놓는다.

이처럼 祭場의 준비가 모두 끝나면 差使와 영혼을 맞이하여 심방의 입을 빌어 영혼의 말을 듣고, 영혼을 위로하고, 차사에게 저승의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도록 빌면서 열두 문을 차례로 열어 영혼을 저승으로 보낸다. 마지막에 동네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즐겁게 노래와 춤을 춘다.

10) 玄春植, 前掲書, pp.141-142.  
濟州道, 「耽羅의 民俗놀이」(濟州道), 1975.



주요 배역은 수심방 4인, 소무 2인, 樂士 7인, 가족 4인, 좌돛기, 우돛기, 잡기 12인 등이다.<sup>11)</sup>

#### Ⅳ. 濟州道 傳承演戲의 觀光資源化 方案

제주도 民俗文化의 특징으로는 한국본토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 따라 自然 文物交流도 빈번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의 역사 속에서 선인들의 독특한 遺俗이 오랜 세월을 걸치는 동안 형성됨으로써 제주도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민속박물관처럼 그 민속문화가 다양하다. 특히 본도의 민속문화는 外來性보다 在來性이 강하며 원색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속문화의 특성은 無形文化財로서의 가치가 높은 설화·민요·巫俗·風俗 등 각종 민속놀이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민속놀이와 춤 등 傳承演戲를 어떻게 觀光資源化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方法을 모색해 본 후에, 이에 대한 홍보방안까지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1. 濟州 傳承演戲의 商品化方案에 따른 具體的인 方法 모색

현재까지의 제주도 관광개발은 제주도가 특이한 民俗資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觀光資源化로 만족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 관광개발의 측면으로 봐서 상당히 애석한 일이며, 그러한 특유한 민속 관광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국내외 관광객들 또한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의 자연경관형에다 한라산의 특수식물군을 활용하고 中文觀光圖地로 되어 있는 기존의 觀光商品에다 民俗資源을 상품화함으로써 제주도 전체가 완전한 觀光資源이 될 수 있게 조성해야 할 것이다. 觀光行態의 發展趨勢에 따라 현재의 자연경관형의 관광 자원만을 관광하고 가는 단순관광보다 民俗資源을 통한 관광으로, 자연경관형과 전통문화자원과의 복합형의 觀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方案을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하자.

##### (1) 民俗公演場

無形文化財인 칠머리당굿·영감놀이·영등굿놀이 등은 제주도민의 오랜 生活 속에서 이루어

11) 玄春植, 前掲書, pp.42-43.  
濟州道, 「耽羅의 民俗」(濟州道), 1976.

어진 초자연적인 존재에의 순응양식이다.

이것들은 신앙적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예술적 측면을 갖는다. 곧 신앙적 측면에서는 각박한 풍토와 거칠은 바다와 싸워 온 제주도의 생활에서 저절로 형성된 속신이 담겨 있고, 예술적 측면에서는 그 초자연적 존재에의 순응 기예로서 음악, 문학, 무용, 연극 등이 종합예술체로서 융해되어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의 신앙적 본원과 예술적인 원래의 모습을 살피는 데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속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제주도의 참모습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그 중 민속공연장의 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민속공연장이란 민속놀이를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관광객으로 하여금 실제로 민속공연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요, 傳承演戲 등 기능보유자들이 실제로 공연할 수 있는 무대인 것이다.

현재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소속으로 부설 상설민속공연장을 마련하거나 현재 문예진흥정책에 따라 건축 중인 文藝會館 등에 상설 공연장을 마련하는 방안과 호텔이나 요즈음 개설 중인 관광야시장 등의 광장에서도 공연케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때나마 로얄호텔의 극장식 공연장에서 〈해녀놀이〉를 공연했던 바 많은 국내의 觀光客들의 호감을 얻은 바도 있다.

公演場은 실내공연장과 야외공연장이 동시에 요구되어지기 마련인데, 야외공연장의 경우 공설운동장이나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의 광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고, 室內公演場은 호텔 내의 극장식 공연장이나 그밖의 체육관·시민회관 등의 내부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다. 장차 일본의 민속극장인 가부끼좌(歌舞伎座) 같은 전문 공연장을 건축하여 유료입장으로 공연물을 상연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民俗藝術公演이 하나의 觀光資源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경주보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호반장식당과 서울 롯데호텔 내의 포석정식당의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식당들에는 간이상설공연장과 관람석 1백여 석 가량이나 설치되어 있어 이 식당을 이용하는 국내의 관광객들에 부채춤을 비롯한 韓國 고유의 傳統舞蹈과 함께 식사를 즐기도록 장치되어 있어 관광적 매력을 한층 돋우고 있어 관광객들의 호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와같은 예는 충분히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 (2) 民俗藝術者의 養成과 公演

공연자는 인위적인 상품이라는 선입관을 배제시킴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심어주는 의미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연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民俗藝術者의 양성은 하와이 부링엄 영 대학에서 民俗藝術者들을 양성하듯이 濟州市立 또는 道立 民俗藝術團 등이 상설로 민속예능자를 정기적으로 양성하여 거기서 배출된 사람은 전문직으로 민속

공연을 하게 하고 도조례로 그 예능전문직들에게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급토록 하여 民俗藝人能者가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생계 곤란없이 民俗公演에서 보람을 얻고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폰서에 의한 민속공연의 관광화이다. 곧 아직 정책적인 측면에서 민속 예능 보유자에 대한 지원이나 민속 예능자의 양성 대책이 별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민속행사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속공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스폰서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민속예술 공연을 지원하게 되면 제주도의 독특한 전통문화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보존된 독특한 전통문화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스폰서를 내는 해당기업체 측에도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 (3) 民俗놀이의 대본화작업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출연한 놀이 중에 <영감놀이>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놀이이고, <영등굿놀이>는 국무총리상을 수상 그리고 <세경놀이>는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한 놀이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밖의 놀이 등도 觀光資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놀이들의 대본화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民俗學者 또는 民俗演戲者들에 의해 대본화작업을 하게 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준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 예로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의 당굿의 한 민속놀이인 <남당굿놀이>를 완전히 대본화작업을 하였던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민속놀이의 대본화 작업을 통해서 틀에 의해 하나의 극형태를 만들어 계속 공연케 하고 곳에 나오는 演戲형태로 觀光客들에게 재창조하여 흥미있게 유도하면 충분히 觀光資源化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처럼 민속놀이가 대본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연희 담당자의 양성도 힘이 들 것이고, 출연공연이 무계획성으로 흘러 버릴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본화를 위해서 유념할 것은 濟州 民俗놀이의 特性을 충분히 살리고 지나친 상품 위주의 대본화로 제주도 적인 것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속놀이를 대본화하기 위해서 우선 그 놀이(특히 잊혀져 버린 傳統演戲)를 고증해야 함은 물론 그것을 觀光資源化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흥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 濟州大學에 있는 民俗과 觀光分野의 研究陣과 文化關係機關과의 공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 地域的인 特性化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는 <입춘굿놀이> · <세경놀이> · <영감놀이> · <칠머리당굿> 등을 지역적인 特性化를 고려 觀光資源化하고 觀光商品으로 효율성을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입춘굿놀이>는 관덕정을 주무대로 행해졌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濟州市지역에서 공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봄철 관광시즌을 노려서 이 <입춘굿놀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마다 유채꽃잔치를 하는 시기를 타서 행해져도 좋을 것이다.

② <칠머리당굿>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칠머리당에서 음력 2월에 영등神계 올리는 巫俗祭다. 봄철 관광시즌을 노려서 탐동 海岸觀光地帶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영감놀이>는 뚜렷한 觀光資源이 없는 南濟州郡 南元邑 지역에서 행해지게 함으로써 관광자원의 균형적인 개발이라는 측면은 물론 城山邑 지역과 西歸浦 지역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관광코오스와 가교의 역할을 하리라 본다.

④ <세경놀이>는 그 놀이의 성격이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 온 제주 사람들의 農耕生活을 劇적으로 보여주는 놀이인 만큼 이미 지정되어 있는 城邑民俗마을에서 상설공연케 하는 것이 중산간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민속마을의 특성에 견주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⑤ 앞에서 거론된 바 있는 <영등굿놀이>중 <배 배놀이>를 한림읍 협재리 쪽에서 상설 공연케 함으로써, 협재굴·협재 관광농원·협재 해수욕장 등과 함께 관광자원화하여 협재리 쪽을 관광단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⑥ 앞에서 거론된 바 있는 <영등굿놀이>중 말뛰기 놀이와 제주도 민속놀이 목록 ㉑ 물 탈락(말타기), ㉒ 말 흉내 놀이 등의 그 고증이 어려운 실정이나 제주의 조랑말 위에서 각종 재주를 부리는 馬上才 민속무에 같은 것을 개발하여 그 요원을 양성하고 대정을 지역에서 공연케 구상하는 것도 관광자원화의 개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 이를 관광자원화한다면 관광코오스를 연장시켜 주는 잇점도 있다고 하겠다.

## 2. 각종 관광홍보 방안 모색

### (1) 민속카렌다의 제작과 관광홍보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外來 觀光客을 유인하는 한 방법으로 관광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관광홍보의 하나로 갖가지의 것들을 구상해 볼 수 있다.

해외 및 국내 각 관광여행사를 통한 관광홍보도 할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제주도적 인 것을 보다 매력있게 관광홍보하여 그 효율을 올리기 위해 제주도 민속놀이와 민속춤 등을 소재로 한 이른바 민속카렌다를 품위있게 제작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제주도를 관광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도록 홍보매체로 심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제주도 민속놀이와 춤 등을 미술가들에게 하나의 民俗畵를 의탁하거나 공모하여 우수한 것을 가려내어 한장짜리 카렌다와 사계절짜리 카렌다, 그리고 12개월 월별로 특색있는 민속카렌다를 제작하여 한장짜리와 사계절짜리 카렌다는 국내외 각 관광여행사 및

각종 호텔, 유흥장, 음식점 등을 통하여 관광홍보를 의무화하여 활용한다면 그 효율과 기대 효과가 보다 지대해질 것으로 믿는다. 한편 12개월 월별 민속카렌다는 상품으로 카렌다 수요시에 觀光土產品으로도 판매토록 유도하여 관광홍보의 일익을 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2) 슬라이드 필름 제작

제주도 민속문화의 갖가지 것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품위있게 제작하여 그것을 통하여 제주도 관광을 홍보하고, 그것을 관광명소의 출입구의 가게나 관광토산품 판매점 등에서 상품으로 판매토록 유도하는 方案이다.

관광객들은 관광여행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을 여행이 끝난 후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회상해 보고, 전혀 제주도 관광에 전문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슬라이드를 통해 관광적 매력을 강렬하게 호감을 갖게 하는 부수적인 전달 효과를 거둔다.

하와이의 포르내시안들의 민속 생활 양식 등이 다각적으로 슬라이드로 제작되어 그 필름이 관광상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외래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참작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일본의 나라·교오또·도오쿄오 등지의 명승지도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그 필름이 판매되고 있고, 상당수의 외래 관광객들은 그 곳에서 그 필름을 구입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제주도 民俗資源 가운데 각종 굿놀이 등을 차례로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이것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한 벌이는 되지 않는다고는 하겠으나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그 필름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관광객 유치의 한 전략으로도 구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중전달 가운데 가장 그 증폭이 확대되고 있는 음성다중 TV를 통한 비디오를 활용하여 관광업체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재생하여 관광자원을 소개, 광객으로 하여금 그 매력에 젖게 하고, 또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이것을 상품화한다는 것도 외래관광객 유치의 간접적 효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 연하장·우표·엽서 제작

濟州民俗의 갖가지들 소재로 하여 연하장, 그리고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출연하여 대통령상에 입상한 민속놀이 등을 체신부에 건의하여 민속우표를 제작, 특별히 ‘文化의 달’ 중 에라도 판매되도록 하여 민속자원을 소개하고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림엽서도 民俗資源을 소재로 제작하여 판매하면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 V. 婚姻址의 觀光資源化

婚姻址는 地方文化財記念物 第17號로 지정된 유적으로, 이것을 觀光資源化하면 충분히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매력을 끌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혼인지는 高·梁·夫(또는 梁·高·夫) 3神人이 碧浪國의 세 공주와 혼인한 곳이다. 성산읍 운평리에서 남쪽으로 약 5백 미터 떨어진 곳에 '환죽'이라는 못이 있는데, 여기서 三姓始祖와 세 처녀가 더불어 이 못에서 목욕을 하고 혼인식을 올렸다. 그래서 이 못을 '婚姻池'라고 한다. 또 혼인지 바로 곁에 작은 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첫날밤을 지냈다는 것이다.

濟州島 傳說에 의하면, 이 혼인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속에서 살아 가며 꿈을 결실로 하여 삶의 의욕을 확인하게 하여준다.

혼인지가 제주도 씨족번성의 계기가 된다는 神話의 못(池)임에는 틀림없고, 그것은 바로 남녀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던 곳이라 해도 좋다. 따라서 혼인지를 단순히 제주도 전설에 얽힌 곳, 傳說地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여기에 관광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제주도를 찾는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보다 알찬 내용을 전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내 고장에만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것, 내 고장만이 할 수 있고 남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관광지의 독자적 창출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위의 신기루와도 같은 도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위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인공적 대도박도시를, 그것도 엄청난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독자성을 창출한 개발의 예이고 로마와 아테네는 엄청난 歷史的 遺産이라는 물려받은 독자성을 팔아먹고 있다.

이들에 비하면 이태리의 베니스라든가 日本의 京都와 같은 도시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독자성 위에 현대의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도 그 독자성을 강화,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혼연일체가 되어 버리고 歷史의 어떤 단면이나 단편을 보는 것이 아닌 역사의 전체적 흐름을 느끼게 한다. 구라파의 여러 도시들도 그렇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물이란 박물관 속에 집어 넣어두고 때때로 꺼내 보거나 찾아가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나날의 생활 속에 제자리를 갖고, 때로 쓰이고 때로 변형되기도 하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뿌연게 먼지가 없는 골동품이 아니고 잘 손질되고 번들번들하게 광이 나는 일상적 생활 속의 사물인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바로 城山地域의 관광 개발의 독자성은 혼인지에서 창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혼인지보다 三姓穴을 관광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혼인지도 찾도록 하기 위하여 觀光案内員들로 하여금 신혼부부는 물론 기혼부부의 부부동반 여행에서 혼인지 관

12) 康炳基, 「都市에 있어서의 開發과 保全의 相補性」, 『제주도의 보존과 개발』, 1985, p.37.

광의 필요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작성,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곧 三姓穴 관광에서 전설을 설명할 때 이 혼인지의 내용을 삽입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삼성혈과 혼인지의 중요성은 앞뒤가 뒤바뀐 느낌이다. 인간의 통과례를 보면 出生儀禮·成年式·結婚式·喪禮式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혼인통과인데, 이것이 출생통과에 비해 뒷전에 밀려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혼인지의 觀光資源化가 필요한 것이다.

日本の 名古屋市에서 50里쯤 떨어진 犬山市에는 男子性器를 위한 「헤노고」神社라는 神社가 있고 그에 對하여 여러가지 行事를 한다고 한다. 오랜 옛날부터 이런 民俗놀이가 傳하여 와서 많은 外來觀光客을 모으는데 3월 15일의 大祭에는 더욱 많은 觀光客이 몰려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觀光客의 뿌리는 돈으로 그 市가 繁昌하여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본 이웃마을에서는 그 마을에 傳統性도 없는데 女子의 陰器를 위하는 神社를 새로이 짓고 널리 宣傳하고 大祭날에는 그럴듯한 民俗놀이를 하였다. 그랬더니 各地에서 많은 觀光客이 몰려와서 求景하고 많은 돈을 뿌리게 되어 이 마을도 繁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3)</sup> 이렇게 전통성이 없는 신사를 통한 민속행사가 나고야를 번창케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혼인지도 주변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충분히 매력있는 관광지로서의 한몫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혼인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면에서 제주도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古典美를 풍길 수 있어야 한다. 고풍스런 분위기와 정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것보다는 약간 투박스런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진입로의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처럼 평탄하게 해놓는 것보다 조금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미적 실용적 감각을 살려 알맞게 만들어 놓는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노퍽을 10미터 정도로 하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직선보다는 곡선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며, 제주도 가공적인 현무암을 이용한 보도 블럭으로 해 놓는 것도 과히 눈에 거슬리는 시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 당국에서 해 놓은 현무암 담장과도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조경면에 있어서는 현재 제주도 在來種으로 하여 일부 조경이 완료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1~2년생 수목보다도 그 토양에 알맞는 15~20년생의 향토수목을 식수하여 잘 관리함으로써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 풍치가 태고적부터 이런 울창한 수목이 자랐었다는 감흥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여기에 적합한 수목으로는 조경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가령 꽃이 피는 것보다는 해송·해박나무·구름비나무·구실깃밤나무 등 본도 향토수종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13) 임석재, 「濟州島를 觀光地로 하려면」, 『제주도』, 10호, 1965, p.113.

함으로써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세 神人이 혼인을 하고 첫밤을 지냈다는 굴이다. 현재는 주위의 산만한 환경 때문에 굴이 더 작게 느껴지는데, 들레 수목을 심음으로써 좀더 뚜렷해지고 분위기도 신비롭게 매력적으로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혼인지의 풍경을 포근하게 함으로써 관광객 중 신혼부부는 관광여행을 통한 즐거움과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앞날에 대한 설계를 가다듬어 볼 수 있도록 하고, 기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서약을 갱신하는 즐거운 분위기에 젖게 하고, 회갑부부들의 경우 사랑을 통해 살아온 나날을 회상하게 하고 보다 나은 여생을 즐길 수 있게 하여, 혼인지를 관광하는 그들 스스로 관광 후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혼인지 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도당국에서는 5백여 평의 토지를 매입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5천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혼인지를 공원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부근에 혼인지 관리시설과 가칭 ‘혼인지 옛집’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관리시설을 하여 혼인지 관광을 유료화하게 하고, 가칭 ‘혼인지 옛집’을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건물로 80여 평 정도를 건축하여 여기에 婚具를 전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紗帽冠帶 등을 빌려 입고 사진촬영도 할 수 있게 관광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어느 관광지에 가도 관광상점에서 관광기념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제주의 관광기념품은 한마디로 제주도적인 특성이 없는 것이 바로 특성이라 할 만큼 너무 무가치한 것들이 많다. 혼인지의 관광기념품도 전문가들에게 현상하여 고안케 하되, 日出峰과 婚姻址를 상징함과 동시에 美的 藝術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지가 그려진 엽서를 고안하고 혼인지 관광 스템프를 찍어주는 것도 관광객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예로 일본 홋카이도의 아짱호(阿寒湖)에 가면 그 주변의 관광민예품점에서 아이누족의 신앙의 상징인 곰을 조각한 마스크트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관광 스템프도 찍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마스크트를 구입함으로써 그곳을 관광한 보람으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것은 곰조각품이 그만큼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렸기 때문이다. 혼인지의 관광자원 활용도 이런 점에 각별히 유념할 일이다. 이런 갖가지 개발을 통한 혼인지의 관광자원화 개발은 이 城山地域 개발의 독자성을 창출하는 한편, 유적의 보존적 차원에서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혼인지 유적의 관광자원화에서 유의할 점은 자원의 이용 및 재생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國民觀光의 측면에서 관광객은 관광자원의 소비자가 아니라 자원의 이용자이며 건전한 이용이 보다 나은 자원의 재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관광교육의 관점 도입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관광지 주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관광객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태도



로부터 단순한 소비자로 취급하는 태도에의 변화는 관광이란 것의 전체 모습을 바꾸어 놓게 된다는 관광객과 주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혼인지 유적의 觀光資源化를 통한 관광이란 현상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개발의 독자성을 창출하고 보존적 차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혼인지 유적의 관광자원화에는 온평리로 하여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그 지역 주민의 관광사업체로서 관광교육·관광홍보·관광사업 등을 경영하도록 하면 주민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며,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예상될 것이다.

그 주위 시설, 곧 휴게소·매점 등을 古典美가 넘치게 설치, 혼인지의 광장에는 계절따라 민속놀이 등을 공연하는 일도 지역 주민으로 하여 운영케 한다.

국민의 소득과 복지 및 지역개발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과 그 핵심을 이루는 정책에 주민참여의 개념과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민참여란 ‘그 지역 전체의 정치적·경제적 과정에 주민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며, 관광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단계는 세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계획수립 기초와 과정 및 정책확정에 이르는 준비기간, 확정된 정책이 시행 및 대단원을 짓는 정책수행기간, 그리고 시행된 정책의 사무점검 및 재조정애 이르는 평가기간이 그것들이다. 그 전과정에 주민대표들이 주민의 필요욕구를 위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 VI. 마 무 리

지금까지 제주도의 고유 生活民俗 중 觀光資源化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곧 여러 傳承演戲 및 遺蹟地 중에서도 婚姻址에 대하여 그 觀光資源化 方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傳承演戲에 대해서는 굿놀이를 중심으로 한 민속놀이(굿놀이)와 이미 무대화를 거쳤던 바 있는 민속무용을 대상으로, 그리고 유적지는 현재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婚姻址를 중심으로 각기 그 觀光資源化 方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 모든 方案 提示는 하나의 試案에 지나지 않는다. 부단한 시행과정을 통하여 수시로 보완해나가야 하리라 믿는다.

[ 첨부 1 ] 제주도 민속놀이 목록

종 목	계 절	인 원	대 상	성 격
1. 가매타기(가마타기)	사철(특히, 동)	대 인	어린이	체육경기성
2. 계잡기	춘(4월 초파일 5월 단오)	개 인	남녀노소	지역적 관습
3. 전우 직녀의 상봉	하(7월 7일)	"	"	"
4. 고냉이 방쉬	사계절	"	어 른	"
5. 고사리 반찬	춘(3.15-4.15)	"	부녀자, 처녀	"
6. 끈각시 만들기	춘	대 인	어린이	오락, 정서감정상
7. 굴청의 관동(서당의 관동)	춘(4.8)	개인,집단	청소년(15세 미만)	신앙성, 경쟁
8. 기러기 놀이	추	집 단	어린이	오 락
9. 끈조(교누)	하	대 인	청장년, 소년	사행감정상
10. 꽃반	동(정월)	집 단	어른, 노인	신앙성
11. 꿩사냥(꿩사냥)	추	집 단	어른(남자)	지역적 관습
12. 꿩뿔새끼 봉그기	춘(3-4,5-6)	대인,집단	남녀노소	체육경기성
13. 꿩점	사계절	개 인	어 른	신앙성
14. 날씨보기	동(12월 31일)	개 인	어 른	신앙성
15. 눈(目)싸움	사계절	집 단	어린이	오락, 경쟁
16. 눈(雪)싸움	동	"	"	"
17. 달구짓기	동	"	청장년	신앙성
18. 당제	동(1월 7일)	"	어른(노인)	"
19. 돌보기	사계절	개 인	어 른	지역적 관습
20. 돌점(月占)	동(1월 14일-15일)	"	"	신앙성
21. 뽕 잡아먹기	하(6월 20일)	집 단	남녀노소	지역적 관습
22. 도래치기(팽이치기)	동	개인,대인	소 년	경 쟁
23. 도깨비방쉬(도깨비방사)	동(1월 15일)	개 인	남녀노소	지역적 관습
24. 돈치기	사계절(정초)	개 인	청소년	사행감정상
25. 돈쇠(마소치기)	춘-추(4월-10월)	집 단	청장년	관 습
26. 두릅놀이(두루미놀이)	동	집 단	어린이	오 락
27. 뽕돌	동	개 인	청 년	경 쟁

종 목	계 절	인 원	대 상	성 격
28. 말미	동	개 인	남녀노소	신앙성
29. 툇뚱춧기	하	"	"	관 습
30. 툇싸움 고장놀이(꽃놀이)	춘	대 인	소년소녀	오락, 경쟁
31. 툇탈락 ( 말타기 )	사계절	집 단	소 년	경 쟁
32. 말 흥내 놀이	"	"	소년소녀	오 락
33. 맵쇠 ( 마초치기 )	"	대 인	어른 ( 남자 )	관 습
34. 메점 ( 메占 )	동 ( 1 월 15 일 )	개 인	어른 ( 노인 )	신앙성
35. 모래뜸질	하	"	"	"
36. 모듬떡 ( 떡占 )	동 ( 1 월 15 일 )	"	어른(부녀자)	"
37. 모밀갈기 ( 메밀파종 )	하 ( 6 월 )	집 단	남녀노소	관 습
38. 물막개 방쉬	사계절	개 인	어린이	관 습
39. 발막음 ( 발병아바수기 )	하	집 단	어 른	오락, 관습
40. 발볼림 ( 발밟기 )	춘	"	"	"
41. 배느리우기 ( 진수식 )	사계절	"	어른(남자,노인)	신앙성
42. 백중날의 금욕	하 ( 7 월 14 일 )	개 인	남녀노소	"
43. 백중놀이비	"	"	"	"
44. 백중물천	"	"	"	"
45. 백중와살	"	집 단	어 른	"
46. 백중제	"	개인,집단	남녀노소	"
47. 보리뿌리점 ( 占 )	춘	개 인	어 른	"
48. 뷚음점 ( 占 )	추	"	어른 ( 남자 )	"
49. 별포제	사계절	집 단	어 른	"
50. 부림쇠 ( 소치기 )	춘, 하	개 인		관 습
51. 불찍아심	사계절	"	어 른	"
52. 빅돌림 ( 경마놀이 )	추·동 ( 10 월 15 일 - 1 월 15 일 )	집 단	청장년	경 쟁
53. 빈허벽질안카르기	사계절	개 인	여 자	신앙성, 경쟁
54. 빠장치기 ( 딱지치기 )	사계절	대 인	청소년	사행감정상
55. 뽕을 땅 ( 땅재먹기 )	춘 - 추	"	어린이	오 락
56. 뽕이치기	춘	"	"	오락, 경쟁
57. 산쇠 ( 마소 ) 치기	사계절	개 인	남녀노소	관 습
58. 삼성혈제	동 ( 12 월 10 일 )	집 단	"	신앙성

종 목	계 절	인 원	대 상	성 격
59. 삿도놀이	사계절	집 단	어른(남자)	오 락
60. 성읍리의 백중제	하 ( 7월 14일 )	"	어른(노인)	신앙성
61. 소지점	동	개 인	어 른	"
62. 솔쌈	사계절	"	어른(여자)	"
63. 숨비질놀이 (해녀놀이)	하	대 인	소년, 소녀	경 쟁
64. 시만국 대제	추	집 단	어 른	신앙성
65. 시제	춘, 추(2, 3, 10월)	"	"	"
66. 식개밥 어울리기	사계절	대 인	"	관 습
67. 씨앗붙임 ( 닭싸움 )	"	개 인	청 년	오 락
68. 수놓음	"	집 단	남녀노소	관 습
69. 시절보기	하	개 인	어 른	신앙성
70. 심방의 생진일	추 ( 9월 28일 )	집 단	어른(심방)	"
71. 아들낳기 빌기	동·춘( 1월 3일 - 3월 13일)	개 인	어른(여자)	사행감정상
72. 액막이날	동 ( 1월 15일 )	"	어른(노인)	신앙성
73. 연올리기	동 (설날, 정월)	"	남녀노소	신앙성, 사행감정상
74. 열녀제 ( 烈女祭 )	춘 ( 3월 15일 )	집 단	"	신앙성
75. 영등제 ( 燃燈祭 )	동 ( 1월말-2월초)	"	"	"
76. 오방산장과 동티찾기	사계절	개 인	어 른	"
77. 용왕제	"	집 단	"	"
78. 입장예 ( 入杖禮 )	"	개 인	어른(남자)	관 습
79. 입춘굿	춘	집 단	남녀노소	신앙성
80. 입춘날의 춘방	"	개 인	어 른	"
81. 입춘점	"	"	"	"
82. 잉어놀이	동	집 단	소 년	경 쟁
83. 정소암화전놀이	춘	"	어른, 노인	정서감정상
84. 조리희 ( 照里戲 )	추석, 정초	"	남녀노소	경 쟁
85. 죽마타기	추, 동	"	소 년	"
86. 줄드래기 ( 꼬리따기 )	추 ( 8월 15일 )	"	소년, 소녀	"
87. 줄따기	춘, 추	"	청장년	오 락
88. 지게발걸기	동	대인, 집단	소 년	경 쟁

종 목	계 절	인 원	대 상	성 격
89. 쪽기차기	주로 동	대 인	청소년	경쟁
90. 필레 (소싸움)	춘 - 하	"	어른 (남자)	오락
91. 청애조심 (외다리싸움)	동	"	소년	경쟁
92. 초석짜기	하	집 단	남녀노소	"
93. 초파일 (7매기잡기)	춘 ( 4 월 8 일 )	개 인	"	관습
94. 솔비기 (팔베기)	하 ( 8 월 중순 )	집 단	"	경쟁
95. 편싸움 (편싸움)	추	"	청소년	"
96. 폭충싸움	하 - 추	"	"	"
97. 풀놀이	춘	대 인	소년, 소녀	오락, 경쟁
98. 행경놀이	사계절	"	"	오락
99. 화전놀이와 오돌또기	춘	집 단	어른·노인 (부녀자)	정서감정상
100. 활쏘기	하·추 ( 8월 16 일 - 10월 15일 )	개 인	청 년	경쟁

[첨부 2]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참가했던  
역대작품 및 수상내용

연도	회수	개최장소	출연분야	출연작품	수상내용	비고
'64년	5회	서울	민속무용	해녀놀이	장려상	
'65년	6회	서울	민속놀이	입춘굿놀이	장려상	
'66년	7회	서울	민속놀이	세경놀이	문공부장관상	
'67년	8회	부산	민속놀이	영감놀이	대통령상	
'68년	9회	대전	민속놀이	영등굿놀이	국무총리상	
'69년	10회	대구	민속무용	해녀놀이	문공부장관상	
'70년	11회	광주	민속놀이	조리회	장려상	
'71년	12회	전주	민속무용	해녀놀이	장려상	
'72년	13회	대전	민속놀이	연등굿놀이	장려상	
'73년	14회	청주	민속놀이 민속무용	입춘굿놀이 해녀놀이	장려상	
'74년	15회	부산	민속놀이	달구시놀이 달집놀이	공로상	
'75년	16회	서울	민속무용	비바리	장려상	
'76년	17회	진주	민속무용	멀치후리는노래 차사영맞이	국무총리상	
'77년	18회	수원	민요	조발다지는노래	장려상	
'78년	19회	춘천	민속놀이	김매는노래 경소암화전놀이	공로상	
'79년	20회	대구	민요	블미노래	문공부장관상	
'80년	21회	제주	민요	방앗돌굴리는노래	대통령상	
'81년	22회	인천	민요	집출농는노래	문공부장관상	
'82년	23회	광주	민속놀이	산신놀이	예총회장상	
'83년	24회	안동	민속놀이	테우만드는놀이	예총회장상	
'84년	25회	충주	민속놀이	연신맞이굿놀이	문예진흥원장상	
'85년	26회	강릉	민속놀이	불싸움놀이	장려상	

## 濟州돌의 活用方案

〈目 次〉

- I. 濟州의 돌과 그 文化
  - 1. 돌과 人間生活
  - 2. 돌과 俗信
  - 3. 돌과 濟州文化
- II. 濟州돌의 特性과 利用實態
  - 1. 濟州島의 生成과 岩石의 構造
  - 2. 濟州島 景觀의 特色과 돌
- III. 濟州돌의 活用方案
  - 1. 美的 鑑賞用
  - 2. 實用的 活用
  - 3. 돌의 特殊利用
- IV. 結 語

### I. 濟州의 돌과 그 文化

#### 1. 돌과 人間生活

人間이 처음에 이용한 道具는 돌이었다고 할 수 있다. 氷河期가 끝날 무렵으로 推定되는 時期에 돌화살이 發見된 것을 보면, 이 때에 人間은 벌써 돌을 사용하여 다른 동물과 상대했던 것이다. 돌을 다듬어 裝飾하고, 동굴의 壁위에 짐승의 모습을 彫刻하거나 그림을 그

렸던 흔적이 잔존하고 있다. 이것은 약 2萬年前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프랑스의 한 동굴 속에서 발견되었다.

돌과 人間生活의 關係는 現代보다는 原始社會에서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人類의 生活과 文化는 돌의 이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부싯돌, 石英, 玄武岩 등의 단단한 돌은 剝離性을 지니고 있어서 이것을 깨뜨리면 예리한 날(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北京原人도 알고 있었다. 구석기시대의 人間들은 오로지 이 방법으로 수렵용은 물론이고 動物調理用의 石器, 즉 打製石器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에 와서는 타제석기 이외에 돌을 매끈하게 갈고 닦아서 수렵용, 전투용, 農耕用, 식물조리용의 磨製石器를 만들어 이용하였다.

石器의 製作과 使用은 金屬器의 發明과 보급에 의하여 차차 빛을 잃게 되었지만, 현재에도 石器를 日常의 道具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프리카 등지에 존재하고 있다. 近代까지도 부싯돌은 發火用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8·15解放을 전후하여 農村 등에서 부싯돌로 담뱃불을 붙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돌을 장신구에 이용하는 풍습도 일찍부터 행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보석이나 보석에 準할 수 있는 美石이 쓰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나라 三國時代에 있어서 金冠 등에 사용한 曲玉, 유럽의 경우 카메오(cameo)나 王冠 등에 쓰인 보석 등은 그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의 先祖들은 新羅 때부터 돌 공예에 능하여 옥이나 대리석을 잘라 장식품으로 썼던 것이다.

硬質의 돌에 圖文이나 文字를 새겨 印章을 만들고, 그것을 서류 등에 찍음으로써 個人이나 團體 등의 權利를 나타내는 方法은 일찍부터 고안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印章은 所有物을 표시하는 外에 呪術的인 面도 있어 印章 그 自體를 護符와도 같이 생각하였다. 중국의 玉은 그 代表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中國의 경우, 宋代에 와서는 印章이 書畫의 落款으로 사용하게 되어 많은 印影이 전해지고 있다. 印章의 조각법은 篆刻기술로서 발전하여 지금도 중국이 자랑하는 國技의 하나가 되고 있다.

돌은 일찍부터 建築재료로 사용되어 우리의 人間生活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 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유럽에서는 돌을 주요 재료로 삼은 건축이 특히 발달하였다. 古代 그리이스의 신전을 비롯한 유명한 建築物이 돌로 된 것이 많다. 벽돌이나 진흙, 기타 木材를 주로 사용하여 가옥을 짓는 아시아의 경우에도 土臺나 기둥의 礎石으로 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城이나 다리를 만들 때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돌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였다. 프랑스의 세자르城, 영국의 에딘버러城, 우리나라의 수원城 등에 주로 돌이 이용되었고, 石橋로서는 우리 나라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가 그 예이다. 돌은 또 광장이나 도로의 포장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분묘, 기념비, 사원, 제단 등의 記念物的 建造물은 石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에집트의 피라밋과 오벨리스크, 英國의 스톤헨지 (Stonehenge), 동남 아시아의 보로부두르(Borobudur)와 앙코르 와트(Ankor Wat), 인도의 아쇼카王 石柱 및 아잔타(Ajanta),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巨石文化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고인돌, 石塔 등이 그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다.

돌을 재료로한 彫刻이나 細工物이 美術 分野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는 에집트의 파라오의 彫像, 중국의 雲岡石佛과 같은 거대한 것에서부터 아주 섬세하게 조각한 것까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 制作方法도 丸彫, 浮彫, 透彫 등 다양하다.

여러가지 색채의 돌을 주사위의 눈처럼 잘라서 이것을 잘 배열하여 圖樣이나 그림을 나타내는 이른바 모자이크도 유럽에서는 로마시대로부터 中世까지 널리 제작되었다. 이탈리아의 라베나(Ravenna) 소재의 쾰비탈레 성당에 있는 것은 미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돌은 미술의 창조에 있어서도 不可缺한 要素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大理石은 유럽에서 古代 그리스 이래 石彫 재료로서 가장 중요시되었다.

돌을 藝術的 내지는 美的으로 이용함에 있어서는 동양과 서양이 대체로 다르다. 서양은 돌을 素材로 하여 藝術을 창조하고, 더 나가서 그것을 利器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천연의 돌 그 自體에서 藝術的인 美를 찾고, 돌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껴 왔다. 그래서 人工이 가해진 돌보다도 천연의 돌을 觀賞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名山의 풍경을 찾는 것이나, 自然石을 소재로 造景하여 庭園을 꾸미는 것,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 壽石을 방안까지 끌어들여 감상한다. 수석을 수반이나 좌대에 얹혀 즐기는 것은 서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동양적인 묘미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돈처럼 값으로 따지는 보석이나 美石을 윤이 나게 연마하여 그 회귀성과 찬란한 色感에 만족하는 趣向을 갖는 것이 一般的인 현상이라면, 동양은 質感이 좋은 자연석을 그대로 觀賞하면서 그 古態美가 더해 갈수록 값있게 다룬다.

## 2. 돌과 俗信

古人들은 돌을 生活에 이용하는 한편, 植物과 마찬가지로 땅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다. 科學文明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돌은 아직도 땅 속에서 영구

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앙이 있다.<sup>1)</sup>

돌은 그 母體인 大地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영속적인 新鮮性과 부패하지 않는 힘이 內在하고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治療上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돌은 地上이나 地下의 일정한 場所에 고정되고 있어 大地의 힘을 그 自體 속에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치료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動物이나 植物 등에 환자의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迷信에서, 가공되지 않는 自然石에 환부를 대고 문지르면 그 돌에 병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民間療法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아들을 얻기 위하여 男根처럼 생긴 돌을 모시고 어루만지며 참배를 한다거나, 돌을 갈아서 이것을 물에 타 마시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迷信 등이 傳說과 野史에 흔히 나오는데, 이것도 돌과 大地와의 관계를 연상하고 그 힘을 믿는 데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은 어떤 재난이나 魔力을 예방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수천년전 이집트인들은 眞紅色의 돌로 버클(buckle)을 만들어 죽은 者의 배위에 없으면 惡鬼가 도망간다고 믿었다. 특히 아라비아와 이집트에서는 다이아몬드가 행운의 徵表로서 不敗의 能力을 준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좋지 않은 징조를 예감하였을 때,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돌을 던지는 風習도 같은 脈絡이라고 할 수 있다.

돌로써 병의 完快 與否를 점치기도 하였다. 환자를 문병하러 가기 전에 돌을 공중으로 던져보아, 모기나 개미 따위의 어떤 生物이 떨어지면 환자의 병은 낫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다.

또, 돌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여겨, 여기에 특정한 意味를 부여하였다.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날 아침, 해뜨기 전에 돌이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은 그 돌 위에 빵 부스러기를 뿌리고, 聖者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 金을 發見한다고 하였다.

돌은 拜物信仰의 對象이기도 하였다. 그 형태와 크기가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信仰은 古代의 그리스, 이집트, 小아시아 등에서 볼 수 있고, 現代에도 未開民族 중에서 나타난다. 奇異하게 생긴 돌을 숭배한다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특히 하늘에서 떨어진 隕石은 拜物信仰의 대상이 된다. 성경을 보면, 「創世記」에서 아담이 베게로 삼은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그 장소를 베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 例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 동아출판사, 동아원색대백과사전, 9권, p.467.

### 3. 돌과 濟州文化

주지하는 바와 같이 濟州島는 第三紀末에서 4紀初에 걸쳐 30여회에 달하는 熔岩噴出로 형성된 섬으로서 그 表層은 마지막 단계로 溢流한 玄武岩層으로 덮여 있다. 여기에 濟州島人은 바위와 돌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삶의 本據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濟州島는 南太平洋에서 휘몰아쳐오는 颱風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그 사나운 바람에 섬 전체가 여러가지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늦가을에서부터 일어나는 西北季節風은 다음해 봄까지 계속되어 바람 잘 날이 없다.

韓半島本土에서는 旱害와 水害로 시달리지만 濟州島에서는 이와 함께 風害가 하나 더 없지 이른바 三災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그래서 이태가 멀다고 흉년이 되풀이 되었다.

제주도는 강우량이 많은 셈이지만 비가 오는 족족 地下나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 따라서 韓民族의 주곡인 벼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여의치 못하여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먹어야 했다. 黎明期에 있어서 世界의 모든 文化는 水를 통하여 일어났는데, 濟州文化는 그 反對의 狀況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sup>2)</sup> 더구나 이 모진 風土위에 受難과 受奪의 歷史가 계속되었다.

人間은 주어진 環境에 적응하면서 또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石多와 風多의 섬에서 태어난 제주사람들은 이러한 여건을 이용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람과 맞서 이것을 극복하면서 돌을 生活의 도구로 삼아 文化를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濟州의 文化는 돌과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文化를 生活樣式 또는 行動類型으로 파악할 때, 제주도민의 生活樣式은 역시 石多와 風多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된다.<sup>3)</sup> 어쩌면 先人들은 돌과 더불어 생활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돌하르방, 돌담, 산담, 밭담, 술한 城址, 비석, 기타 돌을 이용한 民具 등을 볼 때, 결국 돌은 제주도민의 生活에서 켈래야 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더우기 제주도민은 돌을 生活樣式에 편입시키면서 돌을 다루는 기술, 즉 「石技」를 터득하였다.

제주도민들은 風多를 극복하기 위해서 돌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주도의 住宅的 環境의 가장 重要한 條件은 防風의 條件이며, 이것은 風多라는 주어진 여건에서 필연적으

2) 洪淳晚, 「濟州文化의 傳統은 무엇인가」 濟大學報, 第24輯, PP. 31~32.

3) 韓昌榮, 濟州道隨想, 創文閣, 1979, P. 129.

로 오는 것이다.<sup>4)</sup> 또 제주도의 주택 資材 역시 防風의 要素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돌이 풍부하여 이 환경조건하에서의 주택형성도 이런 자연적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요컨대, 제주도의 文化는 바람에 맞서 돌을 이용한 文化, 즉 「돌」의 文化라고 할 수가 있겠다.

제주의 歷史도 역시 돌의 이용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例로서 구석기시대의 석기들을 비롯한 신석기시대의 선돌과 고인돌 등의 유적들이 제주도의 북군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고시대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의 文化는 1158年 제주관관 金堦가 돌담을 쌓아 경계를 삼으면서 비로소 개화되었지 않았는가 한다.<sup>5)</sup> 그러면서 돌의 文化는 日常生活의 中心圈 깊숙이 스며들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크고작은 돌로 벽을 쌓아 견고한 집을 만들어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겨 내었다.<sup>6)</sup> 정주석을 만들어 대문의 구실을 하기도 했다.

연자방아를 만들어 곡식을 도정하였다. 물이 귀해서 물방아를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을마다 군데군데 연자방앗간을 세워야 했다. 이것을 만들고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共同體의 秩序를 유지하는 慣行도 생겨났다.

제주도 女人의 情恨이 담긴 곡물을 뿜는 맷돌, 조밭을 다지는 「돌태」, 물허벅을 얹어두는 「물광」, 불씨를 간직하여두는 돌화로, 짚을 두드리는 「덩드렁」, 솔을 엮는 「솔덕」, 香爐로 쓰이는 「상돌」 등 갖가지 生活民具가 돌로 만들어져, 돌의 文化는 제주사람들의 生活 깊숙이 파고 들었다.

또 끊임없는 외침을 막는 데도 돌은 훌륭한 資源으로 이용되었다. 高麗 元宗 11年(西紀 1280年)에 叛賊의 來侵을 斷絶하기 위해 沿海邊에 600餘里를 環築한 「環海長城」, 그 외에도 제주城, 대정城, 별방城 등의 城址들이 위난을 이겨낸 돌의 文化財로 남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다. 봉수대 역시 왜구의 침입을 미리 탐지하고 이것을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는 온통 城과 봉수대로 둘러쳐진 섬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돌은 信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돌하르방을 성문 입구에 세워 수호신적인 기능을 부여했고, 돌로 불탑을 세워 불심을 닦기도 하였다. 특히 돌하르방과 복신미륵 등은 제주민의 신앙과 조형예술의 美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지방의 石像이나 미륵상에서 느낄 수 없는 조형미를 담고 있는 이 石造 美術품은 제주민 特有의 美意識을 대변해 주고 있다.<sup>7)</sup>

4) 李 根, 「제주도민의 주생활」 제주도 41호, p.210.

5) 文基善, 「先進地 彫刻美術研究」 耽羅文化 第4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p.195.

6) 육지의 초가집은 제주의 초가에 비해 「짓다만 집」과 같은 인상을 준다.

7) 文基善, 「사라져가는 제주문화 - 有形文化財 -」 濟大學報, 제 24집, p.38.

또 제주 사람들은 돌에 「영원」을 새겨두려고 노력하였다. 묘비를 세워 血統의 내력을 기록하였고, 마을에는 先人들의 업적을 기리는 공덕비를 세웠으며, 마애명을 새겨 歷史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돌은 제주민의 日常의 意識 속에 잠재하여 이것이 對話나 노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계속하여 물러오는 怒濤를 「산담 그튼 절고개 —산담 같은 물결고개」라고 하는데, 「산담」 없었다면 이러한 비유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잇발 빠진 모습을 한결같이 험어버린 「돌담」에 비유하고 있는 것도 本島에 특유한 비유이다.

前生八字가 사나운 자신을 「궁근팡」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궁근팡」이란 不安定한 흔들리는 「팡」을 말한다. 「팡」이란 빨랫터가 되거나 등에 진 짐을 잠깐동안 엮는 구실을 하는 臺로서, 不安定과 不運 앞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궁근팡」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바라는 것은 「오름(岳)의 돌」과 같은 安定感이다.<sup>8)</sup>

결론적으로 제주의 돌은 제주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 濟州文化를 형성하여 왔다. 그것은 日常의 도구로서, 신앙으로서, 또는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는 자원으로서, 또는 意識 속에서 참으로 경건하리만큼 濟州文化와 결합되어 있다.

## II. 濟州돌의 特性과 利用實態

### 1. 濟州島의 生成과 岩石의 構造

제주도는 東西 80 km, 南北 40 km의 橢圓形으로 해발 약 2000 m의 楕狀火山體이다. 제주도는 地形 및 地質學의 特徵에 의해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sup>9)</sup>

첫째는 海岸低地帶의 平坦한 地形, 즉 현재 밀감을 재배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高度 400 m 이하의 지역이다.

둘째는 섬의 중심부근에 위치한 해발 약 2000 m에 달하는 漢拏山體이다.

8) 金榮敦, 「三多의 哲學-石多」 제주도 제 37 호, p. 202.

9) 李文遠, 「韓國, 濟州火山島의 地質」, 岩石鑛物 學會誌(日本), 77. 1982. p. 56. ; 李文遠·孫仁錫, 「濟州島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섬일까」 1984, p. 53~61.

셋째는 섬의 도처에 散在하고 있는 높이 500~200 m 정도의 기생화산이다.

이상과 같은 地形的 특징은 제주도를 形成한 火山活動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즉 제주도를 형성한 火山活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海岸低地帶의 平坦한 地域을 만든 熔岩臺地 形成段階.

둘째 漢拏山體 形成段階

셋째 寄生火山 形成段階

위의 各 段階는 형성된 時期와 물질이 각각 다르다. 제주도는 第三紀 후에 火山활동이 시작되어 平坦한 섬이 만들어지고(섬의 높이는 數10~數100 m 정도), 섬의 주위에는 火山碎屑物이 퇴적되어 많은 化石을 含有하는 西歸浦層을 만들었다. 서귀포층이 쌓일 때에는 제주도 땅덩어리는 아주 不安定하여 上下運動을 몇번 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 후 火山활동이 계속되면서 粘性度가 작은 玄武岩質熔岩이 다량으로 분출되었다. 이 때의 火山噴出形式은 하와이식으로 큰 폭발이 없이 湧泉水가 흘러나오듯이 많은 量의 용암이 섬의 장축방향으로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지금의 해안지대에서 보는 것 같은 平坦한 섬모양이 형성되었다. 그 후 火山활동의 힘이 약해지고, 분출되는 熔岩의 量과 成分도 변하여 산방산, 범섬, 숲섬, 문섬과 같은 윗부분이 둥근 용암돔(Dome)을 형성하면서 용암대지형성단계의 火山활동은 휴식단계로 들어갔다.

얼마간의 휴식후 다시 火山활동이 시작되어 漢拏山體가 형성되었다. 火山활동은 주로 섬의 中心部에서 일어났다. 漢拏山體를 형성한 마그마의 상승은 섬 전체를 용기시켰다. 이 단계의 火山噴出形式은 스트롬볼리식으로, 용암뿐만 아니라 火山碎屑物도 동시에 분출하여 成層火山을 만들었다. 이 때에 분출된 용암의 점성도는 海岸低地帶를 형성했던 용암의 점성도보다 약간 커서 傾斜진 地形이 되었다. 이 火山활동으로 대략 해발 1600 m의 漢拏山體가 형성되었고, 최종적으로 한라산 頂上 위의 火口가 막히면서 높이 300 m의 용암돔을 만들었던 것이다.

漢拏山體가 형성되는 때와 거의 同時 또는 그 후에 섬 全域에서 다시 火山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寄生火山形成段階이다. 이 段階는 初期에는 점성도가 작은 玄武岩質 物質을 분출하여, 이미 형성된 용암대지 위에 얇게 덮었고, 그 후에 섬의 여기저기에 360여개 이상의 寄生火山을 만들었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화산암은 언뜻 보기에는 모두 같은 것 같으나, 지역에 따라서 암석의 色, 斑晶鑛物의 種類 및 量 등이 다르다. 海邊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은 대부분이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을 띠는 감람석 광물을 반점으로 약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漢拏山 위로 올라감에 따라 암석의 色은 검은 색에서 회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반점 광물이 사장석, 휘석으로 바뀌면서 그 量도 많

아진다.

백록담, 산방산 등과 같은 곳에서는 암석의 색은 흰색 - 회색을 띠고 있으며 검은색 또는 노란색을 띠는 광물은 찾아 보기 힘들다. 이처럼 지역과 高度에 따라 암석바탕의 색, 반점광물의 종류 및 양이 다른 것은 각 암석이 형성될 때의 物理·化學的 條件이 달랐음을 의미한다.<sup>10)</sup>

우선 해안저지대의 용암대지형성단계에서는 주로 알카리玄武岩 (SiO<sub>2</sub> 함량, 50 %이하)과 하와이아이트 (Hawaiite, SiO<sub>2</sub> 함량, 50 %전후)의 용암이 분출되었다. 그리고 용암대지형성단계의 後期에 무저라이트 (Muggerite, SiO<sub>2</sub> 함량 52 ~ 54 %)와 粗面岩 (SiO<sub>2</sub>, 57 %이상) 성분의 산방산, 범섬, 문섬 등의 용암돔이 형성되었다.

한편, 漢拏山체를 이루고 있는 화산암은 대부분 하와이아이트 (Hawaiite) 인데, 백록담의 남서쪽 절벽, 영실, 오백장군 등은 SiO<sub>2</sub> 가 59~65 % 정도를 나타내는 粗面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海岸低地帶의 화산암과 漢拏山체를 형성하고 있는 화산암 사이에는 構成礦物의 種類와 構造에서 현저한 差異를 보인다. 海岸低地帶를 만들고 있는 화산암은 감람석이 제일 많고, 반점광물로서의 사장석은 거의 없다. 그런데 漢拏山체의 화산암은 사장석 (큰 것은 직 0.5~1 mm) 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뚜렷한 반정조직을 보인다.<sup>11)</sup>

산방산이나 백록담과 같이 傾斜가 급한 돔 (Dome) 이 형성된 것은 그 構造物인 용암의 成分에 SiO<sub>2</sub> 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SiO<sub>2</sub> 의 양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용암은 그러지 못한 용암보다 粘成度가 크기 때문에 噴出되면서 얼마 흐르지 못하고 곧 식게 되어 돔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海岸低地帶의 용암은 SiO<sub>2</sub> 가 적었고, 따라서 粘性度도 작아 멀리까지 얇게 흐를 수가 있었으므로 平평한 地形이 형성되었다.

## 2. 濟州島 景觀의 特色과 돌

돌은 濟州島의 獨特한 景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玄武岩이 빚어내는 景觀은 다른 곳과는 완전히 異質의인 것으로서 自然이 만들어 낸 作品이다. 제주도의 指定觀光地가 다 돌로 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景觀은 人間 天才가 만들어 낸 最高의 傑作品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끝없는 가지 가지의 興味와 難題 (challenge) 를 提示한다. 景觀은 凝示하는 것 이상의, 理解되고 解釋되어야 하

10) 李文遠, 孫仁錫, 前掲書, p. 101.

11) 李文遠, 孫仁錫, 前掲書, p. 60.

는 것이다.<sup>12)</sup>

觀光客이 돌에 대하여 느끼는 感興은 상당한 것으로서, 「섬의 象徵」인 돌은 바다와의 調和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바다의 景觀은 全景觀과 一時的 景觀과의 複合体라고 할 수 있다. 바다의 色彩는 氣象과 밀접한 連關性을 가지는 것으로서 하늘의 曇晴정도, 구름의 有無, 바람 등의 氣象條件 變動에 따라 그 색채도 수시로 변한다. 近景에서는 濁과랑색, 遠景으로 갈수록 중회색이 되어 구름색과 비슷해 지면서 水平線 끝에서는 하늘색과 바다색이 一致되어 하늘과 바다가 잘 구분이 안되는 때가 많다. 결국 바다의 색채는 거울이나 봄을 가리지 않고 어두운 景觀을 이루고 있는데, 돌 역시 어두운 景觀을 형성하는 要素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sup>13)</sup>

그러나 多孔質의 玄武岩이 주는 意味는 바로 「時間과 存在의 謙虛」를 알려준다고 한다. 아마도 재빨리 지나치는 觀光客들에게는 돌은 그저 神奇한 것으로서 皮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를 깊게 觀察하는 者에게는 전혀 다른 意味를 주고 있는 것이다. 짙은 회색의 玄武岩으로 이어지는 「밭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아늑한 「草家」, 이 草家와 밭들이 어울려 調和를 이루고 있는 「村落의 風景」, 田園 속에 간간히 나타나는 「墓地的 밭담」에 눈을 땔 수가 없는 것이다.<sup>14)</sup> 이와같이 돌은 濟州島의 人文景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돌담은 西洋畫家 鶴田吾郎氏(1935年)에 의하면 佛國의 「브르타뉴」海岸의 돌담을 聯想하게 하는 美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濟州人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sup>15)</sup> 제주 돌담의 美에 대한 인식 부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제주 돌의 利用問題는 이미 1940年代에 石宙明氏에 의해 제기된 바 있고,<sup>16)</sup> 70年代에 와서 경지정리와 관련하여 行政當局에서 적극적으로 關心을 表明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80年初에 돌담을 헐고 그 대신 樹壁造成을 하면서 그 돌을 利用하려는 道當局의 방침에 많은 論難이 있었다. 당시의 濟州돌 活用方針을 보면, 우선 一周道路邊 돌담을 대상으로 이것을 環境整備라는 概念으로 간주하여 돌담들을 移石하려고 하였다. 移石地區로서는 「돌담의 存置 價値가 없는 곳」이 그 대상이 되었다. 다만 「보기 좋게 築石되고 周邊景觀이 좋은 곳」으로

12) Paul B. Sears, *The Living Landscape*, 1956, p.180.

13) 李宗錫外 3人, 「濟州道 自然景觀의 季節에 따른 色彩分析(거울, 봄)」, 韓國造景學會誌 第10號, 1977, p.31.

14) 拙稿, 「濟州道 觀光資源의 活性化 方案」 제주대학 논문집, 제9집, 1977, p.12.

15) 石宙明, 「濟州島 隨筆」, 濟州島叢第4, p.118.

16) 石宙明, 前掲書, p.174.



樹壁이 造成된 곳을 保存地區로 하였다.<sup>17)</sup>

이상의 상황으로 보아 제주 돌의 活用問題는 아무래도 돌담의 整理라는 課題에서부터 먼저 제기된 것이 아닌가 보인다. 발돌담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울타리담과 같이 정교하게 쌓아 놓자는 發想도 論難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고, 더구나 自然石으로 쌓아진 전래의 발돌담을 헐어 樹壁을 조성하자는 생각은 아무리 그 目的이 돌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反論의 여지가 많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발돌담을 그대로 存置시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도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발돌담에 대한 새로운 措置나 또 이것을 意圖의으로라도 그대로 保存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발돌담의 文化的 側面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돌담이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樣式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는 文化遺産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또 그 文化的 바탕에 자리잡혀진 問題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위와 같은 경직된 행정적인 發想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sup>18)</sup>

발돌담은 제주도의 農耕文化와 關係를 갖고 있다. 第一章에서 본 바와 같이 돌담은 처음에 는 발과 발사이의 境界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돌담은 점점 그 效用을 더하게 되었다. 放牧을 하였으므로, 이들 牛馬로부터 밭에서 자라고 있는 각종 農産物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담이 필요하였고, 이것은 또 防風을 위해서도 중요한 작용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오랜 세월을 걸쳐 많은 노력을 통하여 발돌담을 쌓은 것도 결국 營農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돌담에 대한 새로운 조치나 保存의 問題도 일단은 營農과의 關係를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營農의 樣式이 변하여 돌담이 필요가 없거나 營農보다는 다른 目的에 훨씬 유용하게 쓰여져야만 할 정도로 産業構造가 변모된다면 그것은 自然스럽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돌담이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현재의 모습 그대로의 保存을 고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在來의 발돌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美的으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고, 이러한 美가 결국 觀光客에게도 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돌담은 觀光客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觀光客에게 보이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돌담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이야말로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濟州 特有的 재래식 人文景觀을 변모시키는 것이며, 중요한 觀光資源을 잃어버리는 결과는 가져오기 때문이다.

17) 1982年 3月 濟州道 會議資料

18) 현길언,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몇가지 문제」, 濟大學報, 第24輯.

따라서 돌담정리의 問題는 일단 自然의 흐름 속에 맡겨두는 것이 보다 현명한 길임을 알 수가 있다.

### Ⅲ. 濟州돌의 活用方案

위에서 본 것처럼 先人들은 生活의 모든 局面에서 참으로 엄숙할 정도로 돌과 결합되어 있었음을 보았다. 風多를 극복하기 위하여 石多를 이용한 삶의 지혜, 이것이 제주文化의 精髓인 돌의 文化이다. 그러나 生活樣式의 급격한 변화로 돌의 이용 역시 아주 줄어들었다. 住宅은 돌이 아니라 세멘트가, 生活用具는 돌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金屬으로 만들어진 製品으로 代替되었다. 오늘날의 生活樣式은 결국 돌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며, 또 이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변모되었다. 따라서 돌로 된 과거의 生活用具는 쓸 데가 없게 되었다. 村落 共同體를 결속시켰던 연자방아는 이내 자취가 없어졌고, 멧들은 정원의 디딤돌로 둔갑되었다. 望柱石도 정원의 장식용으로 팔려나갔고, 돌하르방은 아무 데나 세워져 과거의 意味가 상실되었다. 요컨대 合理的인 현대의 文明의 利器에 의해 先人들의 숨결은 우리의 日常의 生活用具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돌은 이제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과거이상으로 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道路包裝, 항만공사, 建築外裝, 골재, 정원석, 토산품용으로 막대한 量의 돌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大量의 需要로 인하여 돌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당국의 엄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野山이나 냇가, 심지어는 景觀이 아름다운 해변의 돌까지 마구 채취되어 自然이 파괴되는 경우까지 있게 되었다.

돌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돌은 제주도의 賦存資源으로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 가장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자원인 것이다.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자원중에 돌과 나무는 제주도의 특색과 향토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원이다. 그런데 나무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대량생산할 수도 있으나, 돌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돌의 活用이란 의미는 돌의 用途를 다각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돌을 가장 有用하게 쓸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自然石이나 加工石을 道外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있어서도 싼값이 아니라 오히려 高價로 팔 수 있는 方法을 강구하는 것이 濟州돌의 品格을 높

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自然保護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點에 重點을 두어 다음과 같이 돌의 用途를 類型化하여 그 活用方案을 찾고자 한다.

## 1. 美的 鑑賞用

### 1) 壽石

壽石이란 自然의 아름다움과 縮景의 오묘함을, 野外에 나가지 않고 室内에서 일목요연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돌을 말한다. 즉 축소된 自然을 室内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 자그마한 돌은 한 개의 自然石으로서, 첫째 山水의 온갖 풍경을 聯想시키며, 둘째 형상의 기묘함을 나타내고, 셋째 회화적인 색채와 무늬의 아름다움이 조화되고, 마지막으로 환상적인 美感을 發散하는 돌이다. 이 무심한 돌에 詩情이 함축되어 정서적인 감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수석은 人工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自然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크기는 두 손으로 들고 볼 수 있는 작은 돌일 수록 좋다. 大自然은 곧 나요, 나는 곧 大自然의 한 部分이라는, 自然과 人間과의 혼연일체에 도달하여 自然의 깊은 이치를 여러가지로 이해하려는 東洋的인 思想과 감정에서 우리나라와 愛石의 경지가 성숙된다.

수석은 庭園石과 구별되는 작은 돌이며, 보석 종류나 化石, 珍奇石 또는 공예품으로서의 觀賞石과는 전혀 다른 축경을 가진 自然을 나타내는 돌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부터 老苔壽石, 壽石老佛, 石壽萬年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상의 대상이 되는 작은 돌을 水石이 아닌 壽石으로 표현하여 왔다. 日本에서는 「수석」의 意味를 「山水景石」의 약자라고 풀이하여 「水石」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타이완에서는 수석을 대개 奇石이라 부르고 있으며, 예부터 대개 奇石 또는 怪石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여 왔다.<sup>19)</sup>

한 개의 작은 自然石을 애완해 온 태초의 기록은 약 3,000年前에 켜졌다는 중국 最古의 地理書인 「書經」의 禹貢篇이나 周代(BC 1121)의 「詩經」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중국 唐, 宋, 明代에도 열렬히 愛石해 온 기록이 풍부하게 전해진다. 특히 北宋代의 蘇東坡와 米芾는 愛石家로서 後代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신라 때에 勝詮法師가 괴이한 돌의 무리들을 모아 놓고 불경을 논의하고 강연했다는 기록을 위시하여, 朝鮮 初 姜希顔의 저술인 「養花小錄」에 수석을 즐기는 경지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民畫나 고서화에도 수석을 즐겨온 기록이 가끔 나타난다. 특히 秋史, 茶山 등

19) 동아세계백과사전, 18권, p.48.

이 돌을 玩賞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 서울의 秘苑과 昌慶苑 등에도 옛날 宮中에서 愛玩하던 돌이 그대로 保存되고 있다.

現代社會를 레이몽 아롱은 「産業社會」로 파악하고 있다. 産業社會에서는 「테크놀로지」의 發達로 大量生産과 大量消費가 이루어지고, 勞動時間이 단축되면서 餘暇現象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社會는 亨樂的·頹廢的인 風潮로 물들고, 人間은 끝없는 消費와 亨樂으로 치달는다. 그러나 財貨는 人間들의 이와 같은 欲求를 無限정도로 充足시켜 주지는 못하며, 人間들은 心理的 欲求不滿과 挫折感과 疏外感으로 시달리게 마련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都市 居住者 — 技術的 進歩에 의하여 만들어진 人工環境의 罪囚 —의 경우에 대하여 어딘가 다른 곳에 孤獨과 自然과의 접촉을 구하여 工場과 事務所와 같은 非人間的인 아닌 社會關係를 찾아 헤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수렵, 낚시, 캠핑 등도 이러한 欲求에서 나온 것으로서, 설령 이러한 欲求가 他人의 흉내를 낸다고 하더라도 절실한 욕구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 없다고 보고 있다.<sup>20)</sup>

요컨대 人間은 그 環境이 人工物로서 가득 찰 수록 더욱 더 自然을 회구하게 된다. 自然과 친할 수 있는 趣味生活 中에는 登山이나 낚시 등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壽石趣味生活만큼 조석으로 自然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대할 수 있는 것은 흔하지 않는 것 같다. 수석은 현대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生活面에 最高의 淸涼劑이며 活力素의 根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수석은 망각된 自然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되새기게 하며 안겨주는 媒介體인 것이다. 오늘날 韓國의 수석연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수석취미활동이 대도시, 그것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애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反映이라도 하듯이 수석전시장도 생기고 있다. 목포에서는 「남농수석관」이 생겨 목포의 名物로서 聲價를 받고 있다. 서울에도 常設 수석전시장이 빌딩의 옥상에 설치되어 노인들을 위한 휴게실로 함께 제공되고 있다.<sup>22)</sup> 전국에 걸친 수석 동호인들이 出品하여 이루어진 「韓國名石展」도 개최되고 있다.<sup>23)</sup> 제주도 自然史 博物館에서도 濟州의 수석 동호인들의 협조를 얻어 수석전을 성황리에 개최한 적이 있다.

이제 수석취미는 「壽石文化」의 定立을 부르짖을 만큼 위치를 차지하여 大衆化되고 있다. 돌이 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여기에 알맞는 수반, 대좌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添配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수석이 지니는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고 보는 사람의 연상을 불러 일

20) 레이몽 아롱 (權鎔大外 9人 번역), 現代의 社會, 大宇出版社, 1976, pp.222~223.

21) 尹錫圭, 壽石百科, 手芸社, 1982, p.8.

22) 월간수석, 1985, 1월 호, pp.58~60.

23) 前揭誌, 1985, 1월 호, pp. 7~18.

오케도록 각종의 演出法도 창조된다. 이것을 보면 수석취미를 능히 「壽石文化」라고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수석의 產地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塔洞의 목석밭」을 비롯한 제주도 海岸 全体가 採石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24)</sup> 道外 반출이 극히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까지 소상히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곧 道外 반출이 쉽게 이루어지는 길이 있음을 傍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석의 「採取」는 山林法 등에 있어서 採取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석의 채취는 山林法上的 土石의 채취처럼 大量을 채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數 톤 (Ton)의 돌에서 수석감이 되는 돌이 한 개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해변이나 냇가에 굴러다니는 수석 한 두개를 채집했다고 그것이 土石의 채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은 自然파괴와는 無關한 것은 아니지만 거리가 멀다.

自然은 변하는 것이다. 더위나 추위 홍수 등에 의해 돌들은 그 정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깨지거나, 묻히거나, 마모되게 마련이다. 수석감이 되는 것은 그 돌이 일정한 美나 형상을 갖추었을 때 채집하는 것이지, 돌의 한 부분이 깨지거나 마모되어버리면 그것은 한갓 「돌맹이」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道當局에서는 수석 또는 정원석의 道外 반출을 一定한 조건하에서 허용하여 道民의 所得과 연결시키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濟州石活用細部指針」에 의하면, 濟州道工藝 協同組合으로 하여금 告示 地區內 수집지역을 선정하여 許可를 얻고 돌을 수집하여 搬出證을 첨부시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sup>25)</sup> 돌 수집 可能地域은 耕地地區, 農地擴大開發地區, 草地造成地區, 都市計劃地區로서 수집할 수 있는 돌은 「不心要한 돌 무덤」, 「除去하게 되는 돌담」, 「開墾 및 草地造成時 나오는 돌」 기타 도로변에 보기 싫게 散在하고 있는 돌 등이다.

수집할 수 있는 돌은 한마디로 수석과는 거리가 먼 돌이다. 草地나 도로변에 널려 있는 돌은 質이 약하고, 색감이 土色이어서 수석감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돌을 안방에 모셔서 감상하려고 요구할 수는 없다. 앞에서 본 것 처럼 수석과 庭園石은 다른 것이다.

수석은 인공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天然이어야 한다는 것과, 두 손으로 받들어 볼 수 있는 크기 정도의 작은 것이어야 한다는 條件 이외에도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sup>26)</sup> ① 石質이 좋

24) 吳昌學 編著, 壽石·돌붙임盆栽, 1982, pp.117~123.; 尹錫圭, 前掲書, pp. 140~141.

25) 濟州道, 濟州石活用細部指針, 1982. 9. pp. 7~10.

26)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18권, p.92.

아야 한다. 石質이 약하면 영구적이고 不變하다는 石의 基本이 무너지게 된다. ② 길은 色이어야 한다. 주밀한 진흙이나 무게있고 짐잡은 청색·갈색 등 色調의 중후감이 있어야 한다. 質이 좋지 않는데 색이 훌륭한 경우는 드문 일이므로 質과 色은 서로 補完關係가 있다. ③ 모양이 좋아야 한다. 수석으로서 縮景美와 自然美가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 살아 있고 個性이 강해야 공감을 일으킨다. ⑤ 古態를 풍겨야 한다. 기나긴 세월에 걸쳐 만고풍상을 겪어온 내력이 뚜렷이 보여 古態의 멋이 살아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⑥ 石의 表面이나 주름이 독특할수록 좋다.

이상의 條件에 비추어 본다면 수집대상이 되는 石 중 과연 몇 개가 수석이 될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石은 후에 살펴 볼 「돌분재」나 정원석으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수석으로서 별 의미가 없다. 또 수석의 價格에 대하여 「高價」를 禁止하는 것도 問題이다. 수석을 값싼 土産品에 비교할 수는 없다. 서울동지의 수석가게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高價로 濟州産의 수석이 팔리는 것을 볼 때, 제주에서 싼값으로 대량판매된다면, 그것은 제주수석의 품위를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파괴를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오히려 수석은 좌대 등으로 정성스럽게 연출하여 高價로 팔아야 할 것이다.

차체에 수석의 반출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몇가지 조건을 붙여 판매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試圖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좌대나 수반 등을 통하여 石의 품격을 높일 것, 둘째는 石의 밑면을 자르지 않는 순수한 自然石일 것. 왜냐하면 자르는 것이 허용될 때는 수석의 품격도 없어지거니와 큰 自然石을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가볍게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돌일 것.

이상과 같은 조건을 붙여 流通構造를 一元化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한다. 工藝組合이나 수석店을 許可制로 하여 이 곳을 통해서만 반출할 수 있게 한다. 물론 當局에서는 반출증 기타 檢印으로 밑반출이나 자연파괴를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工藝組合이나 수석점에서는 道民一般으로부터 사들인 수석을 좌대 등으로 그 價値를 높여 팔아야 한다. 그 價格이 비교적 高價일 때에는 순식간에 大量搬出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一般人들에 있어서도 餘暇善用과 所得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돌분재 (돌붙임 분재)

제주의 괴석이나 표충석은 그 표면이 풍화작용으로 부식되어 수분을 오래 간직하고, 이끼 등이 쉽사리 끼어 자연스러움과 古態美를 나타낸다. 발담이나 草地에 널려 있는 石이 이에 해당한다. 이 돌들은 돌분재 또는 돌붙임 분재에 가장 적합하다.

돌분재란 바다나 山의 단애 절벽의 웅대함, 거센 파도가 부서지는 孤島의 景觀, 대계곡의 암벽에서 힘차게 성장하는 植物의 생명력의 늠름함 등을 盆 위에 창작하는 것으로서 돌과 나무를 一體化하고, 때로는 이것을 수반 위에 놓아 돌과 나무와 수반을 三位一體로 하여 山水의 景勝을 재현하는 것이다.<sup>27)</sup> 따라서 돌분재는 보통의 분심기 분재와 달라서 돌의 특징과 盆栽樹의 조화가 무한한 감상가치를 낳게 하는 것이다. 돌분재에도 가꾸는 방법에 따라 두가지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돌이 패인 데나 구멍 속에 수목을 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예로부터 창작되고 있는 것으로서 수목을 돌에 붙여서 뿌리를 분까지 끌어내리고 돌붙임한 채로 분에 심는 것이다.

보통 돌분재라고 할 때는 前者의 近代的인 돌분재를 말한다. 立石이나 橫石에 붙인 돌분재는 수반에 놓고 물을 붙거나 때로는 반침판에 얹어 놓고 감상한다. 평석이나 선형석에 붙인 것은 돌 그 自体를 盆으로 한 것이므로 수반에 넣지 않고 그대로 감상한다.

돌은 변화가 많고 웅대한 풍취를 나타내며,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또 돌의 質은 가급적이면 연질이고 표면에 울퉁불퉁한 변화와 모양이 있고, 적당한 수분을 품을 수 있으며, 다소의 加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다. 그러나 너무 연하면 풍화되기 쉽고, 때로는 뿌리가 분비되는 산에 의해 붕괴되는 수도 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하면 수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므로 마르기 쉽고, 이끼 등의 자연적인 증식이 될 수 없어 풍취가 없게 된다. 이러한 조건으로 미루어, 제주돌이야말로 돌분재에 최적인 것이다. 서울 등에서는 이러한 自然石이 없어 변성암을 염산등의 약품으로 용해시켜 변화있는 돌을 만들고 있다한다.<sup>28)</sup>

흔히 제주도의 資源은 돌과 植物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돌과 식물의 결합은 바로 제주의 自然美이며 또 「濟州의 빛」이라고 할 수 있다. 돌분재는 道當局의 指針에 의한 移石 대상이 되는 돌뿐만 아니라 「자갈밭」의 돌까지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 자갈밭의 돌은 밭 100평당 약 5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토의 손실을 주기도 한다. 이 돌은 나무와 결합시킴으로써 값어치있는 商品을 개발한다는 것이 돌분재에 대한 發想이다.

제주의 식물 1800餘種 중에 1,000餘種이 觀賞樹로 開發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나무가 돌에 植栽되려면 그 나무의 生態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흔히 市中の 돌분재를 보면, 막연히 돌에 구멍을 뚫어 나무를 심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몇년이 못가서 죽어버린다고 한다. 그런데, 나무의 生態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심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生存이 가능하다.<sup>29)</sup>

27) 吳昌學, 前掲書, p.125.

28) 吳昌學, 前掲書, p.133.

29) 新濟州 所在의 「돌과 식물의 집(김기범氏 소유)」의 돌분재는 20~30년까지 생존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다.

돌분재는 보통의 분재배의 경우와는 달리 묵은 뿌리가 말라서 쉬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자라나는 과정이 되풀이 되므로, 옮겨 심을 필요가 없다. 돌붙임用土는 종전에는 흙을 사용했으나, 화산쇄설물인 송이가루를 사용함으로써 수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송이 가루는 1개월 가까이 습도가 유지되므로 장시간의 輸送 中에서도 뿌리가 마르지 않고 견딜 수 있다.

돌분재를 土產品化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濟州道에서 가장 혼한 돌맹이와 잡목을 活用하여 高度의 세련된 自然美를 만드는 것으로, 오늘날 産業社會에서 도시가 人工物로 가득차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都市民의 정서를 함양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 事業은 藝術的 감각을 지녀야 하고, 勞動集約的인 성격을 띠고 있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 일 自体에서 보람과 慰悅을 줄 수 있다. 당국에서는 이 方面의 전문가에게 翁자 등으로 보조하면서 責任있는 事業을 經營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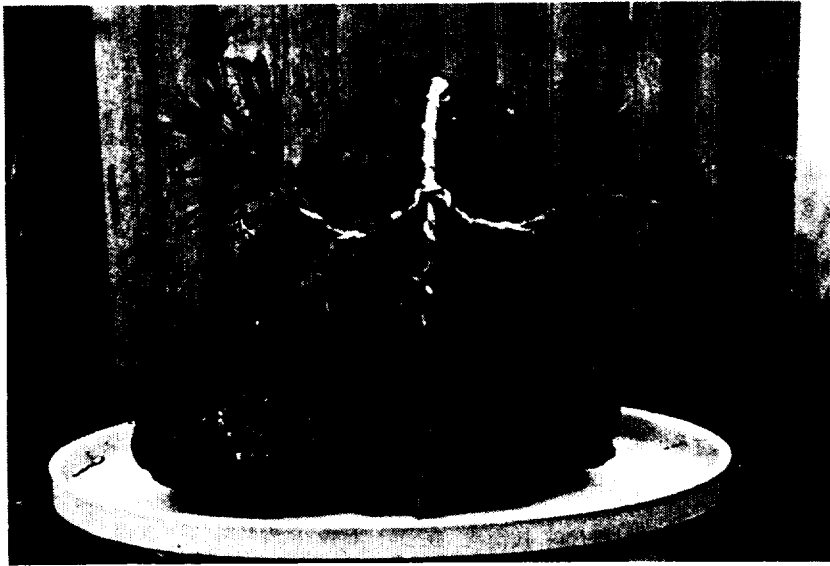


사진 ①

사진①②: 「돌과 식물의 집」의 김기범씨 작품





사진 ②

## 2. 實用的 活用

제주문화의 특색을 돌의 文化라고 부르고 있듯이 돌은 제주도의 鄉土性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資源이다. 外部에서 다른 資源을 끌어드려 그것으로 在來의 제주의 생활양식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異質感을 줄 뿐, 濟州의 固有文化나 鄉土性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고 만다.

돌은 과거에 비해 제주도의 日常의 生活樣式과는 상당히 멀어지고 있으나 전혀 無關하지는 않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現代의 技術과 在來의 石技가 합쳐져 제주도의 독특한 文化를 창달해야 할 時期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돌은 그것을 어떻게 活用하느냐에 따라 道民에게 값싼 자재를 공급할 수 있어 道民의 福利에도 큰 공헌을 할 수가 있다.

人文景觀 내지 鄉土景觀을 이루는 주요한 要素는 建築物이다.

오늘날 觀光地라고 하면 보통 風景이 좋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때의 風景이란 都市의 風景이 아닌 自然의 風景을 가리킨다. 그래서 觀光計劃에 있어서도 人文의 景觀에 대하여는 史蹟 등을 제외하면 경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觀光客이 어느 觀光地에 대한 滿足度를 보면, 自然景觀이나 文化財와 함께 그 地域의 美觀이 크게 作用하고 있음을 본다.

觀光行動을 좀더 치밀하게 보면, 그 地域住民의 日常의 生活環境이 觀光客에 있어서는 바로 觀光環境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地域의 自然風土와 歷史, 그리고 傳統 속에서 日常의 居住環境으로서 質이 높은 디자인이 志向된다면 觀光客에게는 참으로 흥미있는 觀光環境이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70年代 말부터 建設行政의 새로운 課題로서 郷土色 짙은 건축물을 開發하려고 노력해왔다.<sup>30)</sup> 당시에 「郷土色 建築物」에 대한 개념定義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美觀이나 資材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概念的 틀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도 아니다.

전통적인 草家가 거의 없어져버린 지금에 와서 새삼 그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은 단순히 感傷主義에만 얽매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傳統的인 草家에도 그만큼 삶의 지혜가 內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한 태풍이나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지혜는 역시 오늘날에 와서도 필요한 것이다. 초가지붕의 아름다운 線도 단지 便宜만을 추구하여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自然風土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기생 화산의 柔軟한 曲線과 초가지붕의 곡선은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높은 빌딩이나 심지어는 한국의 전통적인 美를 살린 寺刹까지도 제주도에서는 거부감을 주는 것은 제주도의 부드러운 自然의 線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향토적 가옥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要素는 초가지붕의 유연한 線과 돌로 쌓아올린 외벽의 重厚함이다. 물론 이러한 要素가 강한 비바람을 막을 수 있었다는 實用的인 면도 빠뜨릴 수 없다.

최근에 와서 「송이」와 제주돌을 이용하여 傳統美를 살리는 가옥이 신축되고 있음은 제주의 개성있는 향토경관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향토미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제주産의 資材를 사용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제주의 돌을 사용하지 않는 제주의 향토미는 생각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모래 등의 골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資材가 他道에서 반입되어 제주의 建築費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되었고, 가옥형태도 傳統美와는 거리가 먼 서구식형태를 취하게 함으로써 비바람조차 막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人文景觀은 自然景觀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초가지붕의 線과 重厚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산재인 「송이」와 돌의 活用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화산재인 송이를 세멘트와 배합하여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研究도 나오고 있다.<sup>31)</sup> 물론 이 송이가 천연골재와 같은 作用을 하려면 혼화재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송

30) 제남신문, 1978년 3월 6일.

31) 金常武, 「濟州道 火山滓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한 實驗的 研究」 漢陽大學校 産業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年 6月, p. 44.

이가 지닌 밝은 색상은 여러가지로 이용될 수 있고 건축비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송이는 경량골재로서 방열·방습·내화성이 있어서 전통적인 초가의 美와 분위기를 살리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자재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송이는 그 크기나 質에 따라 세분하여 관광지의 포장, 정원의 바닥꾸미기, 외벽외장재, 송이벽돌, 모래의 대용, 방바닥 방열재 등 다각도로 사용될 수 있다. 또 모래의 대용으로 송이를 사용함으로써 육지로부터 반입되는 모래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어 공사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모든 건축물은 돌을 동경한다는 말이 있듯이 돌의 이용은 건축의 美를 살리고 값지게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제주들은 건축물 외벽의 치장재료로서 그 眞價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의 돌은「古기와」와 같은 소박한 색감을 나타내며, 빛을 흡수하여 한없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다른 돌과 같이 차거움을 주지 않으면서 중량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제주들의 장점이다. 현란하지 않는 소박함, 이것이 건축자재로서의 돌의 본래적인 기능이다. 다른 돌이나 타일은 오래됨에 따라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지고, 그 본래의 색채가 퇴색되어버리나, 제주들은 세월이 흐를 수록 이끼 등이 끼어 古態美를 발산하여 더욱 자연스러워 진다. 또 주위의 나무나 화초와도 잘 조화되어 이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 화강석보다도 마찰계수가 높아 쉽게 허물어지거나 깨어지지 않는다.

제주돌을 건축용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장관석으로 사용되는 돌이 너무 획일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벽면 전체를 돌로 치장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칙칙한 느낌을 줄 수도 있으며, 건물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 관석의 크기도 조절해야 한다. 요컨대 돌의 시공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물이나 역사에 관련된 건물은 在來의 石手들을 고용하여 옛날의 石技를 재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제주들은 實用的인 側面에서도 그 用途가 다양하여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비행장이나 도로포장의 골재로서 중요하게 사용되어 이제는 地表上의 돌들은 거의 바닥이 날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地下의 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地上은 물론이고, 地下에 있는 돌의 採石도 自然景觀의 保護問題와 관련되고 있으므로 채석장의 선정은 중요하다. 경승지나 一周道路邊 근처의 여러 곳을 채석하는 것은 禁止되어야 한다. 道內에는 구릉이나 둔덕 등 景觀파괴와 관계없는 이른바 「石山」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곳을 골라 돌자원을 송두리째 이용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北郡과 南郡 등에 각각 한 곳을 지정하여 郡當局이 직접 또는 委託을 통해 돌공급을 一元化할 필요가 있다.<sup>32)</sup> 이 경우 유의할 점은 한곳의 채석장을 넓고, 깊게 채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오고 景觀의 保護에도 도움이 된

32) 北郡은 委託을 통해 돌공급을 一元化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다는 것이다. 채석하기 시작했으면 그 層은 모두 채굴하여야 한다. 이렇게 널리 채굴된 곳은 원상회복을 할 것이 아니라 그곳을 경작지나 기타 식재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경관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는다.

채굴方法에 있어서도 地表面의 自然石은 돌분재, 기타 조경석으로 活用하고, 큰 암석은 항만 등 土木工事用으로 이용하며, 부서진 잔돌만 골재로 쓰도록 하여 돌의 活用體系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돌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송이도 앞으로의 研究結果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利用될 여지가 많다. 송이의 채굴을 個人에 줄 경우에는 利權化하여 값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道나 郡에서 직접 경영하여 道民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송이는 제주도 景觀美의 主要한 要素가 되는 기생화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잘못하면 송이의 채굴에 의해 山을 허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돌산처럼 둔덕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편이 景觀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어느 경우에건 景觀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채굴하되, 다소의 景觀파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道民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송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景觀 파괴의 正當性은 찾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돌이나 송이의 채취가 도로포장 기타 公共을 위해서만 許可되었으므로 一般 道民은 이것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他道에서 반입된 값비싼 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濟州의 個性있는 美觀도 형성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道民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재의 提供이야말로 가장 公共性이 있는 事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行政當局은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給付行政을 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돌의 特殊利用

여기서 돌의 特殊利用이란 現代的 기술 또는 在來의 石技를 이용하여 少量의 돌을 값지게 이용하는 方法이다. 재료를 적게 들고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제주돌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만큼 상당한 資本과 創意力이 要求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방면의 事業은 아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道當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현무암이 지닌 化學成分을 이용한 이른바 「人造玉石」의 開發이다. 알루미늄酸 ( $Al_2O_3$ )이 함유 (18.33%)된 현무암을 용해하여 일종의 보석을 만들어 낸 것이다.<sup>33)</sup> 이것은 硬度가 7로

33) 제주시 삼도동 소재, 「칠토개발」의 韓昌彥氏에게서 참조하였음.

서 유리까지 자를 수가 있으며, 광택이 나며 흠이 없다고 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건축용 고급 대리석, 보석, 각종 악세사리, 기타 토산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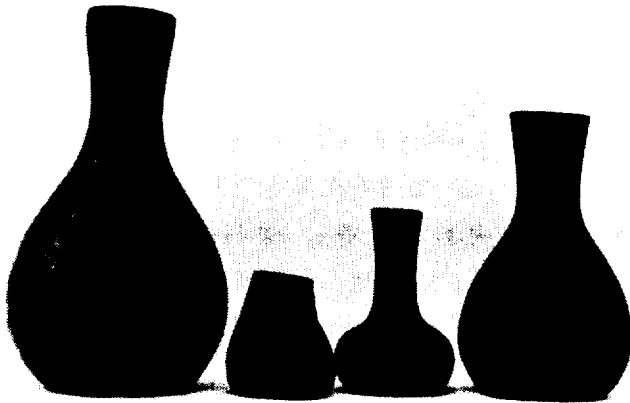


사진 : 「칠토개발」에서 만든 토산품

과연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商品化될 수 있을지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으나, 소량의 돌을 이용한다는 점과 고급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돌을 재료로 한 土產品은 돌하르방, 초가집, 멧돌 등이다. 그 중에도 돌하르방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代表的인 것이다. 돌하르방은 본래 大頭小身한 等身の 石像으로 부리부리한 눈, 방망이 같은 코, 힘을 과시하는 力士와 같은 모습으로서 不義와 邪를 방어하는 수문장의 기능을 가진 것이데, 추상성이 뛰어난 作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sup>34)</sup> 그런데 土產品으로서의 돌하르방은 대부분 송이로 만든 粗惡品으로서 돌하르방 본래의 모습을 再現시키지 못하고 있다. 代表的인 돌하르방이 이렇게 粗惡하다면, 다른 土產品도 그렇게 유추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좀더 점성이 강하고 질감이 있으며 단단한 돌로 代替하여 만들 필요가 있다. 市中에는 흙을 빚어 구어서 만든 돌하르방도 있으나 이것이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돌」하르방은 역시 「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命題를 잊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土產品이라고 하지만 돌하르방 본래의 品格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34) 文基善, 「先進地 彫刻美術研究」, 前掲書, p.200.

제주도는 石多의 고장이며, 또 石造物의 고장이다. 先人들은 돌을 이용하여 生活用具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傳統的인 彫刻技法을 터득하였고, 후에 佛敎 내지 儒敎文化의 流入과 함께 그 彫刻技法을 받아들여 土着化시켜 제주 특유의 石造物을 만들어 낸 것이다. 돌하르방을 비롯한 獻壽像 「돌코냉이」, 정주석 등에서 풍기는 독특한 상징성, 조형성, 쾌량감, 공간감에서 우리는 이 石造物들이 제주도가 갖는 傳統的인 作品임을 알 수 있다.<sup>35)</sup> 따라서 石多를 이용하여 이 고장이 지니는 소재를 마음껏 구사한다면 어느 지방 못지 않게 훌륭한 현대 郷土彫刻이 중흥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제주들을 가장 값있게 活用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 IV. 結 語

세계의 文化가 돌과의 關係를 빼놓을 수 없듯이, 제주의 돌은 濟州民과 불가분의 關係를 가져 濟州文化를 형성하여 왔다. 그것은 日常의 도구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또는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意識 속에서 참으로 경건하리만큼 濟州文化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生活樣式의 급격한 변화로 돌은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도로포장, 항만공사, 건축외장, 골재, 정원석, 토산품 用으로 막대한 量의 돌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곳까지 파괴쳐져 자연이 파괴되는 경우가 지 생기게 되었다.

돌은 제주文化의 특색과 향토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원이다. 따라서 제주들의 活用이란 意味도 돌의 用途를 다각적으로 찾는 것이기보다는 한정되어 있는 돌을 가장 有用하고 값있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들의 用途는 美的 鑑賞用, 實用的 活用 및 特殊利用이라는 세가지 側面에서 살펴 보았다.

美的 鑑賞이라는 側面에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수석이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그것도 人工物이 가득찬 대도시에서 수석취미활동이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있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수석의 產地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수석의 道外 반출에는 몇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서, 돌의 活用을 저해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감이 될 수 있는 돌의 道外 반출은 他道와 마찬가지로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流通構造를 體系化하여 自然 파괴를 막는 것을 고려할 필요

35) 文基善, 前揭書, p.197.

가 있다.

돌분재는 自然石과 나무를 결합시켜 自然美를 창출하는 것이다. 自然石은 道當局의 指針으로 移石 대상이 되고 있는 혼한 「돌맹이」는 물론 제주도의 모든 자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무는 제주도 山野에 널려있는 雜木이 活用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돌분재를 土產品化한다는 것은 혼한 제주들의 活用に 중요한 機能을 할 것이다.

돌의 實用的 活용은 濟州 特有的 郷土景觀의 造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現代의 技術과 在來의 石技가 합쳐져서 濟州의 독특한 文化를 창달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 「송이」와 제주돌을 이용하여 傳統美를 살리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음은 濟州의 개성있는 향토경관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돌의 중후함을 살리지 못하고 타일(tile)化되고 있어 傳統美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이 점에서 在來의 石技를 保存하고 發展시킬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공공건물이나 역사와 관련되는 건물은 옛날의 石技를 재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石手의 技藝를 계승시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돌을 實用化·大衆化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값싸게 대량으로 도민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연파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곳을 정하여 널리, 그리고 깊게 채취하고 이 곳을 농지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돌의 特殊利用이란 현대적 기술 또는 재래의 石技를 이용하여 소량의 돌을 값지게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현무암의 化學成分을 이용하여 人造玉石 등을 만드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 한편, 돌을 이용한 각종 토산품은 물론 재래의 石技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石造物을 만드는 것은 이미 선조들이 행해온 것이다. 이것이 새삼스럽게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濟州의 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限定되어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제주돌을 이용하여 이 교장이 지니는 소재를 具像化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돌을 아끼고 값있게 活용할 수 있는 것이다.

## 濟州 特殊樹種(自生樹種)의 資源化 方案

### <目 次>

- I. 序
- II. 綠化樹木生産의 展開와 現狀
  - 1. 需要構造
  - 2. 生産·供給構造
- III. 綠化樹木의 流通
  - 1. 樹木流通의 形態
  - 2. 樹木流通의 動向
- IV. 綠化樹木 產地造成의 技法
  - 1. 產地間 競爭의 격화(예상)와 대응
  - 2. 綠化樹木의 收益性과 個別經營 對應
  - 3. 生産團地育成과 市場對應의 基本전략
  - 4. 支援體系의 확립
  - 5. 樹種의 選擇
- V. 몇 가지 補完體系
  - 1. 樹木生産과 觀光園藝와의 관계
    - 生産·觀光의 組織化 -
  - 2. 樹木生産과 自然保護의 관계
- VI. 結 語(要約 및 提案)

### I. 序

화훼류수요는 소득증대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이제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화 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해가 거듭할 수록 소비도 꾸준히 증가 되어 왔는데 1977년 국내 화훼류 총수요액은 124.09 백만원이던 것이 '84년에는 611.56 백만원으로 4.9 배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든 본도는 다 아는 바와 같이 화훼류를 생산하는데 최적의 입지점을 지니고 있다. 즉 ① 한국유일의 온난지역이라는 점, ② 한라산을 중심으로 난대식물, 온대식물, 한대식물 및



高山植物들이 분포 ( 1,700 여종 ) 되고 있어 사실 식물의 보고라는 점, ③ 그런데 이렇게 자랑해 오던 주요 자생식물들이 人災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종류도 적지않아 적극적인 배양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④ 본도 농민들은 감귤재배를 통하여 나무 등을 키우는데 그런대로의 기술습득을 하고 있다는 점, ⑤ 국민적 효용측면에서 보아도 현재 환경개선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環境素材로서의 綠化樹木供給이 크게 바라지고 있다는 점, ⑥ 관광 recreation 자원으로서는 道全域을 울울창창의 森林景觀造成이 바라지고 있다는 점, ⑦ 관광에는 木工藝品의 商品化가 따르게 마련인데 지금까지는 既木工藝品을 이용하였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생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木工藝品의 素材資源造成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 ⑧ 多角的인 森林의 이용 — 본도에서의 森林浴 등은 앞으로 중요 관광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등 그 有利性和 當爲性을 지니고 있어 自生樹種을 중심으로 하는 綠化樹木을 人工栽培 商品化=地域所得作目化하는 방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하에 본 조사 연구는 綠化樹木의 지니고 있는 수요·공급구조·유통구조상의 특성을 해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산지조성의 방법론을 試圖해 보았다.

## Ⅱ. 綠化樹木 生産의 展開와 現狀

### 1. 需要構造

#### (1) 需要構造의 推移

우리나라의 樹木生産은 서울 등 소비지 가까이 立地한 特產地<sup>1)</sup>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 綠化 붐이라할 정도의 社會經濟的環境下에 樹木의 需要가 多樣·多量化하여 새로운 産地가 형성되어 생산자수와 생산면적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樹木生産은 樹木의 商品的 特性<sup>2)</sup>에서 볼 때 需要先導型이고 수요구조는 생산·유통·시장의 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요구조는 歷史的으로 私的 需要가 먼저 형성되고

- 1) 樹木生産이 도시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① 과년 후의 저장 운반성이 낮다는 점과 ② 10 a 當 地代 및 1인당 노동보수가 높아 도시화지역의 高地價·高賃金에 견딜 수 있었던 作目이라는 점, ③ 이 지대는 오래전부터 樹木生産技術이 발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 2) 綠化樹木 生産의 經濟的 特徵: ① 생산의 長期性으로 苗木, 養成木, 完成木의 구별을 하게 되며 적어도 생산기간이 3~5년을 요한다. ② 作業의 季節性이 크고 작업도 接木·挿木 등으로써 適期에 탄력성이 있다는 점이다. ③ 소비적 생산물과는 달리 수요 후에도 年年 成長 增價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④ 일반 나무의 생산보다도 자연적 제약이 강하고, 적지, 전통적 기술, 시장 등에 영향받기 쉽고 生産地와 供給地는 반드시 같지 않다. ⑤ 花卉와 盆栽의 상품적 성질과 비슷하나 그 增高性, 生命維持性, 非消耗性, 出荷 등 調整의 가능성, 비계절성 등의 성질을 갖고 있다. ⑥ 그 자체는 생활필수품은 아니고 裝飾觀賞財에 가깝지만 집합적으로는 환경보전, 공해방지 등 公共性을 가지며 최근 특히 公共需要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宮出秀雄; 農業經營經濟學, 明文書房, pp.159~160, 1978.

다음에 60年代 中半以後 樹木生産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公的 需要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2大需要의 내용을 보면 前者는 樹木이 지닌 “人間의 欲望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觀賞機能에, 後者는 “都市와 産業으로부터의 公害를 완화하여 푸르름과 自然을 유지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생활환경 개선기능에 그 나름의 수요형성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樹木의 用途先은 私的 需要로서 ① 개인주택, ② 공장·사무소, 公的 需要로서 ① 都市公園, ② 工業園地, ③ 道路, ④ 中高層 集合住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各用途先의 上位樹種은 공통으로 철쭉류, 개나리, 향나무류, 회양목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엿보인다. (수요동향에서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需要內容을 구체적으로 보면 本來의 私的 需要는 “富와 權力”을 상징하고 있던 부유계층의 정원수로서 自然樹木에 整枝·剪定으로 造形技術을 가미한 完成木이었으므로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수량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70年代 以後에는 국민생활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의 팽창으로 民間住宅投資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私的 需要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私的 需要는 質의으로도 변화하였다. 종래는 일부의 계층에 한정되었던 庭園이 대중화하고 있으며 造園樣式도 변하여 수요중심이 造形技術을 필요로 하지 않는 養成木에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의 성격은 多數樹種·多數規格·少量인 체이다. 非庭園의 경우는 생활환경 개선기능을 樹木에서 찾고 있어 單一樹種·同一規格·多量이라는 성격으로 되어 있다.

公的 需要로는 工場設備投資와 高速路 등의 도로교통망 정비, 공업단지 등 사회자본투자라는 用途先에 따라 綠化樹木이 수요되었다. 더우기 인구집중에 의한 도시의 과밀화, 공해·소음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악화를 계기로하여 質的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한 도시개발, 재개발이 公共事業으로서 진행되어 住宅園地·學校·公園 등이 정비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푸르름과 Open Space를 확보한다고 하는 생활환경정비의 관점에서 植木이 綠化用으로 수요되어 왔고 크게 증대될 전망이기도하다.<sup>3)</sup> 일반적으로 公的 需要는 私的 需要와 달리 單一樹種·同一規格·多量需要의 형태로 養成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私的 需要와 公的 需要를 出荷樹齡의 탄력성·용도의 대체성·수요의 안정성 등을 비교해 보면 公的 需要는 “필요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樹種과 規格을 제약하기 때문에 출하수량의 탄력성·용도의 대체성은 낮다. 그리고 公共事業을 수요주체로 하기 때문에 수요도 불안정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私的 需要는 대조적인 성격을 나타내 출하수량의 탄력성, 용도의 대체성은 탄력적이고 수요는 안정적이다.

私的 需要와 公的 需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3) 최초의 개인의 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個人用 造園의 材料로 사용되고 있던 樹木 즉 庭園木이 이제는 공원녹지, 가로수, 防音樹 등 公共用으로 대량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公共需要가 급격히 증대되어 個人造園用쪽보다 환경녹화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전환을 보여 그 명칭도 종래의 庭園木에서 綠化樹木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그 生産을 綠化産業이라 불리우는 것이 알맞을 정도로 되었고 林業用 苗木生産과 구별되는 獨自의 分野로서 정착하게끔 된 것이다.

(表 1) 私的・公的需要的 性格의 特徵

수요의 특징	私的 需要	公的 需要
수요 수종수	다 수	소 수
수요 규격	다수 규격	소수 규격
거래단위당 수요량	소 량	다 량
출하수령의 탄력성	탄 력 적	비 탄력적
용도의 대체성	탄 력 적	비 탄력적
수요의 안정성	안 정 적	불 안정적

公的 需要에 있어서도 用途에 따라 樹木에 요구되는 성질이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公害에 강하고 管理가 용이하며 移植하기 쉬운 등의 성질이 공통으로 요구된다.

현재의 私的 需要對 公的 需要의 비율에서 보는 수요의 구조적 특징, 非消費性・非必需性이라는 樹木의 商品的 特性, 그리하여 생산의 長期性이라는 技術的 特徵을 고려하면 樹木生産의 앞으로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그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대체적으로 樹木生産이 直面하고 있는 과제는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는 일과 한정된 樹木需要에 대하여 어떻게 공급조정을 할 것이며 적절한 생산자 가격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등이다. 그러면 좀 더 樹木에 대한 社會經濟環境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綠化의 必要性

경제성장에 의한 물질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는 그 이면에 자연파괴, 도시의 콘크리트·장클화, 工場 등에 의한 소음·오염公害가 확산되고 있어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 것이다. 이들의 희생은 국민의 의식전환을 불러일으켜 文化的으로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여 都市機能의 多樣化를 목표로 하는 환경정비·보전을 부르짖는 사회로 변질시키고 있다. 즉 자연과의 친밀성, 푸르름을 사랑하며 심신의 건강을 도모한다고 하는 의식이 대중화되고 있다.

公害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 나가는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푸르름」 「상쾌한 바람」, 「충분한 歩道와 廣場」 등을 들고 있으며 動・植物의 生態系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綠化를 통하여 환경 및 생활의 質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의식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지방자치체가 주체로 되어 도시개발정비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都市域에서의 綠地保全과 Open Space 확보가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綠化의 役割을 담당할 樹木生産에는 잠재적인 크나큰 장래성이 側面的으

로 있다고 想定할 수 있다.

(3) 需要動向

1) 樹種別 動向

다음은 주로 公的 需要에 대한 대체적인 파악의 결과이다.

1年(1979) 동안에 全國의 公共機關에서 실시된 총 94개 중요 조경공사 지역에서 조사 되어진 造景樹木의 총수량은 588,420株인데 숫적으로 가장 많이 심어진 종류는 개나리이 있으며 홍·황철쭉, 회양목, 산철쭉, 잣나무, 쥐똥나무, 장미, 자작나무, 영산홍, 은수원사시나무, 누운향나무, 자산홍, 향나무, 사철나무, 측백 등의 순서였다. 이 무렵 관상수 재배종수는 128종이며 숫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樹種은 향나무類였고 그 순위는 회양목, 은행나무, 단풍나무, 개나리, 측백, 잣나무, 느티나무, 철쭉類, 동백, 히마리아시다, 왕벚, 편백, 수양버들 등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종류가 재배상 多數인 경우와 多量植栽되는 경우가 일치하고 있다.

한편 1974~1976年 사이에 우리나라 중요 조경공사를 주관해온 정부산하 7個部處에서 사용된 樹木의 實績順位에 의한 통계<sup>4)</sup>에서도 개나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회양목, 족제비사리, 칩, 은수원사시, 오리나무, 무궁화, 철쭉, 누운향나무, 매자나무, 황철쭉, 잣나무, 쥐똥나무, 영산홍, 수양버들의 순위로 나타났다. 비록 使用實績에 관한 순위는 다를지언정 多數의 종류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sup>5)</sup>

이상을 좀 세분해서 정리해 보면

① 植栽된 造景植物의 종류는 落葉性植物이 79種, 常綠性植物이 33種 등 총 122種이었으며 植栽數量上의 常落比는 상록수가 26%, 낙엽수가 74%이었고 植栽頻度는 상록수 33.5%, 낙엽수 66.5%로서 낙엽수의 식재가 월등하게 많았고 頻度も 높았다.

② 植栽頻도가 높은 樹種은 홍·황철쭉, 개나리, 회양목, 단풍나무, 수양버들, 異村단풍, 은행나무, 왕벚나무, 히마리아시다, 수수꽃다리의 순위였고 數量的인 식재순위는 개나리, 홍·황철쭉, 회양목, 산철쭉, 잣나무, 쥐똥나무, 장미, 영산홍, 은수원사시 등이었다.

③ 都市造景 : 개나리, 철쭉類, 회양목, 장미. 道路造景 : 은수원사시, 철쭉類, 개나리, 회

4) 국방부, 건설부, 산림청, 조달청, 문화재관리국, 서울특별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1977. 造景素材標準化 및 價格算出標準調査, 서울;李宗錫外; 우리나라의 조경식물 이용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제7권 제1호) 1979.에서 인용.

5) 李朝時代의 정원수목 선정추세에 관한 연구(윤영환 1977, 高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에 의하면 소나무, 버드나무, 복숭아, 매화, 모란, 대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회화나무 등 9종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수목으로 애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花木으로 四季簾, 배롱나무, 측규화·果木으로 배나무, 은행나무, 호도나무, 석류나무 등이 애용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이 時代에 자주 식재되었던 조경식물들은 측백, 잣나무, 주목, 사철, 후박나무, 회양목, 팥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차나무, 굴나무, 탕자나무, 느릅나무, 가문비나무, 보리수, 등나무, 벽오동, 앵도나무, 밤나무, 무화과, 장미, 아그배나무, 해당화, 목련, 정향나무, 자귀나무, 참꽃나무, 옥배, 산수유, 영춘화 등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李宗錫外: 庭園圖에서 인용.

양목, 墓地 및 史蹟地造景 : 개나리, 철쭉類, 향나무, 잣나무, 회양목. 이와같이 개나리, 철쭉類, 회양목 등은 어떠한 類型의 造景에서나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었고 자주 이용되는 조경수목의 樹齡은 대략 5~10年生이 대부분이었다.<sup>6)</sup>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요 조경식물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으로 확일 식재되고 있어 高度化 - 特性化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제주의 自生樹 - 郷土木은 잠재수요력을 크게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2) 一般動向

다음은 私의 需要라고 할 수 있는 花卉類消費 一般動向에서 나타나고 있는 觀賞樹 部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7)</sup>

1977年 花卉類 總消費額은 125억원이던 것이 1980년에는 200여 억원으로 67%가 증가했고 1983년에는 580억원 정도로 4.8배 가량 증가했다. 즉 매년 77.6%씩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80년에 들어와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表 2) 年度別 花卉需要 現況 單位 : 百萬元

年度別 形態別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切花·切葉	295	870	1,213	1,820	1,776	4,785	8,693
盆 花	374	411	722	3,338	1,524	7,854	11,674
球 根	26	29	106	402	420	1,631	2,398
花 木	1,095	1,115	923	1,788	1,746	3,848	7,860
觀 賞 樹	10,648	7,344	7,972	12,471	12,996	14,204	26,774
種 子	17	40	128	171	194	525	420
其 他	-	-	-	156	941	-	-
計	12,455	9,809	11,064	20,146	19,597	32,847	57,819

資料 : 農水産部の 生産, 輸出, 輸入資料에 따라 KRE I에서 作成한 것임.

註 : 國內需要 = ( 國內生産額 + 輸入額 ) - 輸出額

6) 李宗錫外 : 前揭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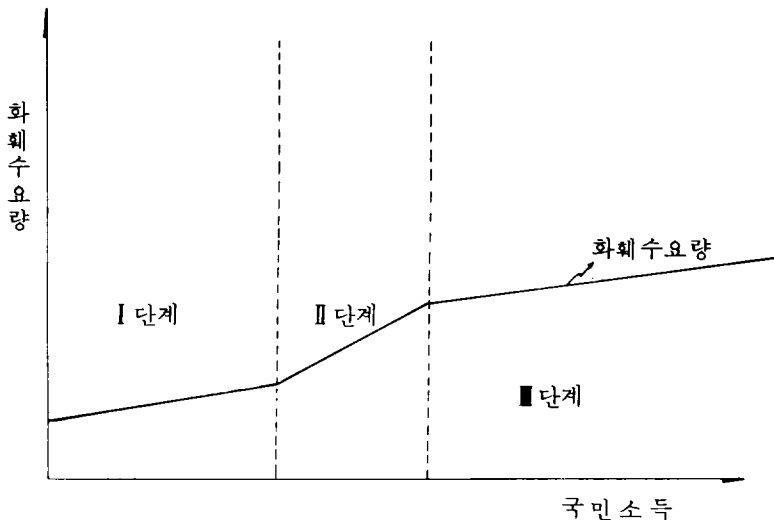
7) 현단계에서 볼 때 별단의 樹木에 대한 需要動向을 파악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포괄적인 花卉類 (切花, 盆花, 花木, 觀賞樹, 種子 등)의 소비동향을 살펴는 가운데 樹木類의 推移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統計上에 나타나는 용어는 주로 花木, 觀賞樹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검토가 요하고 있다. 왜냐하면 觀賞樹라 할 때에는 樹木이 갖고 있는 기능 - 觀賞機能과 生活環境改善機能 - 중 觀賞機能 - 一面만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므로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綠化 樹木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 개념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면 綠化樹木이란 人工的으로 育成된 樹木中 造園에 사용되는 綠化樹木을 말한다. 花木, 植木, 盆栽 등 이른바 庭園木 (裝飾用 樹木)이라 해 왔다. 이러한 것을 일괄하며 대나무와 잔디, 때로는 羊齒類, 이끼類까지도 포함된다 물론 造景樹(木)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觀賞樹나 花木은 주로 庭園樹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公園, 綠地의 것까지를 포괄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花卉類의 消費構造는 ①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을 배경으로 꽃의 소비 성향이 大衆化, 多樣化, 高級化가 이루어지며, ② 일상생활에 있어서 꽃에 대한 인식과 정서생활에 대한 욕구변화에 따라 贈與用, 一般家庭用, 業務用, 各種行事用 등 꽃의 소비가 일반화되어 생활속에 깊숙이 침투, 정착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모형화 해 놓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국민소득과 花卉需要量의 Pattern (假設)을 보면, 「花卉의 需要는 國民所得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소득이 어떤 수준을 넘어서면 그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점이다.

<그림 1>은 국민소득과 화훼수요량과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그려본 것인데 수요량의 증가 속도에 따라 3 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그림 1>의 구분 방법에 따라서 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에 이르러서 II 단계 진입을 시작하는 시점에 와있고 (표 2의 추세를 참고할 것) 일본은 이미 1970년에 II 단계 진입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9)</sup>

<그림 1> 국민소득과 화훼수요량의 패턴 : 假設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경제, VOL. VI No. 2, 1983. 6, pp. 80 ~ 81.

9) 우리나라가 1인당 GNP (1981)에 대한 花卉消費率이 0.06%인데 비하여 先進國中 꽃의 1인당 소비량이 낮은 일본, 미국은 각각 0.13%, 0.12%로서 우리나라의 2배가량 지출하고 있다. 개략적으로 보아 1인당 GNP가 높아지고 사회문화적 생활욕구가 큰 나라일 수록 꽃의 소비량이 크다. (네덜란드 0.53%, 서독 0.49%)

어떻든 私的 需要增加의 전인차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民間住宅投資인데 이 분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주택보급율은 66.6% (도시 54.3%, 농촌 92.0%)로서 家口數 增加 (연증가율 3.5%)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住宅數 增加率 年 0.9%). 그러므로 국민의 居住水準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주택건설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앞으로의 樹木需要는 잠재적인 주택수요를 통하여 안정적인 私的 需要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물론 都市公園, 道路, 集合住宅 등의 사회자본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公的 需要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입장에서 점점 중요시되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都市化率 1980년 66.7% → 1991년 76.9%) 그러나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더우기 최근의 재정실정, 공적 수요의 성격 (단일주택, 동일규격, 다량)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가구당 화훼류 소비를 화훼생산액과 가구수를 중심으로 계산해보면 (표 3) 1971년에 연간 386원을 생산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1975년에는 275%가 증가된 호당 994원, 1980년에는 694%가 증가된 호당 2,679원이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는 일본의 1965년의 소비수준 1,206엔에 근접하고 있다. 1980년은 6,289엔으로서 우리나라의 약 7.6배를 소비하고 있다.)

(表 3) 韓國가구당 평균 화훼류 소비액

年 度	화훼생산액 (백만원) <sup>1)</sup>	총 가구 수 (千戶) <sup>2)</sup>	평균소비액 (원) <sup>3)</sup>	지 수
1971	2,207	5,714	386	100.0
1975	6,716	6,754	994	257.5
1977	12,880	7,008	1,839	476.4
1978	11,201	7,256	1,543	399.7
1979	11,764	7,511	1,566	412.1
1980	21,351	7,969	2,679	694.0

註 1) 農水産部, 「화훼전람」.

2)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3) 當年度 생산액이 전부 當年度에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假定함.

10) 참고로 일본의 경우 戶當標準 樹木 植栽本數를 보면 신규주택 41.2本, 기존주택 3.40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특징은 신규주택과 기존주택과의 현격한 차이이다. (1975~1985年間の 평균임)

(4) 需要推定

1981년 서울대 농대의 李炳駟, 염도희교수팀이 花卉類의 消費推定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즉 한국농업과학협회 발행 “投資政策과 韓國農業未來(1981)라는 論文集에 게재된 論文에서 국민 1인당 花卉量을 (표 4)와 같이 추정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1981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00年代의 우리나라의 切花消費는 국민 1인당 15.10개로 5배, 盆花는 8배, 球根은 65배, 觀賞樹는 3.3배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全體 花卉類는 6.6배가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花木 및 觀賞樹의 生産面積推定은 11,152.78 ha(2000年)으로 나타나고 있어 1981年을 100으로 했을때의 4.4배 수준이다. (’81年 2,937.24 ha → 2000年 11,152.78 ha)

(表 4) 國民 1人當 花卉消費 推定

年度別 區分	1971	1973	1976	1981	1986	1991	1996	2000	日本 1976
切 卉 (個)	1.50	1.21	1.22	3.03 (100)	6.10	9.03	12.17	15.10 (498.3)	30.00
盆 花 (〃)	0.02	0.09	0.11	0.16 (100)	0.42	0.68	1.10	1.30 (812.5)	1.10
球 根 (〃)	0.02	0.02	0.02	0.03 (100)	0.19	0.52	1.33	1.96 (6,533.3)	3.0
觀 賞 樹 (〃)	0.29	0.45	0.55	0.87 (100)	1.62	2.46	2.76	2.92 (335.6)	-
잔 디 (㎡)	0.06	0.06	0.09	0.09 (100)	0.18	0.24	0.42	0.48 (533.3)	0.5
計	1.89	1.03	1.99	4.18	8.51	13.93	17.78	21.76	34.40
指 數	(45.2)	(43.7)	(44.8)	(100)	(201.5)	(331.2)	(411.0)	(664.1)	

資料 : 한국 농업과학협회 : 「투자정책과 한국농업의 미래」, 1981.

註 : (%)안은 1981년을 100으로 했을때의 指數임.

11) 花卉類에 대한 需要推定은 아직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태이나, 李·염교수팀의 소비추정방식은 한국의 2000年代의 국민소득을 4000~4500 \$로 가정하고 일본의 국민소득과 비슷한 1975~1978년도의 花卉消費를 측정하였다. 즉 1976年度 日本 國民 1인당 花卉消費量에 切花類는  $\frac{1}{2}$  球根類를  $\frac{2}{3}$  盆花와 잔디를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요량을 산정하고 있다.



## 2. 生産・供給構造

### (1) 供給構造의 推移

樹木의 생산지는 한정된 정원용 完成木需要로 인하여, 그리고 樹木의 商品的 特徵인 ①重 嵩性, ② 生命維持性에 의한 低位運搬性 때문에 처음에는 需要地에 접근하여 개별 분산적으 로 立地해 왔다. 그 후 자연적인 조건에 힘입어 생산기술이 우위에 있는 産地가 수요증가라 고 하는 조건하에서 特産地化하였다. 그런데 이들 特産地는 날로 증가하는 多種 多樣化한 需 要 특히 單一樹種・同一規格・多量이라는 성격을 갖는 公的需要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가 없 었다. 하나의 이유로서 소비지에 近接하고 있는 好立地條件은 都市의 확대에 의한 農地의 宅 地化・高地價를 통하여 그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짐으로써 外延的인 생산규모확대가 불가능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런대로의 需要地 周邊에 새로운 産地가 형성되고 빠른 時期에 立地하고 있던 특산지 주변에도 새로운 산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大小 여러가지 새로운 産地形成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① mist house에 의한 苗木生産技術 이 확립된 점, ② 樹木生産이 비교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③ 樹木生産作業의 季節 的 彈性性이 높다는 점 등 樹木生産을 經營에 용이하게 도입・부가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 었다.

樹木生産은 育成段階에 있어서 苗木・養成木・完成木이라는 세 가지 생산과정이 있다.지금 까지 庭園用 完成木이 수요되고 있던 시기에는 樹木은 苗木으로부터 造形을 가한 完成木까 지 一貫生産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수요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진보에 따라 分業 化하여 苗木, 養成木, 完成木이 각각 商品化되어 廣域的으로 유통되고 있다(일부이기는 하 나). 苗木生産은 주의깊은 肥培管理를 필요로 하며 자연조건에 크게 제약되지만 運搬性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기 때문에 교통수송망이 정비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立地圈이 확대되고 있 다. 그래서 상품가치의 결정요인은 소비자의 選好에 직접관계하는 造形 技術로서 完成木 生産 에는 필요하게 되어 있고 養成木 生産은 세 가지의 생산과정 중 가장 技術的 負擔이 적다. 그럼으로써 養成木 生産・苗木生産은 遠隔地를 중심으로 증대하며 대도시 주변의 전통적 산 지는 完成木 生産에 상대적으로 전문화하고 있다. 이와같이 樹木生産技術의 進歩와 輸送網의 정 비로 지역분업화, 지방분산화하고 있는 것이다.

樹木生産을 經營經濟的으로 고찰할 때에 필요한 농산물로서의 樹木이 갖고 있는 ① 생산 기술적 특징과, ② 상품적 특징을 다음(표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表 5 ) 樹木의 생산기술적, 상품적 특징

생 산 기 술 적 속 성	상 품 적 속 성
1)  생산의  장기성	1)  低位運搬性-重蓄性,  生命持續性
2)  작업의  계절적  탄력성	2)  出荷期調整性
3)  增殖性	3)  비계절성
4)  자연의  제약성	4)  비소모성
5)  생산의  불균일성	5)  비생활필수품성
	6)  公共性

(2) 生産動向

1) 樹種別 動向

樹種別 樹木栽培現況 ( 1976 ) 을 보면 재배종수는 128 種이며 숫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樹種은 향나무類였으며 회양목, 은행나무, 단풍나무, 개나리, 측백, 잣나무, 느티나무, 철쭉類, 동백, 히마리아시다, 왕벚, 편백, 수양버들 등의 순서로 많이 재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樹木의 재배는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용경향 ( 樹木은 需要先導型임 ) 과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본도에서의 현재 ( 1984 ) 재배동향을 보면 64 種에 4,092,669 本이 재배 ( 보유 ) 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수종 순으로 보면 철쭉類 ( 124,590 本 ), 개나리 ( 380,100 本 ), 무궁화 ( 290,620 本 ), 광나무 ( 286,421 本 ), 소철 ( 256,450 本 ), 동백류 ( 220,810 本 ), 후박나무 ( 179,900 本 ), 팔손이 ( 165,000 本 ), 치자나무 ( 121,300 本 ), 사철나무 ( 95,130 本 ), 굴거리나무 ( 88,890 本 ), 종려 ( 87,720 本 ), 향나무류 ( 62,947 本 ), 야자류 ( 53,600 本 ), 식나무 ( 52,530 本 ) 등으로 되고 있다.<sup>12)</sup>

이상 우리나라 전체의 재배狀況과 비교해 보면 ( 물론 조사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 개나리, 동백, 철쭉류, 사철나무, 향나무류, 은행나무, 편백, 회양목 등은 전국 재배순위와 비슷하나 무궁화, 광나무, 소철, 후박나무, 팔손이, 치자나무, 굴거리나무, 식나무, 야자류, 종려, 녹나무, 돈나무, 백정화, 주목, 쥐똥나무, 헛죽도 등은 본도의 立地의 特殊性에서 재배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진다.

12) 제주도 ; 산림과 행정조사(1984)에 의한 것으로 64種이 현재 재배(보유)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5 만본 이상의 수목만 밝힌 것이다.

2) 一般動向

여기서는 需要動向에서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花卉類의 동향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1983년 현재 花卉栽培農家數는 4,197戶이며 재배면적은 1,832ha이다(표 6). 그 동향을 보면 1971년부터 1983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농가호수 2.3배, 재배면적 3.8배, 생산액 25.4배(표 7)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80年代에 이르러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산액 비중을 보면 1983년 56,036백만원중 관상수가 44%, 화목이 13%로서 樹木이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한편 전업농과 부업농의 동향을 보면(표 8) 점차 專業農化하고 있으며(1971년 전업농 45%, 부업농 55% → 1983년 전업농 58%, 부업농 42%)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주변은 절대적으로 높다(73~95%). 이것은 花卉가 대도시 소비시장의 근교농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6) 花卉類의 栽培現況

區分 年度	農家戶數	栽培面積	生産額	戶當栽培面積
	戶	ha	백만원	ha
1971	1,786	543	2,707	0.30
1972	2,631	680	2,638	0.26
1973	2,424	945	4,584	0.39
1974	2,215	936	5,251	0.42
1975	2,446 (100.0)	1,070 (100.0)	6,716 (100.0)	0.44 (100.0)
1978	2,161	1,246	11,201	0.58
1979	2,181	1,185	11,764	0.54
1980	2,733	1,280	21,351	0.47
1981	3,093	1,239	20,010	0.40
1982	3,755 (153.5)	1,457 (136.2)	32,806 (477.8)	0.39 (88.6)
1983	4,197 (171.7)	1,832 (171.2)	56,093 (835.2)	0.43 (106.8)

註: ( )内 숫자는 1975년을 100으로 한 수치임.

資料: 農水産部

(表 7)

연도별 화훼류 생산 현황

單位：100 萬원

年度	생산액 합 계	前年對 比증가 율(%)	切 花		盆 花		球 根		花 木		觀 賞 樹		種 子	
			수량 (千本)	금액	수량 (千本)	금액	수량 (千球)	금액	수량 (千株)	금액	수량 (千株)	금액	수량 (千粒)	금액
1971	2,207		48,031	395	739	98	521	9	4,113	340	9,371	1,364	60	1
1972	2,638	119.5	39,024	422	993	119	556	16	8,516	354	28,753	1,716	125	11
1973	4,584	173.8	40,048	507	2,846	153	724	26	3,730	528	14,766	3,350	185	17
1974	5,251	114.6	43,960	610	1,876	113	707	29	6,784	787	16,045	3,710	61	2
1975	6,716	127.9	26,698	390	969	277	409	20	8,040	529	17,779	5,466	184	34
1976	7,135	106.2	26,190	556	531	228	2,261	30	13,456	636	19,738	5,647	257	39
1977	12,880	180.5	23,239	737	1,038	374	143	21	6,011	1,095	203,828	10,648	148	5
1978	11,201	85.9	51,361	2,304	687	411	442	25	3,323	1,115	13,444	7,344	154	3
1979	11,764	105.0	46,674	2,061	1,271	722	780	37	2,398	923	11,451	7,952	230	49
1980	21,351	181.5	329,186	3,469	82,203	3,338	1,330	192	104,399	1,788	35,606	12,471	77	19
1981	20,010	93.7	57,026	3,494	81,818	1,524	1,116	177	2,460	1,746	9,661	12,996	47	31
1982	32,086	16.0	376,649	6,222	46,483	7,854	6,070	1,173	20,250	3,848	43,549	12,776	1,212	213
1983	56,036	174.6	115,716	10,439	22,109	11,674	9,560	1,719	15,670	7,359	452,360	24,898	0.03	2

資料：農水産部：「花卉便覽」 1982 및 農水産部

(表 8)

道別 業態別 花卉農家와 栽培面積現況 (1983 年)

道 別	總 農 家 (構成比率) (A) (%)	專 業 (B)	副 業 (C)	B/A, %	栽培面積	構成比率 (%)	栽培戶當 (포장) 面 積
서 울	845 (26.1)	724	121	85.6	176.6 ha	9.6	0.21 ha
釜 山	163 (3.9)	154	9	94.5	50.7	2.8	0.31
大 邱	37 (0.9)	27	10	73.0	20.0	1.1	0.54
仁 川	103 (2.5)	58	45	56.3	22.3	1.3	0.22
京 畿	2,216 (28.9)	689	527	56.7	699.0	38.1	0.57
江 原	33 (0.8)	12	21	36.4	6.5	0.3	0.20
忠 北	45 (1.1)	14	31	31.1	46.6	2.5	1.04
忠 南	172 (4.1)	53	119	30.8	93.2	5.0	0.54
全 北	377 (8.9)	80	297	21.1	206.7	11.2	0.55
全 南	299 (7.1)	114	185	28.6	137.0	7.5	0.46
慶 北	55 (1.3)	27	28	49.1	29.7	1.6	0.54
慶 南	686 (16.3)	377	309	55.0	288.8	15.7	0.42
濟 州	166 (3.9)	82	84	50.6	60.2	3.3	0.36
總 計	4,197 (100.0)	2,417	1,786	57.6	1,832.3	100.0	0.43

資料：農水産部

3) 地域別 動向

地域別 栽培農家戶數를 보면(1983) 경기(28.9%)로 가장 많고 서울이 20.1%,경남이 16.3%, 전북이 8.9%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中部圈과 경남 등을 중심한 南部圈으로 2大別되고 있다. (표 8 참조)

또한 생산부문별로는 切花類의 재배면적이 경기 31.9%, 서울 10.0%, 경남 27.0%,전남 10.1% 등으로 中部圈과 南部圈으로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花木, 觀光樹를 보면 서울 15.6%, 경기 13.0%, 전북 21.6%, 전남 16.5%로서 中部圈쪽에 집중되고 있으며 觀賞樹는 서울 10.0%, 경기 46.8%, 경남 15.8%, 전북 13.7%로서 앞과 비슷한 추세이다. (표 9 및 그림 2,3 참조 - 이 그림은 농어촌개발공사: 화훼산업 육성방안 조사연구, 1984.에서 인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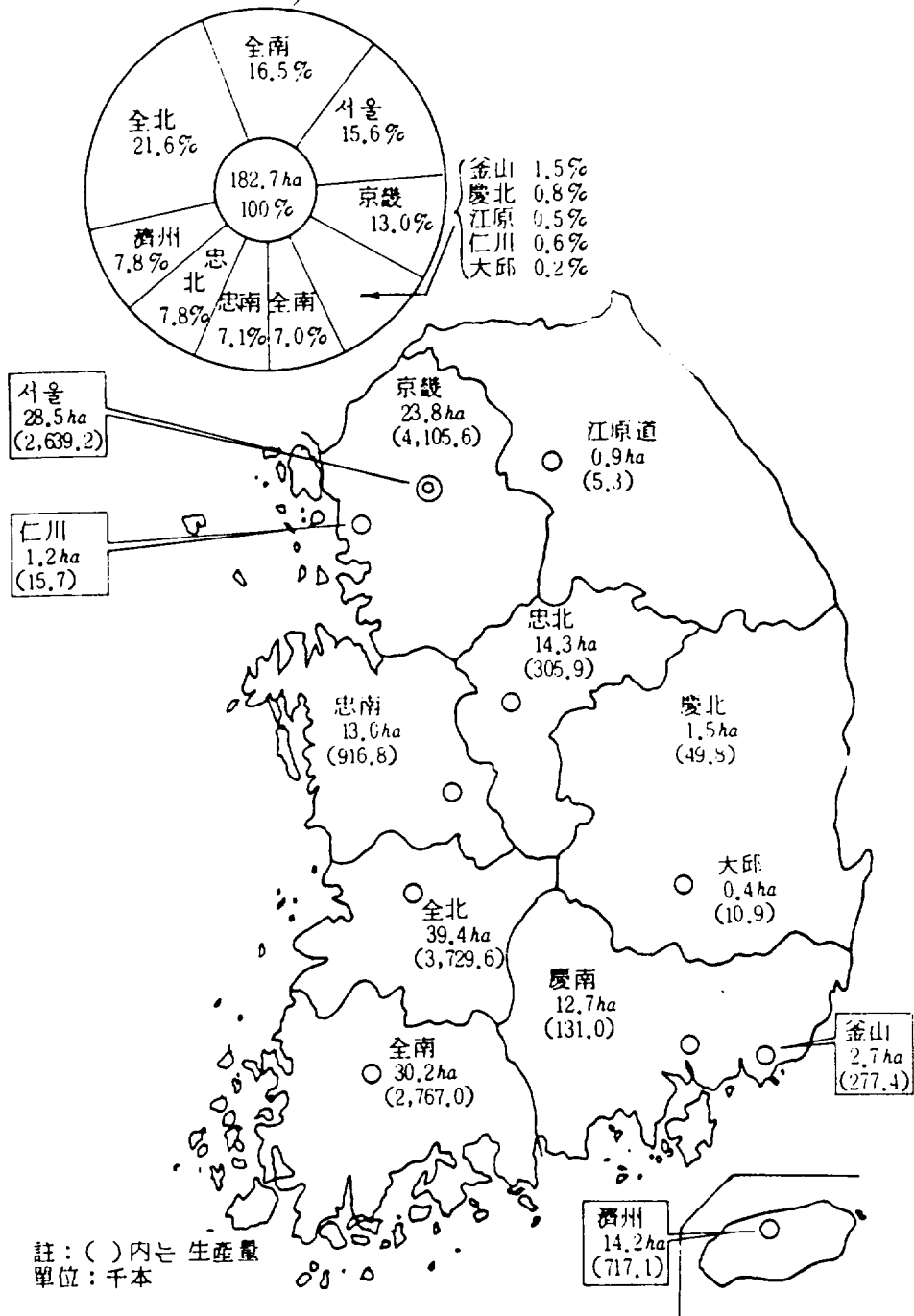
(表 9) 市道別 品目別 栽培面積比(1983年)

單位: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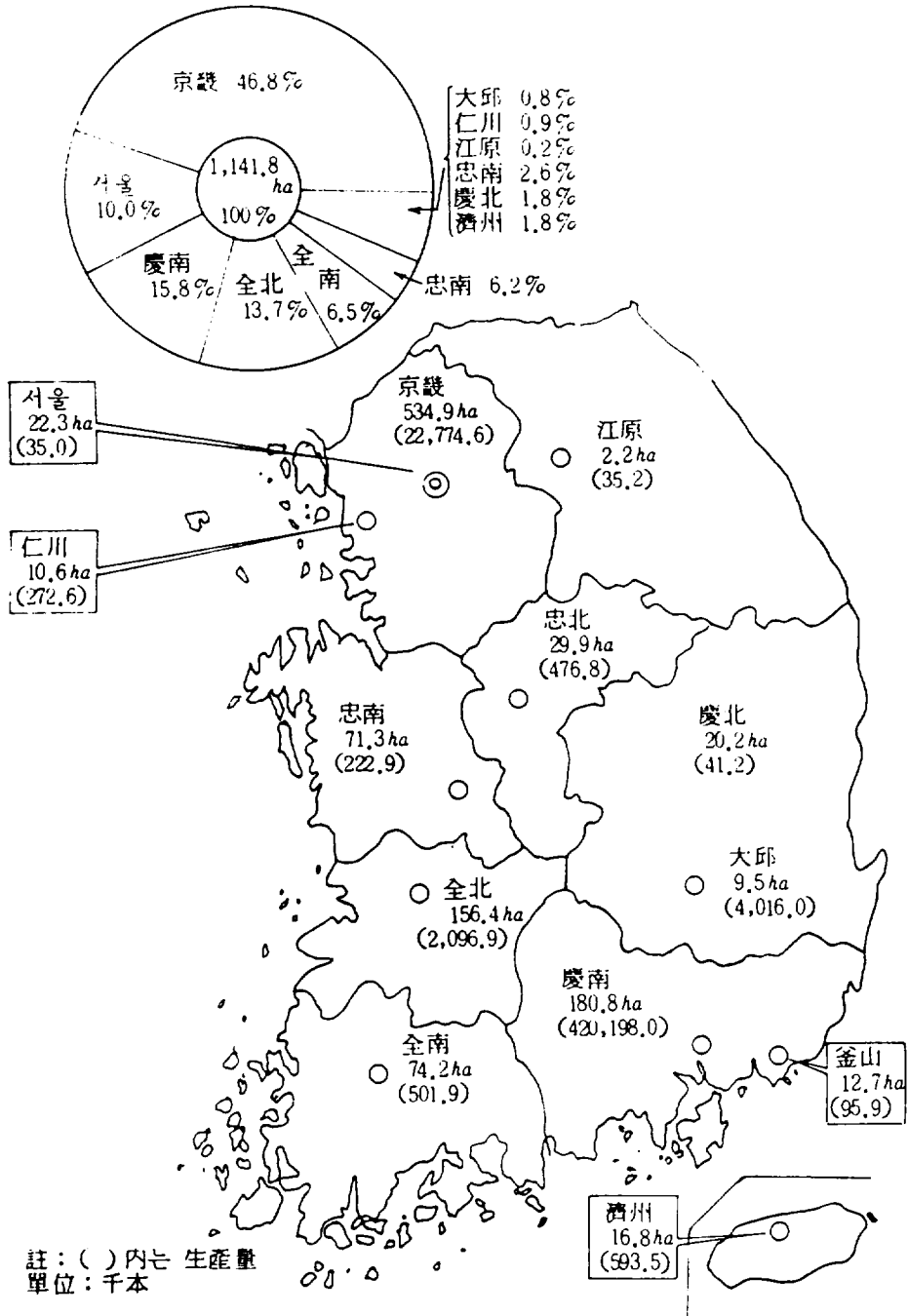
區分 道別	切花類		盆花類		球根類		花木類		觀賞樹		計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서울	30.7	10.0	88.2	53.6	6.9	19.4	28.5	15.6	22.3	10.0	176.6	9.6
釜山	26.8	8.7	5.0	3.0	3.5	9.8	2.7	1.5	12.7	1.1	50.7	2.8
大邱	8.3	2.7	1.8	1.1	-	-	0.4	0.2	9.5	0.8	20.0	1.1
仁川	8.7	2.8	1.0	0.6	0.8	2.2	1.1	0.6	10.6	0.9	22.3	1.3
京畿	98.1	31.9	37.4	22.7	4.8	13.5	23.8	13.0	534.9	46.8	699.0	38.1
江原	2.5	0.8	0.7	0.4	0.7	2.0	0.9	0.5	2.2	0.2	6.5	0.3
忠北	0.5	0.2	1.9	1.2	0.1	0.3	14.3	7.8	29.3	2.6	46.6	2.5
忠南	4.6	1.5	3.7	2.2	0.5	1.4	13.0	7.1	71.3	6.2	93.2	5.0
全北	3.3	1.1	5.4	3.3	2.1	5.9	39.4	21.6	156.4	13.7	206.7	11.2
全南	30.9	10.1	7.0	4.3	4.7	13.2	30.2	16.5	74.2	6.5	137.0	7.5
慶北	5.8	1.9	1.9	1.2	0.3	0.8	1.5	0.8	20.2	1.8	29.1	1.6
慶南	82.8	27.0	5.1	3.1	2.4	6.7	12.7	7.0	180.8	15.8	283.8	15.7
濟州	14.1	4.6	5.6	3.4	9.4	26.4	14.2	7.8	16.8	1.5	60.2	3.3
計	307.1	(100)	164.7	(100)	35.6	(100)	182.7	(100)	1,141.8	(100)	1,832.3	(100)

資料: 농어촌개발공사: 화훼산업육성방안 조사 연구, 1984.

<그림 2> 花木類의 栽培面積 (1983年)



〈 그림 3 〉 觀賞樹의 栽培面積 ( 1983 年 )



한편 제주는 球根類에서 뛰어난 주산지 형성을 보여주고 있고<sup>13)</sup> 花木類는 7.8%로서 그  
 런대로 전국의 6位 수준이나 觀賞樹는 1.5%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 산지형성의 초보단계  
 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3) 主要樹木의 單位當 生産額

花卉類의 品目別 10 a 當 生産額을 비교해 보면 (표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切花類에서  
 는 후리지아가 제일 높고 카네이션, 극락조화, 아이리스 順이다. 盆花類에서는 단위면적당  
 栽植密度가 높은 선인장의 생산액이 제일 높다 (坪當 125,000 원). 다음이 야자이고 난류  
 도 坪當 3,420 원으로 높은 편이다.

(表 10) 花卉類의 種類別 10 a 當 生産額 (1983 年)

(單位: 원)

切花類		盆花類		球根類		花木類		觀賞樹	
品名	生産額	品名	生産額	品名	生産額	品名	生産額	品名	生産額
국화	277,524	고무나무	435,043	다알리아	96,560	목련	439,215	향나무	255,092
카네이션	606,308	종려	441,529	-	-	진달래	586,452	회양목	249,311
글라디올스	395,445	야자	1,323,051	글라디올스	313,348	동백	518,069	단풍나무	169,509
튜립	392,630	초화	255,737	튜립	1,017,670	무궁화	137,682	주목	280,733
아이리스	580,833	선인장	3,750,188	아이리스	763,550	-	-	사철나무	115,104
장미	340,124	난류	1,026,000	-	-	-	-	-	-
극락조화	592,428	-	-	-	-	-	-	-	-
후리지아	917,179	-	-	후리지아	80,000	-	-	-	-
백합	541,842	-	-	백합	708,354	-	-	-	-
안개초	251,940	-	-	수선	166,666	-	-	-	-
(平均)	339,920	(平均)	708,822	(平均)	482,741	(平均)	402,844	(平均)	218,602

資料: 農水産部 特作局

花木類는 진달래, 동백 順이고 觀賞樹는 주목, 향나무 순인데 切花類, 球根類, 盆花類와  
 比較하여 그 생산액이 낮은 편이다.

13) 본도는 주지되는 바와같이 先導的인 농가들에 의해 일찍이 (1970年代) 양란재배 등이 시작되어  
 주요산지를 형성했고 1980年부터는 百合促成切花栽培가 성공하여 그 주요산지를 형성하여 代表的  
 인 주산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본도에서의 樹木栽培는 1975년경부터 재배단계에 들어갔으나 아직  
 은 뚜렷한 主産地圈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생산액만을 가지고 일반농가와 花卉農家の 戶當生産을 비교해 보면( 표 11 ) 대체적으로 花卉農家가 일반농가에 비하여 5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花卉가 일반작물에 비하여 대단히 유리한 경제작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자본집약도가 높고 高收益型의 농업이라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切花 등은 시설비와 연료비에서 점점 생산 cost를 압박할 경향성이 없지 않으며 상품적 속성에서 볼 때 비생활필수품성이라는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 表 11 ) 一般農家와의 戶當生産額 比較 ( 單位 : 千圓 )

區 分	1978	1979	1980	1981	1982
일반농가호당생산액 (A)	2,576	3,120	2,941	4,464	5,481
화훼농가호당생산액 (B)	2,912	5,393	7,812	6,496	8,545
B / A (%)	113.0	172.8	265.6	145.5	155.9

資料 : 農水産部「農林統計年報」, 「花卉便覽」

### Ⅲ. 綠化樹木의 流通

#### 1. 樹木流通의 形態

樹木의 수요형태에는 크게 나누어 私的 需要와 公的 需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私的 需要形態는 다시 個人的 需要와 私的 企業需要로 구분되며 個人的 需要는 더욱 庭園用需要와 非庭園用需要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기타 수요형태로서는 最終需要는 아니나 生産用 素材로서의 樹木需要가 있다.

個人的 造園用需要形態의 樹木流通은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이 重蓄性이 높은 完成植木으로서 單本去來인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수요형태가 少量分散의이고 造園用 植木의 생산지와 소비지 등이 접근되고 있는 점도 그 특징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유통경로는 주로 造景業者 또는 仲買人에 의존하게 되는데 閉鎖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個人的 非庭園用 需要形態( 造景業者 등에 의한 造園用으로서의 수요라기 보다 個人的 필요에 의한 수요형태임 )의 樹木流通經路에는 生産者의 庭先小賣販賣 및 行商 등의 露店판매, 展示即賣, 店舖販賣 등이 있다. 이런 경우 수요형태의 특징은 造形技術을 가하지 않는 中·小

型的 養成木이 중심이고 少量·多品目·分散의 需要인 점이다. 非造園用 樹木은 造景師나 造景業者를 통한 需要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의 여러가지 直賣方法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樹木의 店舖販賣<sup>14)</sup>와 生産者 集團에 의한 展示 即賣 등의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있음도 엿보인다.

私的 企業需要形態 및 公共的 需要形態의 樹木은 企業綠化, 公園綠化, 道路綠化 등에의 需要에서 고도경제 성장기에 급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企業綠化 公共綠化의 需要는 單品目·單一規格·大量需要인 점에 특징이 있다. 이들 수요형태 중 公共機關에 의한 造園發注는 樹木의 조달도 포함하여 造景業者에 일괄 청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企業은 반드시 그럴 需要는 없고 생산자로부터 樹木을 직접 구입하여 설계·시공은 自社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기업이 自社の 工場綠化를 할 때 이러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樹木의 생산은 크게 4가지의 공급형태로 나눌 수 있는 바 ① 주로 농가의 생산형태로 식목재배를 주로 하는 경우, ② 植木業者(仲買, 都散賣)의인 성격을 가지면서 식목을 재배하는 경우, ③ 造景業을 겸하여 식목재배를 하는 경우, ④ 農外 大資本이 直營 또는 위탁생산을 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主體의 성격에 따라 판매방법은 각기 달라질 것이며 또한 유통경로가 달라지게 마련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단계의 樹木流通形態는 폐쇄적·지역적 유통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造景業者 내지는 仲買人 中心이라는 점이다. 이런 경우 단순한 樹木 生産者는 造景業者나 仲買人에 素材 提供者의 지위로 끝나는 경우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樹木生産이 綠化産業으로 발돋움

14) 서울의 小賣商(花房)의 점포에서 취급하고 있는 花卉商品別 構成比를 다음(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觀賞樹의 취급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綠化 樹木이 보다 일반화 되기 위해서는 都市에 있어서의 小賣機能의 활성화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2) 立地別 花卉種類別 取扱比率 (%)

區 分	1) 切 花	2) 盆 花	3) 觀 賞 樹	4) 種 苗 種 球	5) 草 花 苗 種	6) 테라리움類	7) 其 他	計
1. 빌딩密集都心街	48	52.0	-	-	-	-	-	100
2. 商 街 地 域	33.3	64.0	-	0.8	0.8	0.7	1.2	100
3. 準 商 街 地 域	45.7	55.0	-	-	-	2.6	1.7	100
4. 住 宅 街	27.7	65.7	1.5	1.7	1.7	1.0	1.5	100
平 均	35.1	62.8	0.4	0.6	0.6	1.1	1.1	100.2

資料 : 농어촌개발공사 : 화훼 산업육성방안조사연구, 1984, p.138.

하기 위해서는 公開的·廣域的인 유통형태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農協(山林組合) 등 생산자조직에 의한 유통 판매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生産用 素材樹木이란 苗木 및 中間養成木을 말한다. 樹木 最終需要의 양적확대, 수종과 규격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하여 樹木生産에 있어서의 樹種別專門化와 經營形態의 分化, 樹木産地의 확대와 산지간 분업의 진전 등은 생산용 소재 수목을 상품화시켜 대량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産地形成에 따른 流通形態는 농협 또는 산림조합 등 생산자조직이 그 유통기능을 담당하여 共同販賣事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樹木流通의 合理化와 計劃的 生産·出荷體制의 확립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유통경로로서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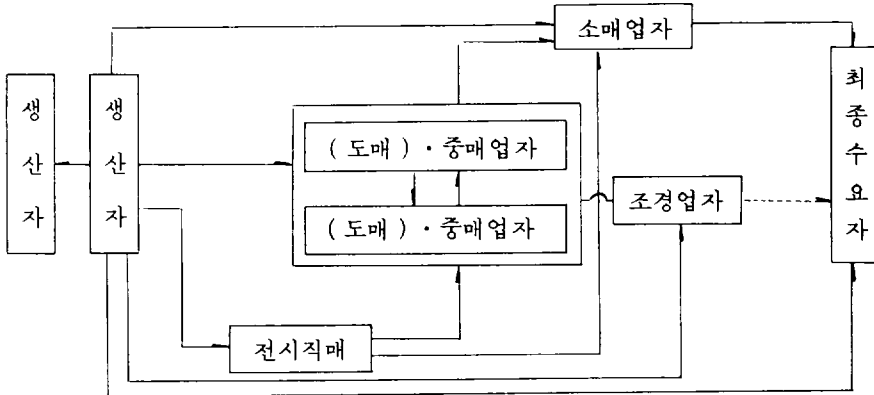
## 2. 樹木流通의 動向

樹木은 生命維持的 商品이고 重蓄性을 지닌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 상품으로서 不均一性을 가지며 生産 및 植栽의 季節性과 生産의 長期性도 그 특징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樹木의 상품특성에서 대량수송의 곤란성, 수송상의 파손, 枯死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市場 루트형성이 어렵고, 상품규격화의 곤란성, 수요의 변동성 등으로 가격형성이 多種多樣的인 樹木流通上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으로써 地域的 流通, 地域的 市場形成이 많아 靑果物流通·市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中央都賣市場의 형성은 미비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樹木(花卉類 포함) 市場은 靑果物市場과 비교하여 後進的 閉鎖性이 殘存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기능은 말할 나위도 없이 ① 能率的인 集分荷, ② 적정한 가격형성, ③ 신속정확한 代金決濟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樹木市場의 경우는 반대로 ① 荷受機能의 후진성, ② 가격형성의 不安全性, ③ 代金決濟의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송조건, 수송수단도 개량되어 비교적 廣域流通을 보여주고 있으나 流通 市場圈은 아직 한정되어 있는 품목이 많다. 따라서 流通經路도 아직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를 보이나 대개 생산자 → 산지 중매인 → 조경업자 → 소비자로 계열화되어 있어 후진성과 폐쇄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도의 유통경로도 일반적인 폐쇄성의 범위를 크게 못하고 있으나, 이를 圖式化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4 > 樹木의 流通經路



물론 上記 루트외에 생산자 → 산지중매인 → 도외반출상 → 소비자 중매인 또는 조경업자 최종수요자가 있으며 최종수요자가 공공단체 등 대량수요처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가 流通파이프는 個人業者를 매개하기 때문에 좋다.

현단계에서 볼 때의 특징은 ① 아직까지 樹木類 專門市場은 없고 물론 競賣去來는 있을 수 없다. ② 생산자 그룹 등의 植木生産者團體는 아직 형성된 바 없고<sup>15)</sup> 또한 農協 등에 의한 공동출하나 共同受注形態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부 생산자에 의한 展示販賣는 보여 주는 바 없지 않으나) ③ 본도에서의 主去來는 생산자 → 중매인 또는 조경업자 → 최종수요자라는 폐쇄적인 체계의 거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개별 상대거래로서 생산자 對 유통업자, 유통업자 對 조경업자의 거래형태임). 그러므로 產地形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樹木生産者 團體에 의한 流通의 合理化, 가격결정의 적정화에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 (대소비자)에는 公開의인 (競賣) 市場이 마련되어 市場의 諸機能 — 價格決定機能, 集荷機能, 分荷機能 — 이 발휘되어야 한다.<sup>16)</sup>

15) 본도의 백합, 튜립 등은 제주화훼협회 (自生組織)가 형성되어 공동출하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일수출 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고 樹木과 직접 관계없는 것이지만 열대과수의 제주 바나나협회 제주농협회 등 자생조직이 형성되어 공동출하에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樹木에 대해서는 아직 自生組織 形態도 없다.

16) 우리나라는 全國에 切花 專門市場이 7개소 (총규모 2,400 坪) 盆花 專門市場이 17개소 (830 坪)가 있고 切花, 盆花 混合市場이 8개소 (1,850 坪)가 있다. 그리고 花卉直 · 共販場으로는 盆花 共販場이 7개소, 切花 共販場이 2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花卉類市場에서 일부 樹木類가 취급되고 있다.

## IV. 綠化樹木 產地造成的 技法

### 1. 產地間 競爭의 격화 ( 豫상 ) 와 對應

'86, '88 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개최는 花卉類-綠化 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公害問題 등을 배경으로 綠花樹木의 수요량도 커지고 있으며 農家도 또 花卉類-樹木 生産에 새로이 착수하고 있다. 그런데 流通·市場은 아직 근대화가 늦어 낡은 유통 파이프, 未組織의 市場속에서 業者 ( 仲買人, 造景業者 등 ) 의 지배력이 강하다. 그만큼 수급 balance 가 무너지는 경우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커질 수 밖에 없고, 산지간 경쟁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짐작이 되고도 남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對應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產地는 대부분 기존산지 ( 구산지 ) 에 의존하면서 형성된다. 사실 기존산지는 苗木의 供給力, 技術力, 販賣力에 있어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지며 그들의 힘에 힘입어 새로운 산지가 성립되어 왔다. 그러므로 기존산지로부터 벗어나 自立性과 市場地位를 높이는 것이 과제 된다. 이들 과제의 실현여부는 產地存續의 관건이 될 것이다.

綠化樹木生産의 경우 산지경쟁력을 높이는 조건이 되는 것은 立地에 알맞은 생산 형태와 栽培樹種의 선택, 기술의 우위성 확보, 산지의 출하규모, 여기에 다 판매력이다.

상품으로서의 綠化樹木은 重高性, 生命維性 ( 生物 ) 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형태는 市場에 대한 運搬能性에 좌우된다. 만약 본도에서도 運搬能性이 낮은 完成木生産을 하게 된다면 그 판매에 腐心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이러한 完成木의 生産은 市場近接地가 알맞을는지 모른다. )

綠化樹木의 產地間競爭은 첫째로 苗木, 養成木, 完成木의 각 생산형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完成木 生産立地가 아닌 곳에서 完成木을 생산한다는 것 등은 論外로 치고 앞으로는 점점 苗木이면 苗木生産適地끼리의 경쟁이 있게 마련일 것이다. 둘째로 生産形態 다음에 중요한 것은 栽培樹種의 選擇이다. 苗木과 養成木生産은 아직 자연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본도산의 구상나무는 지리산 쪽의 것보다 그 成長力, 色調 등에 있어서 또는 cost 的인 면에 있어서도 우수할 것으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郷土木 ( 제주 自生種 등 )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경쟁력이 크게 마련일 것이다. 그런데 綠化樹木의 경우 單品生産의 產地는 위험이 크고, 현재의 유통시장구조하에서는 多品目生産이 有利하게 되어 있다. 有利한 產地일 수록 多樹種 生産의 適地인 곳이며 특징있는 樹種을 생산의 중심으로 삼고 거기에 順次 自然條件에 알맞는 樹種을 몇몇 조합시켜

산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초과수요기에는 기술격차가 가격면에 반영되나 팔다 남은 것은 없을 것이고 不況期에는 재배기술의 우열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綠化樹木의 산지는 少數의 大產地와 多數의 零細產地, 여기에 少數의 中規模產地로 이루어진다. 대체적으로 보아 새로운 產地는 대부분 재배호수 100 호미만, 재배면적 50 ha 이하이다. 中規模產地는 100 ~ 200 ha, 大產地는 300 ha 이상이다. 大產地는 기술축적이 높고, 풍부한 수종, 규격품 준비, 유통면의 장악도 광역적이다. 신흥영세산지는 기술수준이 낮고 그러면서도 판매면을 유통업자에 의존하는 곳은 그 존립이 위험하다.

앞으로 산지간경쟁의 격화는 綠化樹木產地의 再編成을 촉진시킬 것이며 산지의 발전은 前述한 제조건의 정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의 조직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본도의 산지형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우선 요약해 보면

① 立地面에서 볼 때 苗木, 養成木, 完成木 生産形態中 苗木, 養成木 生産形態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② 재배수종의 선택문제는 달리 논의되겠지만 單品目·大量生産·大量出荷型이 아닌 多品目·少量生産·少量出荷型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自生特殊樹種=濟州鄕土木을 中心으로 適地適產品目を 조합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③ 產地規模는 장기적으로는 大產地를 지향하나 中規模인 100 ~ 200 ha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보면 20 개 부락=20 개 단지, 각 단지별 규모 10 ha ↔ 10여 농가의 참여 (각 농가의 규모 1 ha) 라는 즉 200 ha 규모에 200여 농가 참여의 산지형성을 企劃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규모는 현재 (1983) 본도의 花木 觀賞樹 栽培面積 31.0 ha의 6 배수준이며 전국 재배면적 1,324.5 ha의 15% 内外가 된다.

## 2. 綠化樹木의 收益性和 個別經營 對應

주요 수요부문을 보면 공원·도로 등의 공공수요, 주택단지·공장 등의 기업수요, 개인주택 등의 개인수요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部門別 需要動向이나 그 比率 등은 아직 불분명하다.) 앞으로 당분간은 앞의 각 부문 모두에서 그 수요가 증가되어 樹木의 총수요는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요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첫째로는 개인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공공수요와 기업수요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둘째로는 地價의 고등 등으로 綠化對象空間의 확보가 곤란케 되어 密度질은 植栽를 불가피하게 하여 이에 대한 手法이 증가하고 低木性 樹木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며, 셋째로는 個人的 需要者側

의 푸르름에 대한 가치관과 기호가 변화하여 개인적 수요의 다양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등이 예측되는 수요구조의 변화내용이다.

그리고 현단계의 개인적 폐쇄적인 유통체계는 樹木都賣市場 등이 형성됨에 따라 公開的인 그리고 농협이나 산림조합, 생산자 group 등 樹木生産者 團體가 共同出荷와 共同受注 등의 경향이 현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業者間 樹木流通, 價格決定이라는 중심 역할에 대하여 樹木生産者 團體에 의해 流通의 合理化, 價格決定의 적정화가 달성될 것이다. 즉 都賣市場에 의한 競賣가 이루어지게 되면 去來上의 명랑화로 더욱 소비촉진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綠化樹木의 收益性を 객관적으로 분석 정리한 자료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그 收益率이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훨씬 高率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收益性에 대한 조사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나 여기서는 우선 單位生産額을 가지고 대체적인 收益性を 類推할 수 밖에 없다. 사실 花卉類의 單位收益性を 비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품종이 다양하고 품종에 따라서 生育의 조건이 일정하지가 않으므로 생산비도 다르기 때문이다.

地域別 花木類, 觀賞樹의 단위생산액 비교는 다음의 樹種의 選定項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戶當 平均生産額을 보기로 한다. (표13참조)

1983년도 전국 화훼류 농가의 호당 평균 생산액은 1,336만 5천원이었는데 충북이 3,815만 원으로 제일 높고 제주는 3,270만으로 그 다음이 되고 있다. 또한 화훼류 전체의 평당생산액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부산이 34,778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30,052원으로 두번째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는 화훼류 재배상에 뛰어난 우위성을 지니고 있다.

〈表 13〉 地域別 花卉類 生産額

地 域	生 産 額	戶 當 生 産 額	坪 當 生 産 額
서울	3,120,548 천원	3,692,956 원	5,890 원
부산	5,289,729	32,452,325	34,778
대구	1,070,930	28,944,054	17,849
인천	690,205	6,701,019	10,317
경기	13,715,846	11,279,478	6,541
강원	125,220	3,794,545	6,422
충청	1,716,870	38,152,666	12,281
충남	3,001,710	17,451,082	10,736
전북	8,714,842	23,116,291	14,054
전남	4,221,257	14,117,916	10,271
경북	326,138	5,929,782	3,660
경남	8,671,784	12,641,084	10,185
제주	5,427,451	32,695,487	30,052
계	56,092,530	13,364,910	10,204

資料：農水産部に 依함.

위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綠化樹木의 收益性は 樹種에 따라 달리하며 또한 같은 樹種, 規格

일지라도 地域的, 個人的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윤율이나 1인당 가족노동보수를 보아도 樹種別, 規格別, 地域別, 個人生産者別로 각각 다른 것이 通例이다. 그런데 그 差異의 幅이 보통 생각하는 것 보다 큰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차이와 특징이 생기는 배경에는 네 가지 要因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樹種別, 規格別로 需給關係가 각기 달라 가격도 그것을 반영하여 다르게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人氣樹種은 비싸고 不人氣樹種은 거저라도 사가는 사람이 없음은 잘 보여지는 현상인 것이다. 둘째의 요인으로서 綠化樹木의 가격형성이 恣意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個別相對去來가 거의 대부분으로서 그 거래에 있어서는 主觀的 評價가 가능한 形狀, 葉生, 뿌리의 상태, 人氣性 등 다른 농작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요인이 가격에 반영된다. 셋째의 요인은 技術格差에서 생기는 차이다. 특히 苗木과 完成木은 生産, 마무리 기술의 격차가 가격차를 크게 하고 있다. 또한 뿌리돌림 기술도 差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의 요인은 cost差에 생기는 原因이다. cost는 地域과 個人에 따라 벌어진다. 地域에 따라 성장기간이 달라 그것이 cost 差에 결부된다. 個人差는 재배규모, 포장의 분산, 搬出의 便利性 등에 따라 생긴다. 이러한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당 최고생산액은 최저에 비하여 10.3배의 隔差를 보이고 있으며 평당생산액에 있어서도 최고는 최저에 비하여 9.5배의 隔差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이 綠化樹木의 收益性을 규정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앞으로 個別經營의 對應方向을 약간 지적해 놓고자 한다.

먼저 生産對應인바 그 하나는 적절한 生産形態의 선택이다. 이것은 해당 산지 전체와도 관계되는 문제이나 苗木, 養成木, 完成木 중 어느 것에 重點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樹種의 선택과 조합의 문제이다. 樹種의 선택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短期人氣에 너무 끌리지 말고 長期性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보수집이 중요하다. 셋째는 재배, 마무리, 뿌리돌림 등의 기술향상을 언제나 기해야 할 것이다.

이상 세 가지점의 개인적 대응은 바로 人間 資本形成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花卉類는 물론 樹木産業은 知識集約的인 분야임을 절실히 느껴 技術人 양성에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販賣對應으로서 產地 全體의 組織對應이 필요하며 개인으로서 조직강화에 공헌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樹木經營의 비결은 바로 판매에 있다고 흔히 지적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현단계의 유통은 個別相對去來라는 閉鎖的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 있어서는 組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技術과 情報의 두 가지를 잘 구사하여 현실의 개별상대거래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生活環境改善機能과 觀賞機能을 갖고 있는 綠化樹木의 수요는 앞으로 주택관련능화, 公共綠化를 중심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產地의 對應이나 行政의 生産流通에의 對應 등의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生産의 投機性은 아직 拂拭되고 있지 않다. 경영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綠化를 推進하려면 특히 流通市場의 近代化와 정비, 정보체제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 3. 生産團地育성과 市場對應의 基本戰略

綠化樹木産業의 市場構造가 不完全競爭狀態(中間業者中心體系)에 있다는 점은 앞에서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본도와 같은 新興産地는 어떠한 市場對應原則에 따라야 할 것인가.

첫째, 市場競爭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과정에 경제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새로운 流通經路의 開拓과 고객의 획득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綠化樹木 生産 그 자체가 장기간을 요하고 또한 품질을 향상시켜 産地의 地位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꽤 긴 蓄積期間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長期的 採算에 기초하여 産地育成上의 意思決定을 행하는 태도가 불가결하다.

둘째, 綠化樹木의 판매에 관해서는 高度의 去來技術과 새로운 商去來態度가 필요하다. 綠化樹木은 標準化·規格化가 어려운 상품인 만큼 거래기술의 良否에 따라 가격은 크게 좌우되게 마련이다. 더우기 현단계로서는 全流通量의 90% 내외가 中間業者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短期的, 投機的인 利益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對人信用의 蓄積에 의해 長期平均的으로 高利益을 획득하려는 판매태도가 요망된다.

셋째, 綠化樹木은 製品의 差別化·多樣化·新製品의 개발 등 製品政策이 效果를 갖는 生産물이다. 本道の 綠化樹木 生産農家(既存 및 新規)는 계획적으로 製品政策을 실시하여 樹種·規格·肥培管理技術의 통일을 행하고 계획판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共同組織體制(例, 樹木作目班의 組織)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 綠化樹木生産團地育成과 市場對應의 기본원칙을 간추려 보았는데, 다음에는 그를 위한 基本的인 戰略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苗木·養成木·完成木이라는 技術的·經濟的 性格을 달리하는 세 가지의 生産過程을 어떻게 組合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綠化樹木의 需給과 市場構造는 앞으로 서서히(어쩌면 급격히—88올림픽 등의 계기로) 변동할 전망이다.

더욱 나아가서 本道農家の 재배기술과 시장 대응에 관한 지식·경험·능력의 축적도 변동한다.(본도는 감귤 苗木 등의 재배를 통하여 이와 공통되는 樹木의 재배기술은 그런대로 축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 변동에 따라 綠化樹木의 각 生産과정의 相對的 有利性은 변동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生産과정의 조합을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주지되는 바와 같이 本道는 完成木 消費市場으로부터 遠隔地에 있을 뿐 아니라 海上輸送을 필수로 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아직 完成木 生産技術도 충분히 習得되어 있지 않으므로 <養成木 生産>에 우선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일반재배농가는 苗木供給센터(公共機關

이 專擔하는 苗木 生産園地로서 앞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가설적인 기관임)로부터 良質의 苗木을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더우기 농가의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1年生·2年生·3年生 苗木 등을 적당하게 組合하여 구입·육성하는 방법을 設定하여 볼 수 있다.

第2段階는 <養成木 生産+苗木 生産>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前半은 苗木生産의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로서 mist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苗木生産을 개시하고 生産園地(1부락 10ha의 규모)內 自給을 主目的으로 하여 良質苗木의 확보를 도모한다. 다음 後半에는 苗木生産이 순조롭게 進行되면 一部를 販賣하여 소득증대를 기한다.

第3段階로서 <養成木 生産+苗木 生産+完成木 生産>으로 이행한다. 前半은 養成木 生産技術을 배우는 단계로 하여 養成木 需要와 결합한 補完的인 完成木 需要를 충족하는 정도로 完成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하여 養成木의 出荷時期를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고 보다 高價格을 실현할 수 있는 時期에 출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中山間部落을 中心으로 하는 綠化樹木 生産園地를 조성하게 되면 遊休地 등 면적을 크게 잡을 수 있으므로 在園期間을 탄력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하여 養成木을 疎植시켜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完成木 生産은 노동집약적이고 고도의 技能勞動을 요하는 만큼 土地收益力이나 勞動純收益力 모두가 높다. 따라서 完成木의 生産規模를 확대하여 소득수준을 크게 높일 수가 있다. 後半은 本道에 綠化樹木 流通센터(展示圃, 假植圃 등 併設)가 설치되어 完成木의 판매조건이 개선되는 단계로서 完成木 生産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생산과정의 선택·결합은 조건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基本戰略을 밝혔지만, 두번째로 樹木選擇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앞에서도 계속 밝혀온 바와 같이 최근의 급격한 수요증대는 綠化樹木에 대한 그 전부터의 私的需要的 증대와 동시에 그 이상의 公共需要的 증대를 동반한 것이었다. 그런데 本道の 綠化樹木 生産園地造成은 私的需要的에 主力을 두면서(濟州의 樹木은 鄕土木이라는 差別化로 高價品的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私的需要的와 公共的需要的와의 併用할 수 있는 樹種을 선택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로는 우선 88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끝났을 때 供給超過가 예상되는 현단계로서는 私的需要的에 비하여 公共的需要的의 下向이 심하여 가격 폭락 등의 우려가 있음에서이다. 그리고 公共用樹種의 생산은 農外企業이 생산·유통 양면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多樹種, 多規格, 少量의 私的需要的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多品目 少量生産의 小農生産方式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되풀이하면 多品目 少量生産의 小農的 生産方式은 私的需要的의 대응

에 알맞는 생산형태라 생각된다.

더우기 私的 需要와 公共的 需要의 兼用樹種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는 論據는, 本道는 방대한 中山間의 遊休地를 갖고 있어 생산단지 조성방법에 따라서는 大規模일 수 있고 公共的 需要를 만족시키는 少品目·特定規格 樹木의 大量生産·大量去來 方式에 적합한 產地規模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물론 輸送問題는 과제로 남는다.)

세째로 樹種의 數 및 生産規模에 대하여 基本戰略을 음미해 보자. 製品差別化의 可能性을 갖고 있는 시장구조하에 있어서 販賣戰略의 主力은 商品의 獨特性과 產地의 地位를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것은 特定樹種·特定規格의 出荷數量을 잘 갖추어 있어야 하며 需要者側의 신용을 획득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市場占有率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더우기 품질에 있어서 他產地의 生産물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경우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特定樹種·特定規格에 대하여 產地의 優위성을 확립하는 販賣戰略과 함께 한편에서는 生産物의 多樣化( 20개 단지의 20개 수종의 主作化)와 그의 準備를 하는 일이다. 兩戰略의 merit를 결합하면 特定樹種에 專門化하여 그 樹種에 관한 어떠한 規格 - 樹齡·形狀·꽃의 색 등 - 의 樹木일지라도 갖추어지고 있음은 물론 각 規格에 대해서는 大量去來에 응할 수 있을 만큼의 生産규모를 保有하자는 것이다. 中間業者가 去來相對와 樹木市場 등을 선택하는 행동을 보아도 <樹種>에 관한 여러가지 준비가 아니라 역시 特定樹種의 <品質>의 우수성과 모든 <規格>에 관한 준비의 優위성이 선택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特定樹種에 대하여 產地의 地位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5ha의 生産規模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17)</sup> 그러므로 이 論理에 따르면 本道の 綠化樹木 團地規模를 우선 200ha로 잡을 때 專門化 樹種은 10여種이 主體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多品目 少量生産이라는 戰略에서 이를 수정하여 10ha 内外를 特定樹種의 專門化 規模로 할 때, 20개의 樹種이 主體가 되고 이들 20개 수종과 補完的으로 需要되는 多樣한 樹種을 결합시키는 방향을 제기하고자 할 따름이다. 물론 이들 20개의 樹種에 대해서는 모든 注文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規格의 多樣化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10ha 규모의 1단지당 하나의 수종을 전문 수종으로 하고 여기에 보완적인 몇 개의 수종을 결합시키는 生産체계의 확립이다. 그러므로 본도의 전문수종은 20여 수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流通經路의 선택과 그 段階的 移行方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綠化樹木 生産團地造成後 初期段階에 있어서는(假設 濟州市 및 西歸浦市の 樹木(花卉類 포함) 流通 Center의 展示販賣場에 출하함과 동시에<sup>18)</sup> 契約生産·注文生産을 主體로 하는 流通經路를 택해야 할 것이다. 綠化樹木은 對人信用이 重視되어 生産者 — 中間業者

17) 富民協會; 農業と 經濟, 19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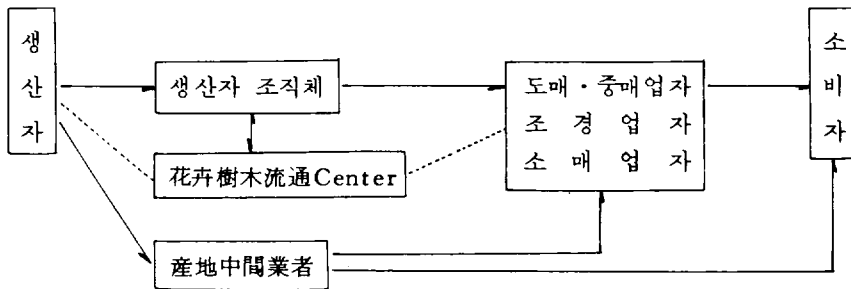
18) 花卉類까지를 포함하는 樹木流通 Center는 假植場과 展示場을 겸하는 flower park로서의 機能를 갖추도록 하여 觀光客 등에 直販케 한다.

一造園業者間의 거래관계가 고정화되어 왔다. 그러므로 새로운 流通經路를 개척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만큼 初期段階의 收益 安定化를 피하기 위해서는 契約生産·注文生産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사이에 良質 苗木의 생산과 肥培管理技術의 高位標準化에 노력하여 품질이 우수한 綠化樹木 生産에 힘을 기울이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完成木 生産의 비중을 높여 소득의 상승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다 유리하게, 또한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流通經路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生産者 組織體(농협 또는 산림조합, 또는 새로운 기능조직체)를 중심으로 하는 樹木의 流通모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그림 5> 樹木의 流通經路 모델



위의 生産者 組織體 中心體系의 流通은 花卉樹木流通Center를 운영하여 産地의 集散市場으로서 機能하며, 종래의 中間業者가 支配하던 流通經路에 代替하여 유통margin의 절감과 공정한 가격형성은 물론 産地의 獨特性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19)</sup> 本道 全境 특히 中山間地帶에 분산되어 있는(앞으로의 예상) 각 團地에 대하여 外部經濟를 제공하는 流通Center를 거점으로 하여 서울 등 대도시의 中間業者를 광범위하게 고객으로서 흡수한다. 이렇게 될 때 종래의 中間業者中心의 유통에 비하여 高位 安定價格을 보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綠化樹木團地로서의 主導權을 발휘하여 全道의이고도 長期的인 視野를 가지고 産地間의 생산·출하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될 것이다. 이러한 流通經路의 정비가 진행될 단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안심하여 完成木生産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 生産者 組織體 - 例農協이 추진할 수 있는 樹木流通에 관한 사업내용을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① 花卉 樹木 流通 Center의 개설·운영

② 造景設計·施工

③ 造景資材販賣 등을 통하여 계획적 생산·출하체제를 확립한다. 그리고 花卉 樹木 流通 Center는 공개도매시장의 형태로서 展示販賣(都小賣)등을 행하며, 한편 환경조성기능 - flower park -을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유통상의 중요기능을 보면 ①가격결정기능, ②소규모 영세생산자와 신규 참여자로부터의 集荷機能, ③ 中小規模의 유통업자와 조정업자에의 分荷機能 등이 될 것이다.

#### 4. 支援體系的 確立

##### (1) 農業도 하이테크 産業

농업은 動物學, 植物學, 土壤學에서 遺傳學, 나아가서는 機械工學과 Electronics 까지의 광범한 지식을 요하는 System산업이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大學의 農科大學을 卒業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知識産業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花卉樹木栽培에 있어서도 그 價値를 높이기 위한 재배기술을 기초로 하여 理論을 전개하는 花卉園藝學樹木學에 있어서 육종, 開花生理, 繁殖, 재배환경 등은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整枝, 剪整 등의 造形技術은 더욱 高度化의 分野이다. 또한 이들의 번식 등에는 이미 biotechnology의 組織培養이 응용되는 技術先端이 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또한 위와같은 생산분야의 기술뿐만 아니라 花卉 樹木은 전형적인 商業的 營農으로서 market in의 경영원리가 전제된다. 그러므로 계획 생산·판매의 유통기술이 숙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오늘날 농업의 중요한 기술개선의 중심은 종합기술체제로 정리하는 일 즉 Technological Package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단순한 직선적인 작업기술이 아니라 有機的인 綜合技術인 것이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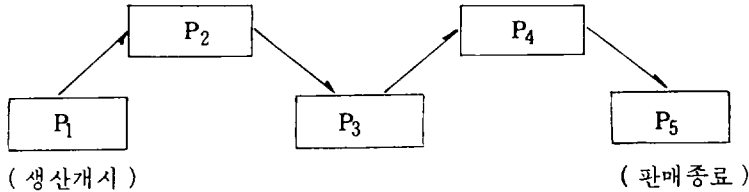
우리는 이제 頭腦와 技術力의 時代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는 人材革新(養成), 技術革新(inovation)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도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頭腦立道라는 차원에서 人間資本(Human Capital) 育成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높은 기술수준과 근대적 management 능력을 몸에 지니는 새로운 농민상을 세워나가야 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시험연구사업을 확충함과 동시에 생산농가를 企業者的 活動을 즉 프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될 수 있는 교육·연수활동이 促求되어야 할 것이다.

##### (2) 組織開發

樹木經營의 비결은 판매에 있다. 그러므로 팔릴 수 있는 樹木을 생산해야 하고 그렇게 생산된 것을 팔릴 수 있는 판매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생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판매를 통한 가치실현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樹木生産은 生産·販賣가 一元化되는 System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生産·出荷의 計劃化, 組織化의 요구인 것이다. 이러한 生産·販賣過程의 각 Process의 機能的 連結을 圖式化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6)

20) H.E. Conklin; Family Farm Coming of Revolution, 1970, Cornell Univ. Bulletin.

〈그림 6〉 생산·판매과정의 각 Process 의 기능적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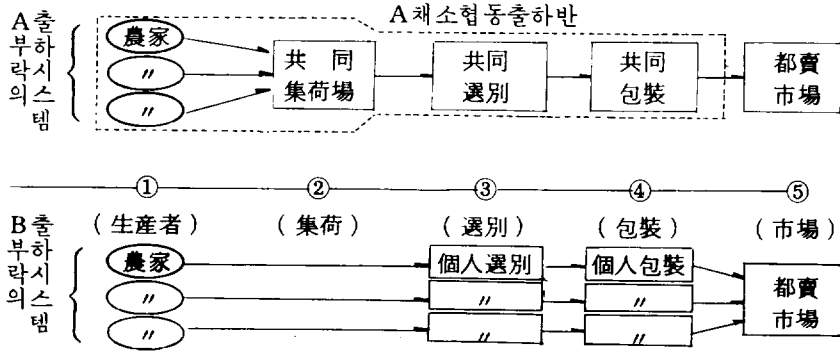


이상의 추상적 圖式을 채소부문을 예로 들어 구체화시켜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7〉 그런데 A부락은 協同出荷班이, B부락은 個人別 販賣인 것인데 그 出荷 System의 구조가 다르다. 채소를 예로 들었지만 樹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모델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즉 組織開發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본도에서의 樹木生産型을 多品目 少量生産 體系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生産 團地別 - 個別農家로는 그러하나 地域的인 集合을 할 때에는 大型化가 가능한 體系이다. 그러므로 생산단지별 소규모생산과 필요에 따라 大量需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集積과 配給機能을 담당할 조직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A부락과 같이 생산농가의 조직화로 樹木作目班(出荷班)과 같은 기본조직을 형성하여 生産者組織(농협 또는 기타 협동조직)에 의한 生産·出荷의 System化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花卉樹木流通Center는 바로 생산자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生産·出荷의 기구로서 集荷機能, 分荷機能, 價格決定機能을 담당케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 조직체는 시장조사, 기술지도, 集荷·出荷代金精算 등의 기능도 담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樹木生産農家の 組織化와 營農指導部門의 設置이다. 情報Center의 설치에 따라 企劃·調査·情報收集·宣傳活動을 행하기 위해서는 個個農家에 있어서의 재배수종과 재배면적, 재배본수, 당해연도의 판매희망계획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에 밀착된 영농지도 사업을 행하여 생산농가 등의 組織化를 도모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리고 도매·중매업자와 조경업자의 조직화와 이들 業者와 連携한 樹木市場과 見本·展示·即賣施設의 운영이다.

〈그림 7〉 두 개의 構造 (具體例)



(3) 行政的 助成措置

樹木の 產地形成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기능을 보면

- ① 유통기능
- ② 전시 판매기능
- ③ 정보센터기능

이상은 生産者 組織에 의해 담당될 수 있는 분야이다.

- ④ 정보센터기능 (이상과 중복)
- ⑤ 교육·연수기능
- ⑥ 시험 연구기능
- ⑦ 연관 관광 recreation 시설
- ⑧ 公園綠地機能
- ⑨ 母樹園機能

등의 형성은 불가피하게 行政的 助成이 있어야 될 것이다. 특히 시험연구, 묘목생산공급, 모수원 조성 등을 담당할 (가칭) 제주특산개발사업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行政的 助成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花卉 樹木 Festival 사업: 본도의 특유 花卉 樹木의 소개 및 선전, 소비의 조장을 도모하기 위해, 또한 樹木생산농가의 발전을 위해 春·秋 각 1회 樹木 Festival을 개최한다.
- ② 特産樹木 販路擴張事業: 樹木·盆栽 등의 소개·선전을 행하며 생산동향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교육, 연수사업 등도 실시한다.

③ 植物共同防疫事業 : 작목반 등에 의한 樹木·苗木類의 共同病蟲防除事業을 추진한다.

④ 생산자 육성사업 : 생산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자금지원, 생산자 조직육성, 하우스 및 미스트 등 시설의 지원, 신규 생산단지 및 토지기반 정비, 貯藏保管施設(假植場) 등의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⑤ 본도에서는 현재 組織培養에 의한 난류의 대량생산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른바 첨단기술 분야인 조직배양이 본도 일반농가 15여 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획기적인 기술변혁으로 보아진다. 마찬가지로 組織培養法을 樹木生産에서 응용, 혹은 樹木生産技術의 통일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 그에 따른 試驗 등은 公的인 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할 과제로서 시험 연구사업의 확충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도 중요한 하이테크산업(기술 첨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21)</sup> 그래서 본도는 현재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 일반 농가들이 조직배양 등의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地域行政 등에서 주요 시책 과제로 삼아 이 분야를 육성 개발하는 先進性을 갖출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경영, 유통기술이 밀반침 되어야 한다.

첨단 과학분야로 지칭되는 biotechnology의 정의를 보면 「생물, 혹은 생물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機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거나 人工的으로 模倣하여 우리들의 産業上 및 生活上 有用한 物質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농업 관계의 기본기술로서는 ① 바이오테크놀로지, ② 遺傳子 전환, ③ 細胞融合, ④ 組織培養, ⑤ 胚移植 또는 受精卵分割(家畜), ⑥ 性轉換(물고기), ⑦ 微生物利用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위의 내용 중 조직배양은 기본적인 조작이 간단하여 널리 응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시책화하여 地域特産의 花卉類, 樹木 등을 생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다.<sup>22)</sup>

21) 강경선 : 「2000年代 濟州地域의 農業展望」 제주대학교보 25집, 1985.

22) 組織培養法에 의한 난류의 생산은 물론이고 카네이션, 국화, 딸기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木本類의 응용을 보면 아자레아의 교배종묘는 1~3 莖頂을 배양하여 10 주후에는 약 10 배량으로나 芽가 증가하여 배양개시로부터 15~17 개월로 開花株를 얻을 수 있었다. 또 5 莖頂을 배양한 브겐 비레아는 30 일후에 10 本の 莖葉이 分化하고 있다. 프크시아는 5 週間 培養하여 20~30 배로 라벤다는 4 週間으로 1 本の 苗가 최저 250 배 정도 증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樹種의 選定

#### (1) 地域別 樹種別 生産額 動向

본도는 花卉類 總生産額<sup>23)</sup> 561억원 (1983) 중 9.7%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 24.5%, 전북 15.5%, 경남 15.5% 다음의 順으로 되고 있으나 觀賞樹를 제외한 생산액으로는 경기 23.6%, 부산 16.5%, 다음이 제주 (14.3%)로서 3位의 地位를 점하고 있다. 본도는 그만큼 花卉類生産에 產地形成이 진척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절화류, 분화류, 구조류는 여기서 생략함) 花木類는 전국 생산액이 73억 5,997만 6천원인데 그 중 진달래과가 50.2%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목련이 17.4%로 되고 있다. (표 15)

(表 15) 花木類의 樹種別 生産額

			(단위: %)		
구	분		구	성 비	
목	련	과		17.4	
진	달	래	과	50.2	
동	백			7.8	
무	궁	화		3.3	
기	타			21.3	
계			100.0		

자료: 농수산부에 의함

진달래과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북이 52.8%로 가장 많고 서울이 17.2%, 제주 9.9%, 전남 9.7% 순으로 되고 있다.

목련과는 경기에서만 73.1%를 생산하고 있고 (전북 6.6%, 경남 4.2%, 충남 3.6% 順), 동백은 제주에서만 88.3%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밖에 전남에서 10%를 생산함으로써 두 지역의 생산액은 전체의 98.4%나 되고 있다.

무궁화는 전북에서만 85%가 생산되고 있으며 다음 제주가 5.3%, 충북 5.2%, 전남 4.2% 順이다.

다음 觀賞樹의 생산액은 249억원으로서 花卉類 生産額의 44.4%나 되고 있다. 이 중 향나무가 49.2%로서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33.5%, 경남 18.6%, 전북 15.6% 순으

23) 지역별, 종류별 단위생산의 비교에 있어서는 농수산부가 집계 발표한 1983년도의 지역별, 종류별, 품목별 생산액을 지역별, 종류별, 품목별재배면적으로 나누어 단위생산액을 산출 비교하였다. 농수산부가 발표한 생산액이 農家受取價格의 총계는 아니지만 지역별, 종류별, 단위생산액의 차이는 지역별 종류별로 土地利用의 集約度를 비교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일 품목의 지역간 차이 또한 시설, 토지, 기술집약도를 비교하는 데 간접적인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로 되고 있다 ( 표 16 )

( 表 16 ) 觀賞樹의 樹種別 生産額 ( 單位 : % )

구	분	구	성	비
향	나	무		49.2
회	양	목		3.9
단	풍	나	무	4.1
주		목		1.3
사	철	나	무	0.5
기		타		41.1
계				100.0

자료 : 농수산부에 의함

(2) 地域別 種類別 單位生産額

① 花卉類 全體의 坪當生産額을 地域別로 比較해 보면 全國平均 坪當生産額은 10,204 원인데 부산이 34,778 원으로서 가장 높고 제주는 30,052 원으로 두번째로 높다.

② 종류별로 보면 ( 절화류, 분화류, 구근류 생략 ) 花木類는 전국평균 평당생산액은 13,428 원인데 지역별로는 제주가 22,907 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 22,217 원, 경기도 21,420 원 순이다.

또한 종류별 평당생산액의 차이를 보면 진달래과가 19,548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동백이 17,269 원, 목련과가 14,641 원 등의 順이며 가장 낮은 품목으로는 무궁화로서 4,589 원이다.

진달래과의 평당생산액의 地域差를 보면 제주가 35,735 원으로 가장 높다 ( 表 17 )

( 表 17 ) 花木類의 地域別 坪當生産額 ( 單位 : 원 )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
목련과	7,731	12,825	22,056	4,107	32,419	4,938	3,913	6,603	5,295	6,173	2,833	4,462	9,333	14,641
진달래과	14,413	22,918	22,700	4,951	28,121	9,717	5,267	7,176	33,187	6,799	17,333	10,184	35,735	19,548
동백	-	2,812	-	-	-	-	-	8,333	4,628	4,799	-	-	26,051	17,269
무궁화	-	-	-	-	-	-	595	-	8,416	2,490	1,933	-	4,815	4,589
기타	12,108	9,722	-	3,815	11,252	4,092	6,147	4,946	1,062	3,561	10,382	4,784	8,840	8,472
평균	13,064	15,506	22,217	4,726	21,420	5,093	3,027	5,566	20,636	5,725	9,382	5,491	22,907	13,428

資料 : 農水産部에 의함.

③ 觀賞樹類의 전국 평균 평당생산액은 7,269원인데 지역별로 보면 (表 18) 제주가 19,062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 16,839원, 충북 15,877원, 전북 12,006원 순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주목이 9,358원으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것은 사철나무로서 3,837원이다.

〈表 18〉 觀賞樹類의 地域別 坪當生産額 (단위: 원)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
향 나무	2,858	1,154	5,218	17,394	6,179	5,015	33,834	12,480	8,030	10,805	3,484	11,720	13,333	8,053
회 양 목	1,486	-	140,556		5,093	683	6,501	25,103	2,032	12,167	2,469	18,000	2,542	8,310
단풍나무	-	-	-	21,717	3,945	2,000	9,413	10,932	-	8,166	2,039	9,423	-	5,650
주 목	-	-	-	7,000	8,607	3,311	-	53,333	5,836	-	18,333		5,333	9,358
사철나무	-	4,200	3,667		-	5,608	33	-	4,050	3,500	861	6,488	-	3,837
기 타	15,833	4,645	2,190	16,077	1,939	17,206	5,610	3,554	20,453	4,906	1,496	9,387	23,382	6,311
평 균	2,980	4,135	8,402	16,839	3,956	5,574	15,877	9,338	12,006	7,733	2,441	10,186	19,062	7,269

資料: 農水産部에 의함.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도는 花木, 觀賞樹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동백류, 진달래류가 뛰어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樹種選擇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3) 樹種의 選擇

대체적인 需要의 特徵으로서의 公害에 강한 나무, 꽃이 피는 나무, 大衆用 나무, 苗木類의 수요가 높은 나무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의 수요로는 生垣用 나무, 품질이 좋은 나무, 小形의 나무, 열매가 달리는 나무, 상록수 등을 찾는 경향이며 觀賞用樹로부터 생활에 밀착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기능(대기정화, 방음, 방화, 도시 재해방지 등)을 갖는 樹種으로 그 수요가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公共的 綠化에 있어서도 植栽後의 관리면에서 될 수 있는 한 省力化가 가능한 樹種이 선택될 것이며 일반소비자에 있어서도 整枝, 剪定 등의 관리에 힘이 들지 않고, 병충해가 별로 없는, 거기에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樹木의 수요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消費者側의 수요경향에 대한 產地側의 對應으로서 小木 혹은 苗木의 생산에 主力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도로서는 수송상의 문제에서도 위와 같은 성질의

樹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樹木生産 그 自體가 觀光園藝的인 場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특히 新혼부부에게 선물용으로 팔 수 있는 樹種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全國公園化 運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樹木 등의 생산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진다.

이상의 추세와 造景樹木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sup>24)</sup>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치가 있는 나무
- ② 移植할 수 있는 나무
- ③ 適應性이 큰 나무
- ④ 入手하위가 수월한 나무
- ⑤ 생산이 가능한 나무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樹種을 개략적으로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A. 障害에 강한 樹種

(a) 大氣汚染의 排氣가스에 강한 樹種

피라밋 향나무, 녹나무, 먼나무, 나한송, 후박나무, 담팔수, 섬쥐똥나무, 잣밤(숙), 팽팡나무, 감탕나무, 아베리아, 후피향나무, 소귀나무, 광나무, 가시나무(숙), 당남천, 이큰동백, 아왜나무, 협죽도, 식나무, 벽오동, 포프라, 프라타나스, 돈나무, 사철나무, 도라세나, 다정큼나무, 사남주 나무(숙), 은행, 소철, 태산목, 왕불래나무, 가시목서, 석류나무, 가끼나무(숙), 당단풍나무, 사스레피나무, 당광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개나리, 천사울, 수양버들, 황칠나무, 수종려, 호랑이가시나무, 철쭉 등

(b) 潮害에 강한 樹種

담팔수, 섬쥐똥나무, 잣밤(숙), 나한송, 아왜나무, 이큰동백, 소귀나무, 돈나무, 후피향나무, 다정큼나무, 감탕나무, 곰솔, 피라밋 향나무, 조록나무, 사철나무, 팽팡나무(숙), 소철, 아카시아, 협죽도, 치자나무, 가시나무, 털가시나무, 가죽나무, 왕불래나무, 팽팡나무, 당광나무, 포프라, 해당화, 당종려, 야자류, 수종려 등

(c) 瘦地에 강한 樹種

아카시아류, 자귀나무, 오리나무류, 회화나무, 산오리나무, 싸리 등

B. 需要先別로 본 需要가 큰 樹種

(a) 園地, 學校, 病院

먼나무, 소귀나무, 녹나무, 담팔수, 가시나무, 후피향나무, 후박나무, 조록나무, 배롱나무, 목서의 일종, 피라밋향나무, 잣밤(숙), 은행, 벽오동, 아카시아, 미국무궁화, 프라타나스, 포프라, 버들, 협죽도, 이큰동백, 아왜나무, 다정큼나무, 서향, 삼나무, 팽팡나무(숙), 광

24) 尹國炳; 造景樹木學, 一潮閣, 1984, pp.73 ~ 76.

나무, 섬취뚝나무, 사철나무, 가시목서, 히마리아시다, 목부용, 메다세코아, 자귀나무, 금목서, 개나리, 분설화, 팔손이, 감탕나무, 목련 등

(b) 工場

녹나무, 담팔수, 먼나무, 소귀나무, 가시나무, 후박나무, 조록나무, 포프라, 목서의 일종, 피라밋 향나무, 잣밤(속), 벽오동, 아카시아, 협죽도, 아왜나무, 다정큼나무, 돈나무, 회화나무, 감탕나무, 팡팡나무, 팡팡나무(속), 진달래, 섬취뚝나무, 히마리아시다, 사철 등

(c) 街路樹

녹나무, 가시나무, 목서의 일종, 돈나무, 다정큼나무, 프라타나스, 벽오동, 당단풍나무, 포프라, 버들, 회화나무, 가네나무(속), 섬취뚝나무, 삼나무, 자귀나무 등

(d) 公園樹

담팔수, 동백, 녹나무, 먼나무, 소귀나무, 나한송, 가시나무, 후피향나무, 후박나무, 조록나무, 배롱나무, 피라밋 향나무, 목서의 일종, 잣밤(속), 식나무, 버드나무, 포프라, 아카시아, 벗나무, 미꾸무궁화, 프라타나스, 땡강나무(속), 털가시, 매실, 단풍, 은행, 벽오동, 협죽도, 꽃치자, 이룬동백, 삼나무, 다정큼나무, 서향, 태산목, 옥향, 팡팡나무, 진달래, 팡팡나무(속), 팡나무, 섬취뚝나무, 호랑이가시, 팔손이, 감탕나무, 목련, 자귀나무 등

(e) 住民

나한송, 소나무, 소귀나무, 담팔수, 가시나무, 후피향나무, 배롱나무, 목서의 일종, 피라밋향나무, 잣밤(속), 식나무, 매실, 벗나무, 단풍, 마꽃치자, 이룬동백, 아왜나무, 삼나무, 다정큼나무, 서향, 옥향, 진달래, 팡팡나무, 팡팡나무(속), 팡나무, 섬취뚝나무, 가시목서, 당단풍, 목부용, 히마리아시다, 사철, 금목서, 단풍나무, 개나리, 능수조팝나무, 팔손이, 감탕나무, 마취목, 구슬회양목, 피라칸사스, 측백대나무 등

이상의 樹種과 관련하여 본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郷土木的 性格의 特殊樹種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일부 도입종도 포함되어 있으며<sup>25)</sup> 이를 (도)로 표시하였음.)

A. 造景樹木類

구실 잣밤나무, 멀구슬나무, 동백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팡팡나무, 팡나무, 구름비나무, 아왜나무, 제주광나무, 산철쭉, 참꽃나무, 굴거리나무, 돈나무, 당단풍, 사철, 황근, 시스메피나무, 느티나무, 옥도화, 다정큼나무(도), 호랑가시나무, 사상가(도), 먼나무, 구상나무, 왕벗나무, 생달나무, 아베리아(도), 나한송(도) 등

25) 현재 陸地部에서 본도에 반입되고 있는 樹木은 벗나무, 향나무류, 땡강나무, 박태기나무, 목련류, 철쭉, 느티나무, 잣나무, 매실, 산수유, 모과나무, 주목, 단풍나무, 옥향, 태산목, 감나무 등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재배확대로 가능한 한 地域內 自給體系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다.

B. 盆植物類

백량금, 자금우, 밀감나무, 금꿨나무, 천리향, 팔손이(도), 꽃치자, 송악, 문주란, 자생난초류, 남천, 마삭줄, 모람, 애기줄사철, 담팔수, 왕불래나무, 켄차(도), 소철(도), 코코스야자(도), 휘닉스(도), 당종려(도), 유카(도), 도라세나(도), 와싱토니아(도), 종꾼리(도)

C. 盆栽類

느릅나무, 해송, 멀꿀, 동백, 산당화, 주목, 감굴류(도), 오죽, 조록나무, ※ 둥나무(도), 비자나무, ※ 매화(도), 피라칸사스(도) 등

(4) 素材用 가지(枝物) 花木의 재배

枝物재배는 花草재배와 달리 토지를 선택하지 않아 경사지나 山林原野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도의 中山間 利用문제와 결부시켜 생산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枝物재배는 苗木생산을 自家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한번 정식해 놓으면 挿木과 接木用의 穗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배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花草와는 달리 그렇게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草本性의 切花와 달리 출하기에 탄력성이 있어 출하조정이 쉽다. 예를 보면 농수조팝나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藥物로 출하가 가능하고 1~3월은 促成品으로서 4월 이후는 자연개화의 출하로 그 폭이 넓다. 출하시기를 놓친 경우나 과잉의 경우 다음해에 수확 출하할 수도 있다. 또 종류에 따라서는 농수조팝나무, 에니시타, 금작화 등과 같이 원격지에서도 수송이 가능하다.

물론 단점으로서 成木에 달할 때까지 상당한 年數를 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단기간에 成木에 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종류의 배합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본도는 겨울의 온난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이용한 促成재배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促成花木의 종류와 방법을 보면 다음(表 19)와 같다.

(表 19) 促成花木의 종류와 방법

종 류	촉성준비	入室期	적 온	촉성 일 수		비 고
				12~1月	2月~3月	
철 쪽 류	根 株	12 ~ 3 月	21~23 C	30~35 日	20 ~ 25 日	
능 수 조 팝 나 무	根付·切枝	12 ~ 2	16	15~20	12 ~ 15	
매 화	切 枝	12 ~ 1	21	10~15	3 ~ 7	
복 송 아	"	1 ~ 3	21	15~20	12 ~ 15	
벗 나 무	"	2 ~ 3	21	-	12 ~ 15	
산 수 유	根 付	1 ~ 2	18~21	15~17	10 ~ 15	
백 목련	切 枝	1 ~ 3	18~21	20~25	15 ~ 20	
목련	"	2 ~ 3	18~21	-	15	
수 양 버 들	"	12 ~ 2	16	15	10	
동 백 케	"	2	21	-	20	
코 을 마 리	根 付	12 ~ 3	18	35	20	

## 제 V 장 몇 가지 補完體系

### 1. 樹木生産과 觀光園藝와의 관계

#### — 生産·觀光의 組織化 —

##### (1) 觀光園藝의 目的

관광원예(농업)는 생산농가가 생산물을 직매함으로써 出荷·販賣에 의한 중간경비 및 소매 margin을 생략하여 그 생산으로부터의 소득·보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종래의 主要作物을 관광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원예지향의 適作物을 개발·도입하여 육성함으로써 관광에 의한 수익을 일층 증대시킬 수 있다. 더우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상품화 되지 않은 농산물도 그 적격성이 있는 것은 함께 상품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진흥과 관광이 서로 결합하여 농업경영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관광원예의 목적이다. 관광원예를 구성하는 作目を 우리는 販賣目的 作目으로서의 service 財 作目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 약간 고

찰하면 다음과 같다.

### (2) service 財 作目

販賣市場選擇의 二大 基本方向의 하나는 生産財貨로서의 농산물을, 이를테면 消費地 都賣市場에 전면적으로 판매위탁하는 판매방향 선택인 것이다. 產地로부터의 방향성을 보면 遂心的 販賣方法의 선택이고 여기에 속하는 作目を 生産財 作目이라 총칭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시장선택방향은 前者와는 逆의 方向性의 선택을 의미하며 產地로부터 말하자면 求心的 販賣方向으로서의 產地直賣選擇인 것이다. 消費地 또는 最終消費者 그 자체가 產地 또는 생산농가에 나오는 case 를 가리킨다.<sup>26)</sup> 여기에도 당연 개개 생산농가에 의한 小賣直賣의 形態로부터 service의 共選共販을 포함하는 供給者 集團에 의한 도매적 판매형태까지 여러 가지가 混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產地로 부터 보아 求心的 販賣方向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作目を service 作目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히 生産財貨로서의 판매가치에 끝나지 않고 그위에 더욱 판매에 따른 service 用役이 附加될 수 있다.

그래서 綠化樹木을 求心的 販賣選擇의 대상 작목으로 하고 본도를 찾은 관광객에게 直賣하는 즉 생산 - 관광의 조직화를 통하여 樹木產地形成上의 安定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花卉 樹木 流通 Center-flower Park—또는 Green Park—는 代表的인 공급자 집단에 의한 도매(직매) 형태가 됨과 동시에 관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관광원예의 성격

관광원예는 제 1차산업으로서의 役割을 가지며 더우기 생산물을 고객에게 直賣하므로 제 3차산업적인 성격을 더할 수 있다. 또한 생산물을 품목에 따라 加工하여(木工藝 등) 상품화 할 때 제 2차 산업적 성격도 겸하고 있다. 즉 1차, 2차, 3차의 각 산업적인 성격을 겸하고 있어 지금까지 상실되었던 농업의 영역을 회복 확대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상 관광원예(농업)의 조성을 바로 樹木生産과 결부시킴으로써 관광자원의 조성 과 함께 직접 판매를 통하여 收益化하는 二重效果를 겨냥한 방법론이 바로 生産 - 觀光의 조직화인데 이를 모델化 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

26) 관광원예(농업)는 商品化 農業의 變型으로서 「팔려 가는 농업」이 아니라 「사러 오도록 하는 농업」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농업과 관광 등이 결부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 그림 9 ] 田園마을에 있어서의 周年觀光園藝의 모델

종 류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과 수	감 꺾													早·中·晩生種 配合
	하우스감꺾													
	열 대 과 수													바나나, 파인애플, 개발품 목배합(시설, 노지)
山 菜 類	딸 기													早·中·晩生種 시설· 노지 재배 배합
	山 菜 類													
	버 싯 類													
花 卉 樹 木	花 木 類													여 러가지 수종 배합
	花 卉													10數種 배합

비고: ————— 관광기간, ■■■■■ 관광최적기간

위의 모델이 현실성을 가질려면 생산·관광의 합리적인 조직화에 의해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조직적인 관광을 운영하여야 하며 농가간의 과잉경쟁을 피하여 지역 농가간의 共榮을 기해야 한다. 여기서의 田園마을은 道가 현재 구상하는 것으로서<sup>27)</sup> 전원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이러한 周年觀光園藝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며 마을별로 主品目을 特化시켜 道全域의 Network를 이루어 周年化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樹木生産과 自然保護의 관계

신문지상의 단골손님 중의 하나가 한라산 회귀수목의 도체에 대한 기사이다. 몇 년을 두고 두고 지속되는 기사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채 소극적인 대응요법적 대응으로 끝나 버리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는 우리가 알며, 모르는 사이에 그 회귀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라산의 原生林이 保存되어야함은 우리의 지상과제이다. 그런데 保存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道徳律만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다. 우리는 교통경찰의 바로 눈앞에서도 교통법규를 어질 때가

27) 제주도는 全道の 公園化운동의 일환으로 주민소득이 높고 경관이 수려한 20개 마을을 선정, 전원마을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원마을을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周年觀光園藝를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두번이 아니다. 그렇거늘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심심산곡에서 희귀수목을 도채하기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이러한 도채행위를 막는데 公權力만으로는 인력, 예산면에 그리 쉬운 일이 못 된다.

그러면 한라산의 희귀수목보호 - 자연보호의 방법론을 간략히 찾아 보기로 하자.

첫째, 公權力에 의한 Weak Point 에 대한 點의 방어와 병행 하여,

둘째, 面의 방어로서의 地域社會 投資 (共同體의 共同管理 등)가 보완되는 System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여기에는 좀더 검토를 요한다.)

셋째, 이른바 희귀수목 = 한라산 자생수종을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代替供給시킨다는 원인 요법적 - 적극적인 자원조성 시책이 요구된다. 原生林을 도채하지 않더라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공재배로 대량 공급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인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地域所得化라는 일거양득의 체계를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人工栽培가 적극 장려될 때 다음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첫째, 自然產 = 自生樹와 人工產의 식별이 불분명하여짐으로써 오히려 原生林의 도채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질 계연성이다.

둘째, 人工栽培에 따른 삼수, 종실 등의 무분별한 採取過程에서 原生林에 대한 훼손이 더 가해질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人工栽培 즉 樹木產地形成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해소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① 현시점에서 재배 (보육) 농가의 樹種, 數量을 점검하여 등록케하는, 즉 수목생산농가 등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으로서 신규 참여자나 기생산자의 새로운 苗木導入에 의한 생산의 착수도 樹種別 數量 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시켜, 이렇게 생산된 樹木은 道外搬出 등 商品化를 가능케 하여야 할 것이다.

② 自生樹의 삼수, 종실 채취는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전담하고 동시에 苗木의 생산 공급은 公企業形態<sup>28)</sup>인 가칭 “제주도 特産開發事業所”의 花卉 樹木 담당부서에서 공급하는 것

28) 公企業의 存在意義 (-公共性和 企業性)는 企業의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 市場機能을 어느 정도 활용하여 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公企業은 한편에서는 企業性 (혹은 경제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을 또 한편에서는 公共性 (사업을 통하여 사회의 봉사에 공헌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公共財의 性格을 갖고 있기도 하다. 즉 농업생산은 線과 酸素의 공급기능, 국토보전과 수리조절기능, 식료의 안정공급, 기타 사회안정기능 등을 外部經濟로서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市場에서 평가될 수 없는 순수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에 대해서 外部經濟供給 내지 補完的機能 -例 流通加工, 자금조달, 기술개발 등-을 公共的으로 담당해 줄 필요가 있다.

가칭 “제주특산개발사업소”는 위와 같은 성격에서 自生樹種=鄉土木, 제주특산花卉類의 試驗調査, 제주自生植物의 種子保存, 木工藝, 石工藝 등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화 등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苗木生産 供給事業을 전담한다.

이 바라진다. 사실 현단계에서 볼때, 제주를 植物의 보고라고는 자랑하면서도 이를 자원화하는 즉 人工의 栽培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상품화 유통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公共的인 차원에서 自生植物에 대한 조사연구와 상품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苗木의 생산 공급도 전담하여 樹木生産團地에 計劃的으로 공급하는 System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VI. 結 語 (要約 및 提案)

綠化 樹木의 產地形成에 즈음하여 몇가지 점을 제기함으로써 결어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시장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地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 과정에 경제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새로운 유통경로의 개척과 고객의 획득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綠化 樹木 生産 自體가 장기간을 요하며 또한 품질을 향상시켜 產地 이름을 확립하는 데에는 상당히 장기의 축적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응하여 장기적 재산에 입각하여 產地育成의 意思決定을 행하는 태도가 불가결하다.

(2) 綠化 樹木의 판매에 관해서는 高度의 거래기술과 새로운 商去來 態度가 필요하다. 綠化 樹木은 標準化·規格化가 어려운 상품인만큼 거래기술의 良莠에 따라 가격은 크게 좌우된다. 더우기 현실은 8割 이상이 中間業者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투기적인 이익을 추구 할 것이 아니라 對人信用의 축적으로 長期 平均的으로 高利益을 얻으려는 판매 태도가 바람직하다.

(3) 綠化 樹木은 製品의 差別化·多樣化·新製品의 개발 등 製品政策의 效果가 큰 농산물이다. 그러므로 산지형성에 참여하는 농가는 계획적인 제품정책을 실시하여 樹種·規格·肥培管理 技術 등을 통일하여 計劃販賣를 실시하기 위해 共同組織體制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 綠化 樹木 生産團地 育성과 市場對應의 기본원칙을 요약해 보았다. 그러면 다음은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일단 현재 (1983)의 화훼류 생산면적 60.3 ha의 3배 수준인 150~200 ha의 中規模 生産團地 造成을 목표로 한다.

(2) 1개 단지를 마을을 중심으로 10 ha - 참여농가 10여호를 단위로 하여 全道에는 20여개소의 團地를 조성한다.

(3) 이상의 단지들은 일단 중산간 도로를 중심으로 한 中山間部落을 樹木團地化하여 中山間 利用 문제와 결부시킨다.

(4) 이들 각 단지에는 제주의 自生樹種 — 郷土木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체계를 수립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별농가단위 생산이 아닌 마을을 中心單位로 하는 生産團地體系 — 하나의 群落을 이루어 景觀美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또는 면을 단위로 하여 하나의 特產品(樹木, 花卉類, 기타 특산품) 生産運動을 전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 立地面에서 볼 때 苗木·養成木·完成木이라는 3단계의 생산형태 중 우선 苗木·養成木 生産形態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현단계는 完成木 消費市場으로부터 遠隔地에 있어 수송상의 문제가 있고 아직 完成木 生産技術도 충분히 습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苗木이 公共機關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면 생산능가는 養成木 生産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단계로는 <養成木 生産 + 苗木生産> 단계로 더욱 나아가서는(제 3 단계) <養成木 生産 + 苗木生産 + 完成木生産>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또한 單品目, 大量生産, 大量出荷型이 아닌 多品目, 少量生産, 少量出荷型이 바람직하며 自生特殊樹種 — 郷土木을 중심으로 적지 적산 품목을 조합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最有利樹種을 主品目으로 하고 여기 2~3 수종으로 補充하는 作目體系가 바람직함)

(7) 재배수종의 선택문제는 우선 私의 需要에 主力을 두면서(郷土木이라는 差別化로 高價品의 性格을 살려서) 가능하다면 私의 需要와 公的 需要와의 併用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公共用 樹種의 생산은 農外企業이 생산·유통 양면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필요한 경우 農外企業과 계약 재배시는 少品目 大量生産體系가 알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多樹種, 多規格, 少量의 私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多品目 少量生産의 小農的 生産方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물론 中山間土地를 이용하여 公的 需要를 만족시키는 少品目 特定規格 樹木의 대량생산·대량거래 방식에 적합한 산지규모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본도의 茶나무 생산 형태와 같은 독점성은 배제되어 현재의 일반 농가가 樹木생산을 추가시키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8) 기술의 우위성 확보 — 조직배양 등 기술의 첨단화가 밀반침되어야 한다.

(9) 판매문제는 2가지 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樹木(花卉類 포함) 流通센터(가칭)의 展示 直賣場을 개설한다. 이 直賣場은 生産者 組織(樹木 作目班 등이 주체가 되어 형성하는 協會 등)에 의해 개설 운영되어 판매력을 배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樹木生産과 觀光을 결부시키는 문제이다. (생산 — 관광의 조직화) 즉 多角的인 自然植物園을 生産團地로서 조성하여 이것이 自然 recreation場 — green park와 같은 기능을 형성함으로써 생산과 판매를 결부시키자는 것이다. 이 생산단지 — green park는 ① 생산 전시판매(박리다매) 기능 — 관광객의 선물용으로서 苗木, 養成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포장방법 등 판매전략이 있어야 될 것이다. ② 녹화수목 예탁은행으로서의 기능 — 신혼부부가 기념 식수를 했다가 my home 등이 마련되었을 때(3~5년 후) 캐어 가도록 하는 예탁 증식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문제는 1次産業의 3次産業化라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판매방법외에 일반적인 유통체계 — 육지부와와의 거래가 세워져야 한다.

(10) 아직 화훼류의 法定都賣市場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있다. (1982년 「農安法」이 일부 개정되어 都賣市場部類에 花卉類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조치는 되어 있다.) 물론 나무시장도 公的으로는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아 주로 생산자 — 중간업자 — 造園業者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농협 등이 적극 참여하여 (단위농협이 주체가 되어 현재 전국에 8개소의 산지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서귀포시 直賣場(花卉樹木流通센터)이 개설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樹木流通의 大型化, 廣域化, 迅速化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11) 行政的 助成措置

樹木의 產地形成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기능을 보면, ① 유통기능, ② 전시판매 기능, ③ 정보 center 기능, ④ 교육·연수기능, ⑤ 시험·연구기능, ⑥ 연관 관광 recreation 시설, ⑦ 공원 녹지 기능, ⑧ 母樹園 기능 등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우선 行政的인 支援體系로서 ① 시험연구, 묘목생산공급, 모수원 조성 등을 담당할 主體가 형성되어야 한다. 石類의 상품화도 여러가지의 연구·개발이 있어야 될 것이므로 이들의 생산 — 상품화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제주 特産開發事業機構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본도는 섬(島)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行政主導的인 先導役割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화가 그리 쉽지 않고 사업화가 설사 이루어져도 이를 계속 consultant 해주지 않으면 성공 — 정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公企業 形態의 기구가 어렵다면 나무 문제로 범위를 축소한 林木試驗場이라도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自生樹木을 사업화할 때에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한라산 自生樹와의 구별이며 재배하기 위해서 種實의 採取 등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 原始境이 파손되기 쉽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어느 기간 동안은 公共的 機關에서 種實의 採取와 苗木의 생산, 母樹園의 조성 관리는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앞서의 둘 이용 문제만 하더라도 私의 企業에 맡길 수 만은 없을 것이다. (例, 송이를 화분 소재용으로 판매하는 문제 등)

그러므로 公企業的 性格의 지역 자원 개발사업을 담당할 주체 설립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種實의 採取 — 苗木의 생산 공급
- ② 母樹園의 조성 관리
- ③ 시험연구
- ④ 상품화, marketing의 조사, 개발

⑤ 정보센터

⑥ 교육·연수

⑦ 木工藝品의 開發

⑧ 樹木(화훼 포함) 생산농가 등록 관리(일정 기간은 樹木生産農家를 등록제로 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 단계에서의 保有樹木을 計量登錄해 놓지 않으면 人工栽培品과 自生品을 구별할 수 없어 상품화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⑨ 조직배양 등 첨단기술분야 도입 개발

그외에 石類의 상품화 개발 문제를 더 追加시킬 수 있을 것이다.